

환경대학원사람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24년 하반기 뉴스레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34

학교소식

1. 환경대학원 소식	4
2. 전공별 소식	20
3. 석·박사과정생 활동	93
4.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106
5. 교수동정	110
6.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121
7. ESG 전문가 과정	127
8. 시민정원사	133

동문소식

1. 동문동정	136
2. 발전기금	148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발행인 윤순진 환경대학원장, 전의찬 동창회장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세훈 환경대학원 부원장, 이상헌 동창회 수석부회장
위원장 김우리사랑, 이지연, 현자연
위원 진린 부회장, 김 배 도시·환경최고위과정 사무장, 이태성 대외협력조교
E-Design 스튜디오 소유와존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02-880-5642 FAX 02-886-7935 <https://gses.snu.ac.kr/>

학생기자단 활동 소감



현자연 / 취재기자

환경대학원의 행사에 참여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엔 환경대학원의 동아리를 취재했는데, 환경대학원의 취지인 화합과 융복합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대학원의 밝은 미래와 성장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 취재기자

보이지 않는 변화라고 여겨졌던 기후위기가 보이는 변화라는 사실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 위기를 상기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대전환의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선 환경대학원 사람들의 땀과 열정을 기록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김우리사랑 / 취재기자

환경대학원에서 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환경대학원과 모든 구성원분들을 담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모이고 쌓여서 또 한 권의 뉴스레터가 발간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한 해였길 바랍니다.

학교소식

행사 / 학술 / 연구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34

1.

환경대학원 소식



1.1

2024학년도 2학기 환경대학원 입학식 및 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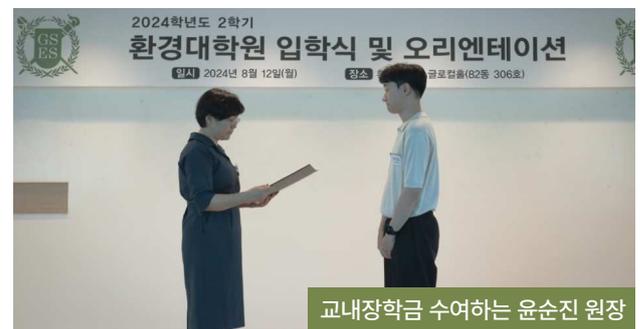
2024년 8월 12일(월), 환경대학원 글로벌홀에서 2024학년도 후기 환경대학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었다.

환경대학원은 2024학년도부터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하여 신입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박인권 교무부원장님의 학사보고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윤순진 원장님의 입학식사와 전의찬 총동문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였다. 이후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입학식 후에는 각 학과 및 연구실 소개와 함께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 투어가 진행되었다.

윤순진 원장은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신입생들이 환경대학원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내장학금 수여하는 윤순진 원장



동창회장장학금 수여하는 전의찬 총동문회장

1.2

2023학년도 후기 환경대학원 학위수여식

2024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후기 학위수여식 행사가 열렸다.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및 환경설계학과 졸업생들은 학위복과 학사모를 착용한 채 객석을 가득 채웠고, 뒤편에 선 가족들과 친구들은 축하와 응원을 보냈다. 환경대학원 교수 및 총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김세훈 학생부원장의 사회와 브라스밴드의 연주를 시작으로 행사의 막이 열렸다. 박인권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가 끝난 후, 졸업생들에게 학위 수여가 진행되었다. 윤순진 원장은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학위 수여기를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졸업생들을 향한 큰 박수가 이어졌다. 뒤이어 뛰어난 논문을 작성한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우수논문상, <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 <조경역사연구 논문상> 시상을 하며 상장 수여식을 마쳤다. 윤순진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그는 “이제 우리는 한국은 물론 세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말을 더했다. 전의찬 총동창회장의 축사를 끝으로 1부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김세훈 학생부원장 사회



윤순진 원장 축사



박인권 교수



백양현 학생회장



전의찬 총동창회장

2부 행사는 자리를 옮겨 환경대학원 2층 P&C홀에서 진행되었다. 학위수여자들이 차례로 입장하고,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졸업생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악수를 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백양현 환경대학원 학생회장의 송사가 있었는데, 그는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며 재학생을 대표하여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전했다. 졸업생 대표인 협동과정 조경학 김영은 박사의 답사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은 환경대학원에서의 마무리와 희망찬 새출발을 암시하며 학사모를 던졌다. 현장은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학위수여식 행사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졸업생들과 친지들은 환경대학원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을 이어갔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환경대학원은 17명의 박사와 41명의 석사를 배출하였다(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석사 24명, 도시계획학 박사 7명, 이학박사 2명, 환경설계학과 조경학 석사 17명, 협동과정 조경학 공학박사 8명).



1.3

홍종호 교수 교육상 수상 기념 특별 강연식



10월 16일, 환경대학원 글로벌홀 및 옥상정원에서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전공 홍종호 교수의 학술연구 교육상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대학교는 대학교육 발전을 견인하고, 우수 교수법 확산 및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 개발 및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매년 학술연구교육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환경대학원의 홍종호 교수가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다.

학교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계획학과 홍종호 교수는 <비용편익분석>과 영어강좌인 <기후 및 환경경제학>을 담당하며 경제학자로 기후변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경제의 이해>, <융합주제강좌: 기후위기와 인류>, <베리타스 강좌 1: 기후위기와 인류> 등 학부생 강의를 담당하며 '선토론 후강의' 기법과 협업적 팀칭 교수법을 적극 적용하여 학생의 수업참여 유도과 강의 이해도 제고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린리더십' 프로그램에 출범 초기부터 참여하고 다수의 외국 유학생을 지도하며,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에 헌신하는 등 서울대 교육의 사회공헌과 국제화에도 공헌하였다.



홍종호 교수님과 LSEP 제자들

이날 행사에서는 보도자료에 담기지 못한 홍종호 교수가 대학과 대학 밖의 사회교육에 열정을 쏟은 내용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윤순진 원장, 이준구 명예교수, 이찬희 박사가 대표로 축하를 전했으며, 홍종호 교수의 특별강연 『30년 교육의 길: 한 경제학도의 삶의 여정』과 간단한 수상소감을 나누었다. 이어서 자리를 옮겨 환경대학원 옥상에 마련한 가든파티를 즐겼다. 환경대학원 구성원들은 교육상 수상 소식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의 행보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홍종호 교수님 상패 전달



강연회 단체 사진

홍종호 교수 교육상 수상 기념 특별강연식 축사

먼저 올해 서울대학교 (교육부문)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신 홍종호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교육 발전을 견인하고 우수 교수법 확산과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 개발,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해서 2005년부터 매년 학술연구교육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 분의 교수님들이 교육부문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셨는데 홍 교수님께서 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계획학과 홍종호 교수는 <비용편익분석>과 영어강좌인 <기후 및 환경경제학>을 담당하며 경제학자로 기후변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경제의 이해>, <융합주제강좌: 기후위기와 인류>, <베리타스 강좌 1: 기후위기와 인류> 등 학부생 강의를 담당하며 ‘선토론 후강의’ 기법과 협업적 팀티칭 교수법을 적극 적용하여 학생의 수업 참여 유도과 강의 이해도 제고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린리더십’ 프로그램에 출범 초기부터 참여하고 다수의 외국 유학생을 지도하며,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에 헌신하는 등 서울대 교육의 사회공헌과 국제화에도 공헌하였다.”라고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부의 시상 이유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홍 교수님께서 해오신 교육 활동은 이 간단한 한 문단에 다 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홍 교수님은 1996년 한양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었고 이후 2009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으로 옮겨 오셨습니다. 한양대에서 13년, 서울대에서 15년, 총 28년간 학생들을 지도해오셨습니다. 제가 같은 전공 교수로서 많이 들었던 말씀은 본인은 가르치는 걸 천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란 것이지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일을 하셔도 더 잘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실 때 참 행복해하신다는 걸 동료교수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 교직 생활에 오래 계셨지만 타성에 젖지 않고 새로운 교육법을 익히고 실험하기에 주저함이 없어 보입니다. 플립러닝, 우리 말로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자들을 수동적인 학습자로 머무르게 하지 않

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전환하고, 아니 학습자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꺼내주신 거지요. 그리고 보도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기초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합주제 강좌와 베리타스 강좌인 기후변화와 인류란 과목을 개발해서 학부생들에게도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대학원 소속이지만 학부 교육에 늘 관심을 가지셔서 지속가능발전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교과목 개발과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대학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회과학 전공자들을 위해 1억을 쾌척하셔서 올해 2월부터 1년에 한 번 우수 박사논문 1편과 우수 석사논문 2편을 선정해서 홍종호 기후변화 사회과학 논문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이란 단행본을 발간하시고 매일경제에서 시상하는 경제경영도서부문 정진기언론문화상을 수상하시면서 받으신 상금과 1년 동안 기후위기와 경제 관련 강의를 하시면서 받으신 강의를 모아서 기부하신 것입니다. 후학을 아끼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문 발전을 위해 기꺼이 본인의 수고로 얻으신 금액을 내놓으신 거지요. 아마도 홍종호 교수님의 이런 진심과 응원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더 탁월한 사회과학 연구가 우리 환경대학원에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으신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미식축구팀인 그린 테러스 지도교수를 맡아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신 것입니다. NFL 18-19시즌 국내 실황중계 해설위원으로 활동했을 만큼 워낙 미식축구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데 학내 미식축구부 지도교수로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회식을 위해 경비까지 지원해주셨지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 미식축구부 그린 테러스가 지난해 12월 전국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전국 1위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교육이란 활동이 지식을 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홍 교수님은 그 누구보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 교육자, 홍종호 교수님은 대학의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교육에도 부단히 나서고 계십니다. 서울대학생들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식 나눔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는 CBS 유튜브에서 “기후로운 경제생활”이란 프로그램으로 더 적극적인 사회교육에 나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수님의 교육 활동은 쪽 이어질 거라 생각하며 환경대학원 구성원들은 교수님의 이런 여러 활동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환경대학원에 계셔서 자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교육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4 모교방문의 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2024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2024년 10월 26일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2024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동문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1부(사전 행사)와 2부(본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각 전공별로 선후배 간담회, 토크쇼, 좌담회 및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 환경관리, 조경 및 도시설계학 전공별로 선후배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모교방문의 날 1부 사전행사 - 전공별 모임

시간	행사내용	전공	장소
14:30 - 15:50	전공 선 후 배 간 담 회 교육 : 신혜란 동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교육 : 박세훈 동문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교육 : 장경석 동문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원) 교육 : 신지혜 동문 (에스티에스개발 상무)	도시 및 지역계획	114호
	졸업생과 재학생간 토크쇼 '자율주행과 자율협력주행'	교통	402호
	커리어데이 이벤트	환경관리	115호
	좌담회 및 정기총회	조경 및 도시설계	405호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ESG 전문가과정 좌담회	SGS, ESG	205호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간담회에서는 교육, 연구, 기업 세 분야로 나누어 총 네 명의 동문(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신혜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박세훈,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원 장경석, 에스티에스개발 상무 신지혜)이 초청되어 선후배 간 소통의 장을 열었다.

교통학 전공에서는 <자율주행과 자율협력주행>이라는 주제로 동문 토크쇼가 열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문병섭 박사, 한국도로공사의 백승걸 박사, 한국교통연구원의 강경표 박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각자 수행 중인 관련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후 Q&A 시간과 네트워킹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을 듣고 고민을 나누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환경관리 전공에서는 <커리어데이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 선배 15명과 재학생 15명이 참석하여 열린 포스터 발표와 논의를 이어갔다. 동문들은 환경 빅데이터 분석부터 에너지 하베스팅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다. 정의상(하이드로코어 유역환경연구소)은 GIS 기반 환경 빅데이터 분석과 유역 모델 개발을 통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승지(LH 토지주택연구원)은 LH 기후변화센터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 업무와 정주지 온실가스 배출 동향을 소개하였다. 송동하(스마클)은 사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과 자가발전 운동기구, 이끼제습기 같은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을 설명했다. 이종희(국회)는 정책 입안 과정과 국회 내 환경 관련 업무를 소개했으며, 이외에도 이민영(환경컨설팅), 이승한(전주시정연구원), 이성재(한국전력경영연구원)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업무 역량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며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하였다.

이번 커리어데이 이벤트는 동문들이 연구와 실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여, 재학생들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재학생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님들의 발표를 통해 환경 분야의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설계학과에서는 <좌담회 및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진행된 동창회 사업 보고와 운영진 및 이사회 재편, 회계 결산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교수진과의 간담회에서는 학과 내 주요 이슈, 차기 동창회 구성, 내후년 사업 계획에 따른 동창회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학과 발전과 동창회의 모교 기여 방안, 학교와 동문 회사 간의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실무 능력 함양 방안, 인턴십 연계와 취업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본행사는 윤순진 환경대학원장의 환영사와 전의찬 동창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윤순진 환경대학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과 실천이 빚어내는 결과인 만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의 환경대학원의 미래를 환경대학원 교수나 학생들만이 아니라 동창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석사 89학번, 박사 91학번)은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길”을 주제로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모교방문의 날 2부 본행사

시간	행사내용	전공	장소
16:00 - 16:30	개회사 및 환영사	전의찬 동창회장 윤순진 대학원장	Glocal Hall 306호
16:30 - 16:45	전공별 동창회 및 전·현직 교수 소개	사회자	
16:45 - 17:20	초청 특강 :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17:20 - 17:40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	전의찬 동창회장	
17:40 - 18:10	축하공연	기후행동합창단	
18:10 - 18:30	휴식 및 만찬 준비	사회자	
18:30 - 19:00	명예교수 말씀 및 건배 제의	명예교수님	
20:00	폐회 선언	전의찬 동창회장	



윤순진 원장 축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관리 전공 석사 84학번 장원 동문이 환경대학원의 명예를 빛낸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후 기후행동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행사장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2024 환경대학원 모교방문의날

일시 2024년 10월 26일 (토) 14:00 장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자랑스러운 환경대학원 동문상'을 수상한 장원 동문



기후행동합창단의 축하공연

만찬 자리에서는 명예교수들의 건배 제의와 함께 동문과 재학생들이 화합하며 환경대학원의 미래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탄소중립 도시·환경 기금 '100년의 희망, 100억' 캠페인"을 통해 환경대학원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모교방문의 날"은 동문과 재학생들이 함께 모교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교육과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동문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 전공별 소식



2.1 환경계획학과

1)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Housing Lab _이효중 교수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서문규(박사과정), 이효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 ICAPPS(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Pacific Planning Societies)에 참가하여 "Impact of Reconstruction Project Migration on Nearby Rental Prices"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가락 시영아파트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가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동 단위 분기별 전출입 데이터와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주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한 분기별 이주자 수와 재건축 이전 인근 주민들의 이주 패턴을 바탕으로 발틱 도구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도착지 행정동 가수 대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주 가구수의 유입 비율이 1%p 증가할 때, 도착 행정동의 전세 중위가격이 약 14.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건축 프로젝트가 인근 지역의 저렴한 주택 공급과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이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국내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서문규(박사과정), 이효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참가하여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주가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가락 시영아파트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가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착지 행정동 가구수의 1%에 해당하는 이주가가 유입되면 전세가격(매매가격)의 평균값은 약 15.2%(13.9%), 중앙값은 약 15.4%(13.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건축 프로젝트가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주민과 도착지 대상 지역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며,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주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적,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예은(석사과정), 이효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 주택학회에 참가하여 "서울시 이주민 주거 분리 변화 분석: 밀집거주지와 상이지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민을 유형별로 구분해 서울시 내 밀집 거주지의 분화 혹은 수렴 정도와 상이지수를 통한 고립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나 내국인 배우자와 결혼경험이 있는 결혼이주민은 2016년 대비 2022년 밀집 거주지가 고르게 분산되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 동포는 특정지역에 더 밀집거주하

고 고립 정도도 높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주민의 특성, 특히 한국 국적과의 밀접한 관계를 중심으로 거주 분리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며, 각 특성별로 맞춤형 주거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수상 내용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서문규(박사과정)는 2024 ICAPPS(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Pacific Planning Societies)에서 "Impact of Reconstruction Project Migration on Nearby Rental Prices"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건축 프로젝트가 인근 지역의 저렴한 주택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예은(석사과정)은 2024 주택학회에서 "서울시 이주민 주거 분리 변화 분석: 밀집거주지와 상이지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유형별 주거분리 정도를 밀집 거주지 분화와 상이지수를 통해 분석했으며,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서문규(박사과정)는 2024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주가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건축 프로젝트가 인근 지역의 저렴한 주택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따로 분석했으며,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서문규(박사과정), 김예은(석사과정)은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이웃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주거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근린 주거 환경 요인 중 특히 보행성이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밝혔으며, 해당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SnS 지속가능 스마트도시 연구실 _송재민 교수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한나(박사과정)는 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2024에서 'Relationship between Flood Damage and Flood Vulnerability Focusing on Property Damage and Human Casualties'라는 주제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침수피해의 양상을 피해액과 인명피해로 구분하여 피해양상의 차이를 밝히고, 침수취약성 요인이 피해액과 인명피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기계학습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침수취약성 평가 및 방재대응 정책에서 침수피해 지표로 기존의 피해액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구분하여 고려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 국내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강민경(석사과정),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한나(박사과정), 송재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주관한 2024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축소 특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전국의 77개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의 공간적 변화를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9개의 다양한 공간축소 유형이 분류되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분포와 공간적 특징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수진(박사수료), 송재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1월 8일-9일 '다중 스케일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 부문 탄소배출량 관계 연구'이라는 제목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산학술대회에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스케일을 고려하여 공간회귀모형을 기반으로 도시공간구조 특성과 교통 부문 탄소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보행권, 통근권으로 고려하여 공간적 규모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특성이 영향 차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수진(박사수료), 송재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1월 국내 학술지 「국토계획」 59권 제6호에 '건물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형태의 공간 영향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건물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형태 특성별 공간적 영향 범위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방법을 통해 건물에너지 소비와 건물 주변 도시형태 특성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실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도시형태 특성별로 최적의 공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물 특성뿐 아니라 도시형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건물에너지 소비 증가 완화를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수상 내용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강민경(석사과정),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한나(박사과정), 송재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축소 특징에 관한 연구' 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강민경(석사과정), 유재윤, 도시환경설계 전공 조윤아(석사과정)은 COMPAS(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한 2024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아산시 분석과제를 통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한나(박사과정), 송재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Pacific Planning Societies(ICAPPS)에서 'The heterogeneous effects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commuting and migration by distance'으로 YUPN Best Presentation Awards를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수도권 통근과 이주, 거리 특성으로 od pair를 유형화하고 통근과 이주 간 상호영향관계를 고려하여 두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리에 따라 통근과 이주 간 영향관계가 다름을 확인하였고, 통근에 미치는 거리의 영향도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에 따라 지역특성이 두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름을 밝혔다. 해당 연구를 통해 지역 간 통근과 이주, 거리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과 감각 연구실 _정현주 교수

▶ 연구실 행사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제 142차 콜로키움



여성주의 도시계획 사례

강연자: 최정선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회: 정현주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24. 11. 5. (화) 19:00 - 22:0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306호
 교내 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BK21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에서는 2024년 11월 5일 오후 7시부터 환경대학원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최정선 박사로, “여성주의 도시계획 사례”라는 제목으로 1시간 30분 강연 후 1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정선 박사는 국내 여성친화도시 설계 컨설턴트로서,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항목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흔히 CPTED나 Barrier Free 설계기법이 적용되면 여성친화도시의 기준이 충족된다고 여겨지지만, 유모차를 끌고다니고, 수유를 하는 등의 육아하는 여성을 위한 도시 공간이 더욱 필요하고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양육 친화적이지 않은 도시에서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여성이 어떠한 불편을 겪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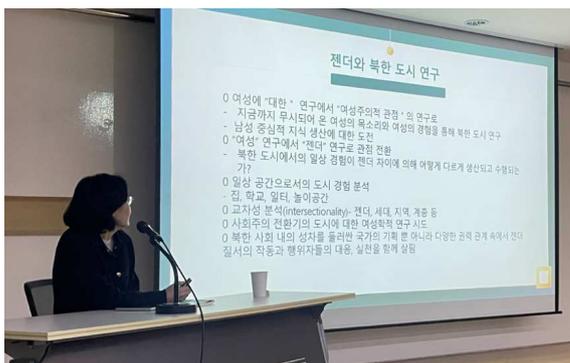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제 150차 콜로키움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들의 공간경험과 이동성

강연자: 최은영 박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사회: 정현주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2024. 11. 26 (화) 19:00 - 22:0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306호
 교내 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BK21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에서는 2024년 11월 26일 오후 7시부터 환경대학원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최은영 박사로, “김정은 시대 북한 도시 경험과 이동성”이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 30분 강연 후 1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성자료나 신문과 같은 2차 자료와 연구자가 탈북이주민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로 얻은 정보들을 통해 북한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다르게 경험하는 도시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 지,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휘정(박사과정), 정현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8월 23일 개최된 'ICAPPS(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 Pacific Planning Societies)' 라는 국제학술대회에서 "Socioeconomic and Geographical Analysis of Low Fertility in Korea" 제목의 연구를 구두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인구 성장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합계출산율과 주택가격 및 주택노후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국내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휘정(박사과정)은 11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환경학술포럼'라는 국내학술대회에서 "지역의 주거 및 고용 환경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구두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의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해당 연구는 우수 논문 발표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정민(석사과정), 정현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11월 15일 열린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플랫폼 어바니즘과 대도시규범성의 새로운 지형: 남성 동성애자는 어디에 사는가?'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데이팅 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플랫폼 어바니즘과 대도시규범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담고 있다. 연구 결과, 고향이나 소도시에서는 아웃팅 우려로 앱 사용을 꺼리는 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대적 익명성으로 인해 더 자유롭게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소수자들이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대도시규범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일부는 고향에 머무르거나 돌아가는 현상 또한 관찰되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플랫폼 어바니즘과 대도시 규범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지형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정민(석사과정)은 12월 14일 열린 한국도시지리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광장 너머 정동정치의 가능성을 바라보기: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도시 전유와 공간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공간 변화를 통해 도시 공간의 전유와 정동정치의 가능성을 담고있다. 2023년 서울광장에서 을지로로 장소가 이전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들의 정동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정동 정치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좌절로부터 촉발된 정동이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수상 내용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휘정(박사과정)은 2024년 8월 27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증서"를 수상하였다.

도시 및 지역경제 연구실 _이영성 교수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현무(박사수료),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8월 4-7일 대구에서 열린 The 28th Pacific Conference of the RSAI(PRSCO)에서 'Is Digital Economy more Productive than Other Industries: by Analyz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Rate'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그 외 산업에 비해 높았으나 이는 대부분 전자부품 제조업의 영향이었고, 정보통신업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정보통신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혜수(박사수료),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1월 5-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17th Asian Planning School Association(APSA) Congress에서 '지역 산업 구조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비수도권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대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시한다.

3.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안승연(박사수료),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1월 5-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17th Asian Planning School Association(APSA) Congress에서 'Korea Economy is Slowing Down by Aging?'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내용은 한국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으로 1인당 자본결합도,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1인당 노동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도 노동생산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그 개선의 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연구를 통해 인구고령화가 교육수준, 기술발전, 생활수준의 향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신상규(박사수료),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7권 제2호(6월)에 'Industrial Composi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Entrepreneurial Clusters in Seoul Metropolitan Area'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서울대도시권 내 기업가 집적지들의 산업구성과 공간분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서울대도시권 내 14개의 기업가 집적지를 확인하였고, 도심에 인접한 집적지일수록 산업 다양성과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이 높으며, 정책이 교외 집적지의 산업 전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가 집적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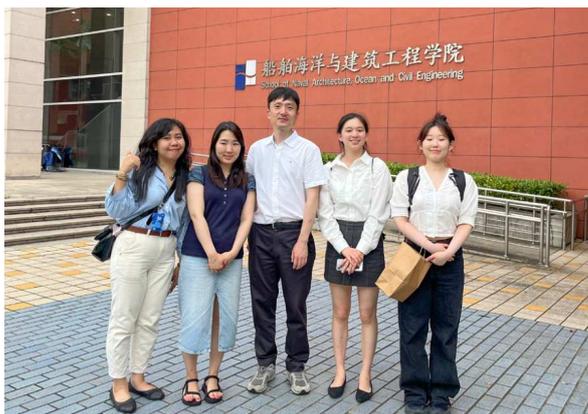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엄영근(박사수료), 박병훈, 이다연, 이주원(이상 환경계획학 석사), 김인환 박사(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제10권 제2호(8월)에 'ESG와 SDGs를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평가 - 코펜하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성의 평가-목표 지표인 ESG와 SDGs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도시 방향을 시사하였다. 성공적인 탄소중립도시로 평가 받은 코펜하겐과 제주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고, 분석결과 두 도시 모두 기술과 에너지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제주도는 제도과 리빙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차별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시민참여를 정립하는 데 있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엄영근(박사수료), 김민경 박사(서울연구원)는 에너지공학 제33권 제3호(9월)에 '도시계획시설 제로에너지화 가능성 분석 - 서울시 공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원 내 신재생에너지의 잠재에너지 발전량을 수치적으로 도출하였고, 분석결과 서울시 공원은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통해 109%의 에너지자립률을 보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건축물 외 도시계획시설의 제로에너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탄소중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장 계획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도시에너지 연구실 _Quan, Steven Jige 교수

▶ 연구실 행사

- 2024년 7월 1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교통대학교와 함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래 솔루션 국제 워크숍"을 개최해 이도윤(석사 연구생), 문연준(석사과정), Soudavanh Chanthalonnavong(석사과정), 이서정(석사과정)이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이도윤 학생이 진행을 맡았다.



Introduction	
Workshop	International Workshop of Future Solutions for Sustainability
Organizer	Center for ITS and UAV Application; Research at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SJTU) City Energy Lab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Location	A208 Mulan Building, School of Ocean and Civil Engineering, 800 Dongchuan Road, Shanghai
Date	2024-07-01

Schedule	
Time	Event
09:30-09:35	Opening remarks. Dr. He Hongdi,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Section I: Host (Jin Mengyi)	
09:35-09:50	Understanding spatio-temporal urban neighborhoods socioeconomic trajectories using self-organizing maps and k-means clustering algorithm: A case study in Metropolitan Seoul, 2000 to 2020. Doj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09:50-10:05	The Impact of Dynamic Traffic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on Green Infrastructure Performance to Improve Local Air Quality. Jin Mengyi,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10:05-10:20	Identifying Urban Block Typology In Seoul Using Improved KMeans Clustering Method. Yeonjoon M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0:20-10:35	Mobile monitoring- and deep learning-based high-resolution prediction of urban PM _{2.5} concentration. Wang Yizhou,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Section II: Host (Dojun Lee)	
10:35-10:50	Machine Learning Driven Local Climate Zone Mapping: Leveraging Reference City Data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Developing Areas. Soudavanh Chanthalonnav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50-11:05	Assessment of Eco-driving Strategies for Hybrid Vehicles through 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s. Li Bowen,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11:05-11:20	An Innovative GPT-Assisted Web Platform for Elevated Usability and Enriched Participation in Planning Support. Seoj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11:20-11:35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Energy Consumption of Electric Vehicles: Statistical, Predictive, and Causal Perspectives. Huang Haichao, Shanghai Jiao

- Jige Quan 교수는 2024년 7월 2일 중국 상하이 동제 대학교에서 개최된 AI for Cities Workshop에 참가하여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gn with AI: Emerging Trends and Opportunitie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Jige Quan 교수는 2024년 7월 3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nning Frontiers for urban sustainability 컨퍼런스에서 강연하였다.



- 2024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8회 국제 중국 계획 협회 (IACP) 컨퍼런스를 참여하였다.



- Steven Jige Quan 교수는 2024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Resilient City Committee of the China Urban Science Research Association 연례 회의 및 도시 지속 가능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강연하였다.



- Steven Jige Quan 교수는 2024년 7월 11일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열린 복지 지리학 및 사회 발전 교류 세미나에서 “AI-Aided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gn: Emerging Trends and Opportunitie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Steven Jige Quan 교수는 2024년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글로벌 도시 거버넌스 및 정책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AI-Aided and Data-Driven Design (AIDD)을 활용한 참여형 도시 설계 계산에 관한 통찰을 공유하였다.

- Steven Jige Quan 교수는 2024년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5회 국제 사회 컴퓨팅 컨퍼런스 (ICSC)에서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gn with AI: Emerging Trends and Opportunitie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4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국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도시설계학회(UDIK)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연준(석사과정), Soudavanh Chanthalounnavong(석사과정), 홍훈석(석사과정), 이서정(석사과정), Lin Lili(석사과정)이 연구를 발표하였다.



- Steven Jige Quan 교수는 2024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ACSP 2024 연례 컨퍼런스에서 “Urban Texture and Heat Resilience – Mitigating Extreme Heat in Seoul”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24년 11월 18일 오후 5시부터 환경대학원 114호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북경대학교 교수 Longfeng Wu씨로, “Exploring Socio-Economic Outcomes of Urban Renewal through Quasi-Experiments”라는 제목으로 1시간 반 가량 강연했다. 강연은 도시 재생과 사회경제적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사의 연구 방법론인 준실험적 접근을 활용한 두 가지 사례 연구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베이징의 공원 녹지화가 인근 커뮤니티에 미친 젠트리피케이션 효과를 분석한 연구였고, 두 번째 사례는 상하이에서 COVID-19 방역 완화 후 공원 접근성이 어떻게 주민들의 이용 패턴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강연 중, 이러한 연구가 도시 계획 및 공공 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강연이 끝난 후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공간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연구의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과 결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20분 동안 이루어졌다.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제146차 콜로키움

Exploring Socio-Economic Outcomes of Urban Renewal through Quasi-Experiments

강연자: Dr. Longfeng Wu
 소속: Peking University
 사회: Dr. Jige Quan (City Energy Lab)

2024.11.18 (월) 17:00 - 18:3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13호
 * zoom ID: 864 0912 7412 <https://snu-ac-kr.zoom.us/j/86409127412>

- Steven Jige Quan 교수는 2024년 11월 22일 “2024-2 도시 및 환경 정책 세미나” 수업에서 서울로와 세운지구에 대한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업 및 연구실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 2024년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대학원 113호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칭화대학교 교수 Yuan Lai씨로, “Urban Intelligence Towards Techno-Humanistic City Planning”라는 제목으로 1시간 반 가량 강연했다. 강연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도시 계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그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도시 계획의 융합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



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접근법을 소개했다. AI를 활용한 연구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 데이터 품질 및 윤리적 고려 사항, 그리고 기술과 인간 중심 도시 계획 간 균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연사는 AI 기술이 도시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기술과 인간 중심 접근법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설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City Energy Lab
AI-Aided and Data-Driven Design (AIDD) Lecture Series

Urban Intelligence Towards
Techno-Humanistic City Planning

Yuan Lai, PhD
Associate Professor at Tsinghua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Date: Dec 12th (Thursday)
Time: 10:00 am – 11:30 am
Venue: SNU GSES Building 82, Room 113

Short Bio
Prof. Yuan Lai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singhua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His research interest lies at the intersection of urban informatics, urban planning, and smart cities. He is the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for Smart Human Settlements and Spatial Planning & Governance, China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Expert Committee in Digital Twins and Future Cities, Chinese Society for Urban Studies (CSUS). Before Tsinghua, Dr. Lai was a Lecturer in Urban Science and Planning at MIT Department of Urban Studies and Planning and a research affiliate at NYU Marron Institute of Urban Management and NYU Urban Intelligence Lab. His work has been featured at the United Nations, Bloomberg Technology, Urban Design Forum, NYC Media Lab,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and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Meeting ID: 872 0786 3333
<https://snu-ac-kr.zoom.us/j/87207863333>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내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문연준(석사과정), JigeQuan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0월 12일 한국도시설계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 에서 "Identifying urban block typology of residential areas in Seoul using clustering method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의 블록 형태에 관한 연구로,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 서울 블록을 유형화하고, 타이폴로지를 제안한다. 결과 해석이 모호한 기존 클러스터링 방법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planning knowledge를 적용한 개선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의미있는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추후 도시 블록의 용도지정이나 사용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수다반(석사과정), JigeQuan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0월 12일 한국도시설계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Machine Learning – Driven Local Climate Zone Mapping: Leveraging Reference City Data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Developing Areas"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 가용성이 제한된 개발도상 도시지역에서의 로컬 기후 존(LCZ) 매핑에 관한 것으로, 방콕의 비엔티안 도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Gradient Boosting decision tree(GBDT) 모델은 LCZ 매핑에 효과적임을 시사하며,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지식 및 기술 격차를 줄이고 도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서정(석사과정), JigeQuan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0월 12일 한국도시설계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An Innovative GPT-Assisted Web Planning Support System Plat-

form”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는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도시 설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을 제안한다. 웹 플랫폼을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해당 웹 플랫폼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Lin Lili(석사과정)는 2024년 10월 12일 한국도시설계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Neurotopia-Decentralized future urban design based on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neuron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Hanyang의 애니메이션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메타버스를 조성하는 연구이다. 신경 생물학적 특성 이론과 복잡한 시스템 적응을 바탕으로 해당 site를 활성화하고 분산된 미래 커뮤니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상 내용

2024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국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도시설계학회(UDIK)추계학술대회에서 **Soudavanh Chanthalounnavong(석사과정)**과 **이서정(석사과정)**이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비판적 도시 연구실 _오도영 교수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내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신혁(박사과정), 오도영 교수(환경계획학과)는 11월 15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 공간환경학회 2024 추계 학술대회에서 “강남개발의 포스트콜로니얼 도시성과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강남개발과 대형교회의 초고속 성장 사례를 도시 비공식성 이론을 활용하여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발전주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한국적 도시개발에 대한 이해를 포스트콜로니얼 도시성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송윤지(석사과정), 오도영 교수(환경계획학과)는 11월 15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 공간환경학회 2024 추계 학술대회에서 “도시 비공식성과 발전국가: 난지도의 변화 과정을 사례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공원으로 변화한 난지도를 발전국가와 도시 비공식성 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엘리트 행위자 중심으로 논의된 발전국가를 재해석할 계기를 마련하고, 담론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용적 계획정책 연구실 _박인권 교수

▶ 연구실 행사

- 박인권 교수는 2024년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환경대학원 학생들을 인솔하여 인천시 강화군과 지역 기반 조직인 협동조합 청풍 등 답사를 시행하였다.
 - 주제: 인천시 강화군 지역사회 답사
 - 장소: 강화도 협동조합 청풍 (강화읍 강화대로368번길 6)
 - 일시: 2024년 8월 30일 ~ 2024년 8월 31일
 - 참석자수: 24명 (박인권 교수, 학생 23명)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희완(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The 28th Pacific Conference of the RSAI (PRSCO)에서 'Assessing the Impact of Marketplace-Neighborhood Regeneration Policy: Using Synthetic DID'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저층 주거지와 연계한 전통시장 재생 정책이 전통 시장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합성이중차분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 이후 상권 내 유동인구와 점포 당 매출액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형준(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The 28th Pacific Conference of the RSAI (PRSCO)에서 'Super-resolution Observation of Social Networks: Real-time Population Analysis of the Third Place Activiti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스케일링 이론에 따라 인구가 증가할 때 대면 상호작용이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은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서울시나 광역시 위계로 보는 경우 스케일링 계수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가연(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The 28th Pacific Conference of the RSAI (PRSCO)에서 'Urban Shrinkage and Population Decline Response in South Kore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Governance Dynamic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Uiseong County'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대구시와 의성군의 도시축소 대응을 1)인구감소, 2) 중앙정부, 3) 균형발전의 세 가지 토픽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두 지자체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성장 지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둘째, 두 지자체 모두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책에 크게 영향받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지자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도시 축소 대응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정민(박사수료),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PRSCO에서 'The Impact of Transit Mall on Local Revitalization: A Synthetic Control Method Approach'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의 중단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중단시점인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동인구와 점포당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정책 중단 이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인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의 중단이 상권 회복과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해당 연구는 보행친화적 도시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정규리(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PRSCO에서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Park Scale and Commercial District After COVID-19: Focusing on Sales of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서울시 상권 활성화에 미친 도시공원의 규모별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9년과 2024년의 상권매출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1만~3만 m2 규모의 근린공원이 주변 상권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통해 감염병 시대 이후 중요해진 도시공원과 상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정하림(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The 28th Pacific Conference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PRSCO) 학술대회에서 'Multidimensional Poverty of Youth an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Poverty: A Case Study of Youth in Seoul'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차원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빈곤에 사회신뢰와 사회적 관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 청년 그룹 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어 청년의 연령별 세부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하나은(석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The 28th Pacific Conference of the RSAI(PRSCO) 국제학회에서 'Relationship between Urban Environment and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Crime: A case of Chicago, US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시카고 도시의 범죄 시공간적 분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대응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시공간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범죄 발생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범죄의 시간대별 및 지역별 분포 차이를 규명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시간대별로 다른 범죄 패턴이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자본, 인종 분포, 물리적 인프라가 이러한 패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과 지역 사회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사회적 결속력 강화 및 고용 기회 제공과 같은 맞춤형 정책 제안을 통해 범죄 예방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안현(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1월 14일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제7회 북미지역학회(North American Meet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 NARSC) 학술대회에서 "A Study on Disparities in Access to Public Amenities

Based on the Spatial Analysis of Population Groups Using Grid Data”라는 제목으로 연구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격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집단별 공공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인구 특성이 공간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적 집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지역유형별로 공공시설 접근거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층과 노년층과 같은 특정 집단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불평등 해소, 시설 입지 최적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정하림(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The 71st North American Meet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NARSC) 학회에서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of Youth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다차원빈곤, 삶의 질의 영향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빈곤이 높을 수록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자본과 다차원 빈곤의 영향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희완(박사과정), 이정민(박사수료),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ACSP 2024 Annual Conference에서 ‘Impact of Silver Zones on Elderly Walkability and Commercial Vitality: A 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노인 보호구역이 노인 보행 안전과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합성이중차분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보호구역 정책이 시행된 전통시장에서 보행 사고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보행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상권 내 유동인구와 매출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서형주(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지난 11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ACSP(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학술대회에서 ‘Social Place Usage Patterns and Social Capital Formation Among Older Adults: Variations by Network Types and Mobility Capability’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의 수도권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사회적 장소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동기와 특성을 분석하며, 심층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통해 사회적 장소 이용 패턴과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을 탐구한다. 근거이론 분석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장소 이용 패턴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이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의 네트워크 방식과 모빌리티 역량을 고려한 장소 설계가 필요함을 제언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장소가 제공하는 의미와 가치를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 의의를 둔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조유나(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1월 7~9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ACSP) 2024 64th Annual Conference에서 ‘Public Housing’s Ripple Effect : Making Private Rent Affordable in Seoul’ 제목으로 구두 발표를 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연립 다세대의 월세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해당 및 인근 지역의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월세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

2) 국내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가연(박사과정), 정형은(환경대학원)은 2024년 추계 공간환경학회에서 '뒤쳐진 지역(Left-behind places)'의 정동 연구: 지방소멸을 쿼어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탈산업화된 중소도시들과 농촌지역과 같이 경제적으로 '뒤쳐진' 지역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뒤쳐진 지역(Left-behind places)'에 긴 시간 누적된 감정적 고찰의 정동을 쿼어정동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조유나(박사과정), 김지연(석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8월 대한민국 대구에서 개최된 제28회 국제지역과학협회 태평양지구 학술대회에서 'Exploring Factors Relating to the Sense of Homeownership Among Young Residents in Seoul's Public Rental Housing' 제목으로 .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거주자의 연령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주택보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는 청년층의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공공임대 유형의 공급을 통해 그들의 주택보유의식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문지석(박사과정)과 백일순 박사(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2024년 11월 15일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신도시성이란 무엇인가-1기 신도시 계획과 거주민의 집단적 지향성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신도시계획에 대한 공간사회학적 접근의 연장선상에서 1기 신도시 중 분당과 일산을 사례로 개발과정 전후로 나타난 한국적 '신도시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당시 도시성의 변화로부터 발현된 일산과 분당의 도시계획적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일시적으로 한 곳에 모일 때 발생하게 되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집단적 가치관의 이전 효과'라는 가설로 제시하였으며, 집단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자연발생적 도시와는 달리 신도시는 사회경제적 집단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독특한 도시성을 만들어냄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 신도시성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세대에도 영향을 미쳐, 도시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도시를 통한 계급적 상향 이동이라는 목표 등을 전달하고 지속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정예진(석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형평성 연구: 경기도 동별 도서관 이용 접근성 격차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의 거실로 불리며 지역 커뮤니티 역할로 확장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지역 간 이용 접근성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중력 포텐셜 모형을 활용하여 도서관 규모와 인구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성을 측정하였으며, LISA 분석을 통해 접근성의 공간적 군집 패턴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화 수준이 반드시 도서관 서비스의 양호한 접근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공서비스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승준(석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한국지역학회 후기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지역인구 연령분포 집중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도·농간 차이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

의 구두 발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발표는 도시와 농촌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인구 연령 분포 차이가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도시는 인구 분포가 다양할수록, 농촌은 특정 연령층에 인구가 집중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와 지역 고유 특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상 내용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서형주(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지난 8월에 대구에서 개최된 PRSCO 2024(The 28th Pacific Conference of the RSAI) 학술대회에서 'Urban to Rural Migration Determinants by Life Cycle : Integrating Individu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PRSCO Award for Best Paper by a Young Regional Scientist 2024 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층별 농촌 이주의 개인 및 지역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수준에서 청년층의 농촌 이주 확률은 여성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출생지가 서울이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령층보다 높았다. 이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의 사회적 맥락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고령층은 은퇴 이후의 전원생활을 위한 이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하는 노년'을 위한 이동의 성격도 존재하였다. 고령층은 peri-urbanization 및 displaced-urbanization과 자연 및 경관 환경을 중시하는 anti-urbanization 유형의 이동 특성을 아우르는 반면, 청년층은 창조적 경제 환경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지닌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 확률이 더 높아 anti-urbanization 유형의 이동 특성을 보였다. 이 연구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유발하는 인구, 사회, 경제적 맥락을 거시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성 및 연령대별 차이를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정규리(박사과정)과 이정민(박사과정)은 경북디지털혁신본부와 한국지역학회에서 주최한 경북 지역발전 데이터 시각화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포항시를 대상으로 한 시각화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했으며 버스 노선 및 운행계획 수립, 신규 정류장 설치 등 교통인프라 개선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 논문 게재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최호권(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지역연구 제40권 제3호에 '생애주기별 기회로의 이동이 대졸 청년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 간 다양한 자원의 격차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청년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 이동을 통해 임금 소득이 가장 크게 향상되는 시기는 대학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 시점의 기회로의 이동은 이후 이어지는 중심부에서의 삶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가 개인의 삶의 결과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소득불평등의 재생산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교통학 전공

교통계획 연구실 _장수는 교수

▶ 연구실 행사

1) 제69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2024년 10월 18일(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제69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의 박준환 팀장이 '특별법에 의한 교통사업 추진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진행은 서울대학교 교통학 전공의 장수는 교수가 맡았다. 발표에서는 교통 관련 법률이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술 혁신에 따라 증가하고 특별법 제정이 빈번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난맥상과 형평성 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특별법 제정의 문제점과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교통 분야 특별법의 실효성과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시사점과 쟁점들을 다루었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교통 분야 법적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교환되었다.

2) 제70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2024년 11월 29일(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13호에서 제70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교통학 전공 장수는 교수가 진행하며,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 백승한 부연구위원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이용수요, 편익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SP 조사를 통해 UAM의 효용함수를 추정하고, UAM 도입 전후의 기종점 간 시간, 거리, 비용을 분석하여 기존 교통수단에서 UAM으로의 전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O/D 기반의 편익 산정 결과를 공유하며, 도입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교통학 전공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박사후 연구원 양옥재 박사(현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조교수),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개최된 European Transport Conference 2024에서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Light Rail Transit on Jobs-Housing Balance by Regional Typology: A Case Study of South Korea’라는 주제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도시 맥락에서 경전철(LRT) 시스템의 도입 이후 직주 균형의 변화를 이중차분법과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의 맥락에 따라 불균형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입증하였다.

교통학 전공 졸업생 유효선(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개

최된 European Transport Conference 2024에서 'Qualitative Assessment of Multifactorial Driving Environments Using Deep Learning-based Image Processing'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AI 기반 이미지 프로세싱과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도로의 주행 환경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시간 및 예산 제약과 평가 결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모두 완화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통학 전공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 정송희(석사과정)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개최된 European Transport Conference 2024에서 'Different Responses to Traffic Information by Vehicle Type: An Experimental Survey'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차량 유형에 따라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리빙랩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사용자 맞춤형 교통정보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국내 학술활동

교통학 전공 정송희(석사과정), 이예영(석사과정),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 대한교통학회 제91회 학술발표회에 참가하여 '교통분석용 북한 도로 네트워크 구축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제한적인 북한 교통체계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간선도로망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GIS DB 구축 및 교통 분석용 네트워크 편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교통학 전공 이건호(석사과정),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 대한교통학회 제91회 학술발표회에 참가하여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환경 요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Docless 방식에 따른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감소를 위해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불법 주차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환경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확충 및 자전거 도로 시설 확충 등 이용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교통학 전공 김수진(박사과정),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 대한교통학회 제91회 학술발표회에 참가하여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한 도시철도 접근수단 선택 요인 연구'에 대하여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전수에 가까운 교통카드 자료와 지역 단위 통계 자료를 결합하여 도시철도 접근수단 선택의 영향 변수를 식별함으로써, 접근교통수단 연구에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론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접근교통수단 구축 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교통학 전공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 정송희(석사과정), 이예영(석사과정)은 2024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북한의 철도·도로 교통체계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하여 북한철도와 도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북한의 간선 교통망을 구성하는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의 공급 특성을 비교하였다.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의 연계성, 접근성, 이동전환성, 회복성의 노드 기반 지표로 평가하여 북한 지역별 네트워크 특성과 취약 구간을 도출하였다.

교통학 전공 신혜영(석사과정),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철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도시철도 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TOD 계획요소 식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서울 도시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TOD 계획요소와 도시철도 이용수요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도시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과 공간구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교통학 전공 심수빈(석사과정),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철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지역 간 철도 수단선택의 핵심 요인 분석'에 대해 발표하였다. XGBoost 분류 모델을 활용하여 수단 선택을 추정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SHAP을 통해 지역 간 통행수단별로 핵심적인 요인을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간 통행에서 수단별로 핵심적인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차내시간, 인구밀도, 가구소득 등의 요인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교통수단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교통학 전공 정송희(석사과정), 이예영(석사과정),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연구재단 등재지인 교통연구 제31권 4호에 '교통분석용 북한 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 도로교통에 관한 기존의 자료를 정리하고, 교통분석에 활용 가능한 북한 도로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쟁점과 대안을 정리하여 구축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이 결과는 향후 북한 도로교통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교통학 전공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 교통학 전공 정송희(석사과정), 이예영(석사과정)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2024년 통일평화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위성영상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북한 도로교통체계 연구"를 주제로 연구과제 성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과제에서는 기존의 공간정보와 북한 원천자료를 활용하여 도로 네트워크의 기초 DB를 구축하였으며,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해 이를 고도화하여 북한의 도로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구축한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 도로망의 구조적 특성과 교통권역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북한 도로교통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남북한 통합 교통망 수립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 수상 내용

교통학 전공 정송희(석사과정),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철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강우에 따른 도시철도 이용수요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는 시공간적 요인과 교통체계 특성에 따라 강우량이 도시철도 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이질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상과 통행행태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기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통학 전공 이예영(석사과정),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철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수도권 도시 및 광역철도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분석'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연구는 수도권 무인 경전철을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활용하여 수도권 도시 및 광역철도 18개 노선의 운영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항목에서 대다수의 무인 경전철이 유의미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어 그룹을 참고하여 투입 요소를 줄이거나 산출 요소를 늘리는 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 및 광역철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진단하고,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속가능·스마트물류 연구실 _허성호 교수

▶ 연구실 행사

1) '[교통물류 라운드테이블] 제2회 도시 내 생활물류의 미래' 개최

2024년 7월 18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교통물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는 도시 내 생활물류의 미래로 학계, 민간, 정부·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허성호 교수는 물류의 미래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및 참석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결과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전제로 다양한 물류 기술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관이 서로 협력해야 물류 운영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문

2024년 10월 4일,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하여 시민을 위한 교통, 안전, 방재, 복지, 환경, 시설, 통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프라와 외부 기관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3) 말라야 대학교와 함께한 공동 세미나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말라야 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공동 세미나 참석을 위해 환경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허성호 교수와 임 저스틴 희준 교수는 서울시 도시 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시가 진행했던 도시 사업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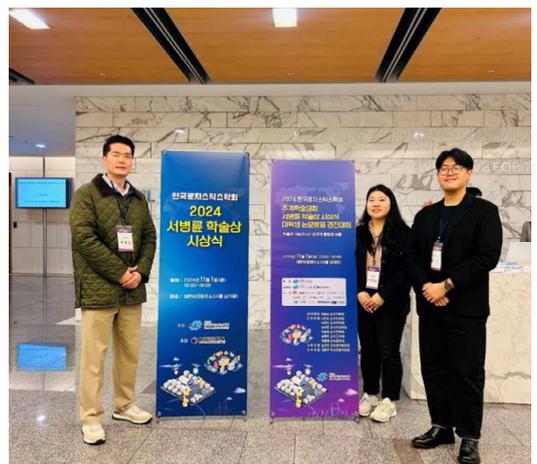
교통학 전공 최병선(박사수료), 허성호 교수(환경계획학과)와 김유정(석사과정), 허성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7월 24일,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ed Urban Planning 2024 (ICIUP 2024) 학회에 참석하였다. 최병선 박사수료는 A STUDY ON THE LOCATION DETERMINANTS OF MICRO FULFILLMENT CENTERS IN URBAN AREAS에 대해 발표하였다. 점차 증가하는 택배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에, 물류 실무자를 대상으로 입지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김유정 석사과정은 EXPLORING FUTURE SCENARIOS OF URBAN LOGISTICS THROUGH QFD METHODOLOGY IN COMPLEX LOGISTICS PLANNING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첨단 물류 기술의 선후관계와 연관성을 반영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2) 국내 학술활동

교통학 전공 최병선(박사수료), 허성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제5권 제2호(6월)에 'AHP 방법론을 이용한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의 입지 결정 요인 연구: 환경 요인을 포함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의 입지 결정 요인을 발굴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경우 인프라 요인의 중요성이 가장 높았고, 환경 요인이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인프라 기반인 물류센터의 일반적인 특성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친환경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환경 요인이 낮게 나타난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물류 현장자들이 다른 요인에 비해 환경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연구를 통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의 입지 결정 요인과 이에 대한 선호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학 전공 최병선(박사수료), 조한나(박사과정), 양훈(박사과정)은 2024년 11월 1일 2024년도 추계 로지스틱스학회에 참석하였다. 최병선 박사수료의 발표 주제는 "슬로우 물류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다. 증가하는 택배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슬로우 물류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로우 물류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피고, 연구 별 공통 분모를 도출하여 다각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다. 또한, 아직 학술적



으로 정의되지 않은 슬로우 물류를 정의하고, 슬로우 물류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조한나 박사과정의 발표 주제는 “교통 인프라의 발전과 물류성과가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다. 교통 인프라의 발전과 물류성과가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도로, 철도, 해운 연결성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와 물류 성과 지표가 CO2 배출량에 미치는 개별적·복합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물류 성과 개선이 CO2 배출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별 특성과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심층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훈 박사과정의 발표 주제는 “Harmony process를 활용한 지하물류시스템의 모델기반 분석”이다. 아직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하물류시스템을 MBSE(Model-Based System Engineering)의 Harmony process를 활용하여 유형화하고 정의하였다. Harmony process의 3단계 절차를 통해 지하물류시스템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지하물류시스템의 기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하물류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유형화하고 정의하였다. 지하물류시스템은 아직 구현된 바가 없어, 적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보다 복잡한 아키텍처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연구는 지하물류시스템의 시작점을 제공하는 연구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 수상 내용

교통학 전공 최병선(박사수료), 허성호 교수(환경계획학과)와 김유정(석사과정), 허성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7월 24일, 25일에 열린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ed Urban Planning 2024 (ICIUP 2024) 학회 발표에서 Best oral presentation 상을 수상하였다.



3) 환경관리학 전공

ACE 연구실 _함유근 교수

▶ 연구실 행사

1) 시기후환경연구실 MT

2024년 8월 21일 시기후환경연구실은 함유근교수님과 구성원 12명이 함께 MT를 다녀왔다. 이번 MT는 연구실 구성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행사 첫날, 구성원들은 숙소 도착하자마자 탁구와 당구를 즐기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고, 저녁에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시원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 준비한 고기를 함께 구워 먹으며 풍성한 바비큐 파티를 즐겼다.

저녁이 깊어지자 불꽃놀이를 진행하며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학업과 연구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다.



2) KCP 심포지엄: 학술 토론과 문화 체험

2024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KCP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연사님들과 뜻깊은 시간을 이어갔다. 10월 16일에는 심포지엄 연사님들과 함께 시와 기후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신 연구 동향과 AI 기술이 기후 변화 대응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자의 연구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학문적 교류를 심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에는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매력을 직접 느끼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이번 KCP 심포지엄과 그 이후의 활동들은 학문적 교류와 문화적 체험이 어우러진 소중한 시간이었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내 학술활동

환경관리학전공 이수빈(박사과정)와 함유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기상학회 2024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Gated Convolution을 활용한 해양 염분 재분석장 생성'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술 중 하나인 Gated Convolution 기법을 활용하여 해양 염분 재분석장을 생성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연구 결과, Gated Convolution 기법이 기존의 모델 대비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염분 재분석장이 해양 환경 연구 및 예측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분석과 같은 다양한 응용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후대기정보시스템 연구실 _우정헌 교수

▶ 연구실 행사

- **우정헌 교수의 기후대기정보시스템 연구실**은 한국연구재단 2024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BP)에 선정되어, 식생-대기 상호작용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Alex Guenther 교수와 함께 '식생-대기 교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통한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Alex Guenther 교수는 식생 배출모델(BEIS, MEGAN)의 주개발자이자 생태계-대기권 모형인 CLM의 개발자로서, 지난 30여년간 미국 대기연구소(NCAR), 북태평양국립연구소(PNNL), UN Irvine 등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우정헌 교수 연구팀을 주축으로, UCI 김세웅 교수, 서울대학교 박록진 교수, NCAR Louisa Emmons 박사 등 국내외 저명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한국형 기후-대기 통합식생모형인 MEGAN/CLM-Korea의 개발 및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식생이 탄소흡수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 2024년 8월 8일 글로벌(동북아) 기후변화-대기오염 원인물질 통합관리 모델링 시스템 개발 연구 (GUIDE-Global/-Local) 3차년도 하계 국내연구진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3년간(1단계) 수행한 GUIDE 통합평가모형 개발 연구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모형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11월 7일에는 상기 통합관리 모델링 시스템의 결과를 공유하는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는 공동연구기관인 오스트리아 국제기구 IIASA연구진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와 국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했다.



- **우정헌 교수의 기후대기정보시스템 연구실**은 2024년 8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정선과 강릉에서 연구실 MT를 진행하였다.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이 함께한 이번 MT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선 화암동굴과 속초 해변 등을 방문하며 연구실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환경관리학 전공 최민영(박사과정), 우정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AGU(American Geophysical Union) Fall Meeting 2024"에서 "Forecasting High Resolution Future CO₂ Emissions in Korea" 를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IIASA의 통합평가모형인 MESSAGEix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한 MESSAGEix-KR 모형을 활용하여 BAU 미래 CO₂ 배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각 부문별로 고해상도화를 수행한 연구이다. 전환 부문은 발전소 단위, 수송 부문은 도로망 단위, 산업 부문은 격자 단위까지 상세화하였다. 또한 **환경관리학 전공 박혜진(석사과정)**은 "Analysis of Future Clean Air in Northeast Asia under Carbon Neutrality using the GUIDE-Global Model"이라는 제목의 연구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해당 연구는 GUIDE-Global 기후-대기 통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것으로, 금번 발표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청정대기 정책에 따른 미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망하고, 대기질 개선도 및 인체피해도를 분석하여, 향후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기후-대기 통합 정책 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 국내 학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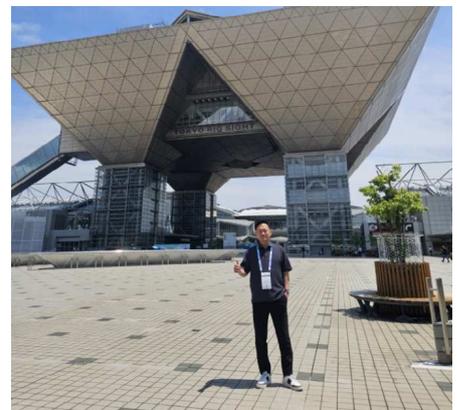
환경관리학 전공 최민영(박사과정), 우정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신화월드에서 열린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한국의 미래 탄소 배출량 공간적 고해상도화(전환, 수송)"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전환 부문과 수송 부문의 미래 배출량 고해상도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전

환 부문의 경우 장래 발전소 설비 및 폐지 국가 계획을, 수송 부문의 경우 장래 교통 수요 및 교통 계획 확충안을 반영하여 각각 발전소 단위와 도로망 단위의 고해상도화 방법론은 제시하였다. 동일 학회에서 **환경관리학 전공 박혜진(석사과정)**은 “GUIDE 통합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대기환경정책 효과 분석 방법론 개선”이라는 제목의 연구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기환경정책 효과의 정량화 방법론을 개선하여 GUIDE 모형에 반영한 것으로, 수도권 실험 결과 NOx 배출량 예측 정확도가 크게 향상됨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국내 대기 환경정책 수립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연구실 _정수종 교수

▶ 연구실 행사

- 정수종 교수는 2024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Japan Energy Summit에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수소와 암모니아 및 탄소포집 분야에 대한 최신 기후테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장동영 박사, 주재원 박사 및 이혁재 박사과정 학생은 2024년 6월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Oil and Gas Methane Workshop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LNG 가스 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측정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해외 석유화학업종 유관 기업 및 기관들의 메탄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과 관련 기술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EDF와 도쿄, 오사카 메탄가스 관측 결과와 모바일 측정 데이터 분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수중 교수**는 2024년 7월 10일 기후테크센터가 주관한 '제1회 서울대-북경대 탄소중립 포럼'에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학적 전략 수립을 위하여 탄소수지, 온실가스 모델링, 온실가스 모니터링, 탄소순환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공유하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올해를 시작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 **기후연구실**은 2024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AOGS) 학술대회에서 Urban Greenhouse Gases Monitoring: Observation, Modeling, and Application과 Phenology and Climate Change 세션을 열어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정수중 교수**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그린소사이어티 세션의 좌장으로서 탄소 감축 및 적응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촉진 및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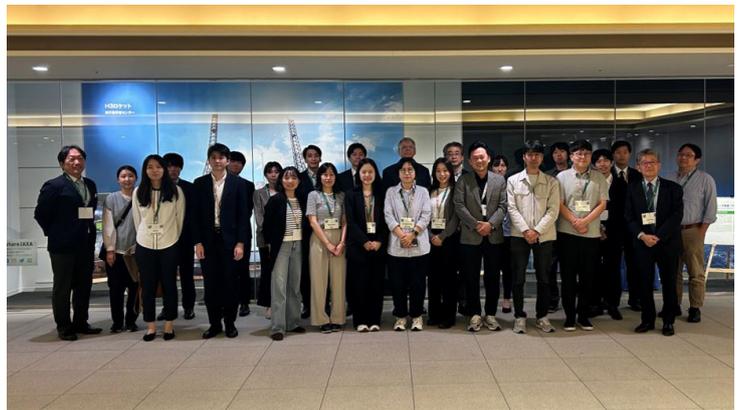
- **기후연구실**은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열린 11th International Carbon Dioxide Conference(ICDC11)에 참석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인버스 모델링, 머신러닝 및 위성자료를 활용한 탄소 흡수량 산정 모델 개발 및 응용 방법 등 탄소순환의 전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해외 연구진들과 함께 협력 및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수종 교수 및 연구원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3일 까지 독일 Mainz에서 개최된 '제1회 한국-독일 기후변화 및 대기질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대기질 지상관측 및 도시숲의 역할, 대기질 위성 관측과 모델링,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측정 및 감시, 대기과 토양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와 대기질에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온실가스와 대기질 관측 및 모델링에 대한 연구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 정수종 교수 및 연구원들은 2024년 10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기후변화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메탄 관측, 글로벌 폐기물 모니터링, 위성 기반 점 배출원 배출량 계산, 관측 기반 서울 도심 CO2 배출량 관측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향후 공동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환경관리학 전공 이장호(석사과정),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11th International Carbon Dioxide Conference(ICDC11)에서 'Assessing the Carbon Absorption Capacity of an Urban Forest through GPP Estimation based on Multi-scale Observations'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남산공원의 탄소 흡수량을 다중적인 관측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시숲 최초로 이산화탄소 플럭스 관측과 SIF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과정 기반 모델을 통해 관측자료로 산정한 탄소 흡수량과 상호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도시숲의 탄소 흡수량 및 환경 요인에 따른 탄소 흡수 능력 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고해상도 지상 관측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국내 학술활동

환경관리학 전공 최근재(박사과정),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CCQM에서 'Urban Carbon Monitoring: the introduction of Seoul Carbon Project'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상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인 서울대학교 기후연구실의 서울 탄소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도권 내 도시 탄소 배출과 탄소의 순환과정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지상 기반의 현장 측정 및 모바일 관측 그리고 위성과 모델을 활용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관측 결과는 도시 탄소순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완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적 의 사결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리학 전공 최근재(박사과정),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대기환경학회 제67회 정기학 술대회에서 'The Methodology for Improving Flux Observation Accuracy in Urban Environments' 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온실가스 플럭스 관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자국 모델링 접근법을 제시하며, 이는 향후 정밀한 환경 모니터링 및 기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리학 전공 최근재(박사과정),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환경분석학회 추계 학술대회 에서 'Quantifying CO₂ Emissions from an Industrial Complex Using Eddy Covariance Flux Meas- urements'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에서 수행된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풋프린트 접근 방식을 통해 산업과 녹지의 영향을 분리하여 정확한 산업 배출량을 추정하고 글로벌 인벤토리와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 인벤토리가 지역 탄소 변동 과정을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범위의 이산화탄소 상세 배출 특성을 반영한 인벤토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환경관리학 전공 이혁재(박사과정),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환경분석학회 추계 학술대회 에서 '온실가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대규모 LNG 발전소 메탄 탈루량 정량화 연구'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에서 비산배출(불완전 연소, 가스관 탈루 등)에 대한 배출원을 추정하여 인근 에서 모바일 측정을 통해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농도에 기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현재 산정되고 있는 가스사용량 기반의 메탄 배출량 인벤토리와의 비교를 통해 통계기반 배출량자료와 관측기반 배출량의 차이를 확인하고, 관측 기반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환경관리학 전공 김동희(박사과정),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도 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 학술 대회에서 '기상 특성을 고려한 머신러닝 기반 매립지 메탄 발생량 추정'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매립지 메탄 발생량 추정 시 현장 측정량과 기상 특성을 반영하여 메탄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기상 인 자를 반영했을 때 메탄 발생량 추정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매립지 메탄 배출량의 추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리학 전공 신재원(박사과정),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환경분석학회 추계 학술대회 에서 'SNUCO2M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시 이산화탄소 농도 모니터링'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기후연구실에서 관리하는 SNUCO2M(이산화탄소 관측장비)의 지역별 이산화탄소 농도 를 비교하고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논문이다.

환경관리학 전공 임재현(석사과정),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환경분석학회 추계 학술대회

에서 '관측 기반 AI 예측 모델을 통한 도시 도로 이산화탄소 농도 분포 특성 진단'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과 시흥을 대상으로 관측 기반 AI 모델을 활용해 도로 이산화탄소 농도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각 도시별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통량과 토지피복 유형에 따라 CO2 농도가 달라지는 패턴이 확인되었으며, 기존 통계 기반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밀한 분석과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김영인(석사과정),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대기환경학회 제67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SNUCO2M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지역별 CO2 농도 변동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온실가스 고정관측망을 통해 각 도시별 CO2 농도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춘천, 부산 지역 모두 국가 배경 대기 지역인 안면도보다 25ppm 이상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이며, 겨울철 도시 내부의 직접 배출 영향을 강하게 받아 배경 대기 지역과 다른 농도 변동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관측 목적에 따른 적절한 고도 및 위치에 관측망을 구축하여 국내 도시에 더욱 고밀도의 관측망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생지화학 연구실 _오능환 교수

▶ 연구실 행사

- **환경관리전공 이규연(박사수료), 오능환 교수**는 '2024 국가장기생태연구 하반기 워크숍'에 참여하여,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측정된 점봉산 국가장기생태연구지 시냇물 탄소농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11월 15일, 서울역 LW컨벤션센터). 계절에 따른 산림 시냇물 탄소농도 변화와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특히 2024년 시냇물 유량 자료와 연계하여 유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하천탄소유출량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점봉산 국가장기생태연구지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얼마나 큰 흡수원인지, 또는 방출원인지를 정량적으로 알아내는데 활용된다.

2024 국가장기생태연구 하반기 워크숍 (사진: 국가장기생태연구)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환경관리전공 이승철(박사수료), 오능환 교수는 2024년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학회에서 'Highly varying radiocarbon isotope ratios of dissolved organic carbon in forest headwater streams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 시냇물의 방사성탄소동위원소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나라 산림 시냇물 용존유기탄소 농도는 변동폭이 작았던 반면, 방사성탄소동위원소비는 변동폭이 컸고, 이처럼 방사성탄소동위원소비의 공간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환경관리전공 이승철(박사수료), 오능환 교수는 2024년 Asia-Pacific Network for Global Change Research 연구진 회의에서, 우리나라 항만 퇴적물의 방사성탄소동위원소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진은 2022년 7월, 이용 목적이 다른 세 항구에서 퇴적물을 채취하여 방사성탄소동위원소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높은 항구에서는, 항만 퇴적유기물에도 화석연료 기원 유기물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주었다.

2) 국내 학술활동

환경관리전공 이기환(석사수료), 오능환 교수는 2024년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기온 상승 및 강우차단이 토양호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양호흡은 토양온도와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여름 장마 시기에는 강우량과 토양온도가 토양호흡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기후변화 하에서 토양호흡이 얼마나 달라질지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탄소순환 모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경제정책 연구실 _홍종호 교수

▶ 연구실 행사

1) 홍종호 교수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분) 수상 기념 특별 강연회

2024년 10월 16일(수)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는 홍종호 교수의 2024학년도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분)을 수상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강연회에는 1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강연회 후 옥상정원에서 만찬을 즐기며 교수의 수상을 축하하였다.





2) 콜로кви움

- 연세대 의대·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BK21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과 홍종호 교수의 지속가능경제·정책연구실은 2024년 11월 7일(목)에 콜로кви움을 개최하였다. 김현철 교수는 사회실험을 진행하거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준실험적인 방법으로 인과관계, 즉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자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즉 모집단에 대한 각종 인구·사회적 자료가 건강보험데이터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건강보험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콜로кви움에서는 ‘행정자료를 사용한 정책분석: 과정 및 예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지방이전기관 공공기관 근로자(처치집단, treatment group)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근로자(통제집단, control group)의 삶을 이중차분(DiD)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강연에서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근로자와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한국은행 지속성장가능실 김재운 과장

홍종호 교수의 지속가능경제·정책연구실은 2024년 12월 13일(금)에 콜로кви움을 개최하였다. 김재운 과장은 한국은행 지속성장가능실 소속으로 글로벌통합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실물경제 리스크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자이다. 이번 콜로кви움에서는 지난 11월 발간한 한국은행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며 탄소 가격, 에너지믹스 등을 포함하는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한국 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최근 금융업계가 기후변화 리스크에 주목함을 강조하며, 미래 연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 삼성글로벌리서치 김대수 연구원

BK21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과 홍종호 교수의 지속가능경제·정책연구실은 2024년 12월 20일(금)에 콜로кви움을 개최하였다. 김대수 연구원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야 연구를 진행했고, LG화학에서 ESG 업무를 담당하였다. 현재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본 콜로кви움에서는 기후변화 연구 내용과 실제 ESG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은 지식을 'ESG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3) 현장답사

홍종호 교수의 <비용편익분석> 수업 일환으로 홍종호 교수와 수강생 등 21명이 2024년 11월 4일(월)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환경관리학 전공 김기원(박사과정), 이수경(석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8월 26일(월) ~ 8월 27일(화) 대만 칭화대에서 개최한 제13회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AAERE)에서 'Understanding the economic value of marine biodivers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 생물다양성의 정의와 해양구역(연안, 심해, 공해), 국가/지역에 따라 가치에 차이가 발생함을 관찰하였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해양 생물다양성의 비사용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경관리학 전공 김선호(박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07월 1일(월) ~ 5일(금) 싱가포르 난양기술대에서 개최된 제11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earch in Air Transportation 에서 'Flight delay time and costs from extreme weather'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극한기상현상(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에 따른 김포-제주노선 항공기 지연시간을 실증 분석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탑승객의 시간가치로 산정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김순영(박사과정), 강미랑(박사과정)은 제13회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AAERE)에서 'An Empirical Analysis of Happiness and Determinants by Household Type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SDG11)'로 구두발표 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SDG11) 관점에서 가구 형태별 행복지수와 결정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장유정(박사과정), 김순영(박사과정), 임지원(박사과정)은 제13회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AAERE)에서 'Surface Ozone Concentration yet to Decrease but has Special Clean Air Act for Seoul Metropolitan Area Really Failed?'라는 주제로 구두발표 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을 통한 오존 관리 성과를 랜덤포레스트와 통제집단합성법(SC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정부 결과 보고서와는 달리 정책적 성과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다.

2) 국내 학술활동

(논문게재) 환경관리학 전공 김순영(박사과정)은 한국 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27권 제4호(11월)에 '해운 환경정책이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 ECA와 VSR 정책의 실증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해양환경정책인 배출 규제해역(ECA)과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이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 분석을 시행하여, 대기질 정책에 따른 질소 감소가 해양 수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논문게재) 환경관리학 전공 이성규(박사과정)는 보건사회연구 제44권(3)에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 Scoping Review'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Scoping Review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연구가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 중 특히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환경관리학 전공 강미랑(박사과정)은 2024년 11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숲과나눔 환경학술 포럼에서 '차드호의 비극 실증분석: 기후변화-분쟁 넥서스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강수량 감소가 차드호 인근 지역의 분쟁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자원 경쟁을 심화 시켜 지역 사회의 분쟁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김기원(박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강진영 교수(한국교원대학교)와 함께 2024년 8월 20일(화) 중앙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환경경제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Preferences for marine debris prevention in the high seas: A choice experiment approach'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공해의 해양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공해의 직접 사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해의 오염 예방에 대하여 상당한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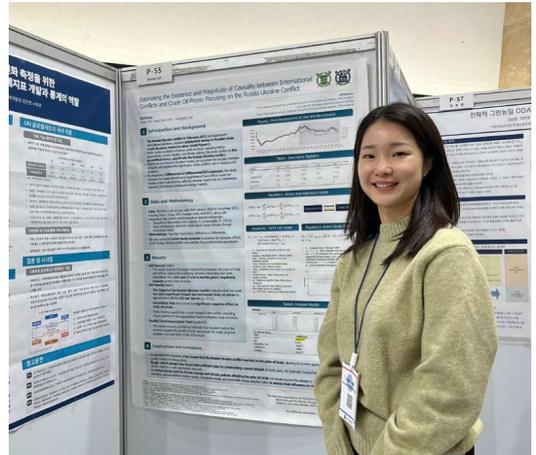
환경관리학 전공 김순영(박사과정), 장유정(박사과정), 임지원(박사과정)은 2024년 11월 27일(수) ~ 29일(금) 제주도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학회에서 '해양 환경 정책이 대기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해양환경정책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감소가 항만도시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는가를 통제집단합성법(SCM)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로 이산화황의 경우 정책 영향을 판별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지만, 기타 오염 물질의 경우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안소린(박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환경경제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재택근무의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이동거리를 감소하게 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6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 '폭염에 대한 위험 인식과 지식이 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폭염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폭염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적극적인 폭염 적응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전공 이소임(박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 오희나 교수(경희대 국제학부)는 2024년 한국환경경제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Heatwave impacts on mental health'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임계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소득 수준별로 이상고온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고온이 정신과 진료 횟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2024년 기후변화학회에서 'Direct health impacts of heat stress'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DB를 이용하여 이상고온의 온열질환 영향이 바뀌는 국면을 내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고온과 온열질환 외래진료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임지원(박사과정), 김진태(박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0월 25일(금)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동북아시아 철강 산업에 대한 경제영향 분석: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의 적용'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시아 국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다가올 국제 환경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임지원(박사과정), 조현수(석사과정), 이한결(석사과정)은 2024년 하반기 기후변화학회에서 'Estimating the Existence and Magnitude of Causality between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rude Oil Prices: Focusing on the Russia-Ukraine Conflict'라는 제목으로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산 우랄 원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조망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장유정(박사과정)은 2024년 하반기 기후변화학회에서 '수도권 정규식생지수(NDVI)와 대기오염물질(O₃, PM_{2.5})의 상관관계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녹지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수원특례시를 대상으로 정규식생지수와 2차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를 패널분석하였으며, 도시녹지 활성화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이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학 전공 이해인(석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하반기 기후변화학회에서 'LMDI 및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요인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일반 요인(GRDP 및 인구밀도)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지난 30년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학 전공 장수진(석사과정)은 2024년 하반기 기후변화학회에서 'The Effect of Green Bonds Issuance on Carbon Emissions: An Empirical Study of Korean Listed Companies'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이 실제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PSM-DID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미미하였으나 향후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심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수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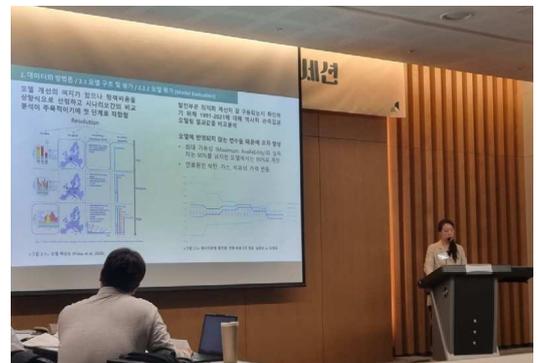
환경관리학 전공 강미랑(박사과정)은 김소현(행정대학원), 안상화(경제학부), 최용우(경제학부)와 함께

2024년 11월 15일(금)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양두석홀에서 개최된 2050 미래인(未來人):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시나리오 공모전 최종 발표에서 '사막의 목소리: 후기 인류세의 바다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본 시나리오는 탄소포집 물질 개발, 기후 재난의 예측 등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습과 더불어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의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현상 등을 담았다.

환경관리학 전공 강미량(박사과정)은 2024년 12월 4일(수) 서울대학교 목암홀에서 개최된 제4회 글로벌 지속가능성 학생 컨퍼런스 '산림: 자연기반 기후 해법'에서 "Roots of Change: Rethinking REDD+ Economics for Sustainable African Futures"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행사는 독일대사관과 서울대가 4년째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자연기반 기후 해법으로서의 산림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관리학 전공 김순영(박사과정)은 2024년 11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숲과나눔 학술환경포럼에서 '해운 환경정책이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두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항만도시와 비항만 도시간의 환경 불균형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면서 해양 환경정책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2024년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에서 '해운 환경정책이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환경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환경 정책을 시행한 5개 항만에서 총질소 농도 감소를 확인함으로써 대기정책이 대기질 뿐만 아니라 해양수질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환경관리학 전공 신희영(박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0월 30일(수)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학(원)생 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화 와 에너지효율 정책 - LEAP 모형을 이용한 영향평가(Electrification and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a net zero Korea by 2050 - Impact Assessment using LEAP Model)'를 발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는 전력화 와 에너지효율 정책이 사회의 에너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분석 결과 탄소중립 달성은 국가차원, 2050년까지의 시계로 봤을 때 경제적 이득이고, 에너지효율 정책은 총 설비용량을 줄여 에너지전환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학 전공 이상규(박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1월 27일(수)~29일(금) 제주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학회의 우수대학원생지원프로그램에서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Wheelchair Users - Empirical Analysis Using GPS data and Scenario-based Predictions' 논문으로 입선을 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이성규(박사과정)는 이동규 교수(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에너지경제연구 3월호에 출판한 '편익이전 기법을 통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가 2024년 한국 자원경제학회 시상식에서 늘푸른 학술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12월 13일(금) 수상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이주영(박사과정)은 2024년 소재부품장비 산업 통계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에서, PAM을 이용하여 LPR 분석을 수행한 '소부장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평가' 연구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임지원(박사과정), 김진태(박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제13회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AAERE)에서 'Economic Impact and Implications of EU CBAM for North East: A si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여 Best Poster Award를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EU의 탄소국경제도가 아시아 국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에 다가올 국제 환경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환경관리학 전공 장유정(박사과정), 김순영(박사과정), 임지원(박사과정)은 2024년 8월 20일(화) 중앙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환경경제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Surface Ozone Concentration yet to Decrease but has Special Clean Air Act for Seoul Metropolitan Area Really Failed? Applying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and Synthetic Control Methods" 논문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환경에너지 연구실 _윤순진 교수

▶ 연구실 행사

1) 콜로퀴움

- "Disruptive Transition to a Solar Energy Civilization, Laggard Japan under Nuclear and Fossil Fuel Delusion, Challenge through Bottom-up Energy Democracy"
Tetsunari IIDA (Director, Institute for Sustainable Energy Policies(ISEP)) 강연

BK21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에서는 2024년 10월 1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콜로퀴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의 이이다 테츠나리 소장으로, "태양에너지 문명으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일본,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힌 일본, 상향식 에너지 민

주주의를 통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과 Q&A를 진행하였다. 강연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글로벌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일본이 전통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에너지 전환에서 개인을 비롯한 지역 커뮤니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 20분 가량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 문제에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제 136차 콜로키움

**Disruptive Transition to a Solar Energy Civilization,
Laggard Japan under Nuclear and Fossil Fuel Delusion,
Challenge through Bottom-up Energy Democracy**

강연자: Tetsunari IIDA
(Institute for Sustainable Energy Policies(ISEP)/Director)

2024. 10. 18 (금) 15:00 - 17:0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13호

다과가 제공되므로 개인 점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내 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sep



● 학과 수업을 겸한 콜로키움 행사 “글로벌 그린산업 트렌드와 한국”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강연

BK21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양성단에서는 2024년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유진투자증권에 재직중인 한병화 수석연구위원으로, “글로벌 그린산업 트렌드와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및 Q&A를 진행하였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 육성 동향 분석 및 비교였다. 구체적으로는 EU의 탄소중립 육성 정책,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의 변동성,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 부진 및 기업들의 약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강연이 끝난 후 약 20분간 학생들의 질의와 강연자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 “Recipe for a Livable Planet: Achieving Net Zero Emissions in the Agrifood System”
Alexander Lotsch (Senior Climate Change Specialist, World Bank),
William R. Sutton (Lead Agriculture Economist, World Bank) 강연

BK21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에서는 2024년 11월 14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월드뱅크의 Senior Climate Change Specialist인 Alexander Lotsch와 Lead Agriculture Economist인 William R. Sutton으로, “살기 좋은 지구를 위한 레시피: 농식품 시스템에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및 Q&A를 진행하였다. 강연은 농업식품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기후완화, 기후적응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제시하였고 한국의 농업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소개했다. 추가로 World Bank의 관련 산업에서의 투자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했다. 강연이 종료된 후 30분가량 농업식품산업에서의 기후완화 및 기후적응정책에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대만의 해상풍력 정책 추진 과정과 특징”
정현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박사 강연

BK21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에서는 2024년 12월 16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콜로кви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정현욱 박사로 “대만의 해상풍력 정책 추진 과정과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과 Q&A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만의 해상풍력 발전 현황, 정책 추진 과정 및 입지 선정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출된 대만 해상풍력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연이 종료된 후 약 20분간 대만 해상풍력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제 159차 콜로кви움

대만의 해상풍력 정책 추진 과정과 특징

강연자: 정현욱 박사
 (한국 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

2024. 12. 16 (월) 17:00 - 18:3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13호 및 Zoom 온라인(회의 ID: 894 0113 0124)

사회: 윤순진 교수 /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 전공
 문의: 담당 조교 (seunlee@snu.ac.kr)

다가가 제공되므로 개인 협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내 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SNU
 Laboratory for
 Environment and
 Energy
 Lab2

ENERGY
 TRANSITION
 FORUM

●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관한 한중일 수도권주민의 의식 비교 고찰”
이수철 메이조대학교 교수 강연

BK21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에서는 2024년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콜로кви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메이조대학교 이수철 교수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관한 한중일 수도권주민의 의식 비교 고찰”라는 제목으로 강연과 Q&A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4년 6월에 한중일 수도권 주민 각 600명씩 합계 약18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ALPS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웹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항목에는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과 타당성,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구매 의향과 수입 규제에 대한 생각,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식 등이 포함되었다. 위

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주민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불안요인,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한중일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 등을 고찰하고, 향후 원전 리스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한중일 협력 노력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환경대학원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제 161차 클로키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관한
한중일 수도권주민의 의식 비교 고찰**

강연자: 이수철
(메이조대학교 Meijo University / 교수)

2024. 12. 26 (목) 10:30 - 12:3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306호



SNU
Laboratory for
Environment and
Energy
LabE2 환경에너지연구실

다과가 제공되므로 개인 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내 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 현장학습

•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정책> 그리드위즈 현장 답사

2024년 10월 29일, 윤순진 교수가 강의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정책> 수업의 일환으로 윤순진 교수는 수강생 22명, 환경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기후테크 기업인 '그리드위즈'에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그리드위즈 회사 내부를 견학하며 사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박창민 전무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강의를 통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ESG, 재생에너지, 전기차 사업 현황, 에너지의 미래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당진 하계 워크숍

윤순진 교수와 환경에너지연구실 구성원 34인은 2024년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충청남도 당진으로 하계 워크숍을 다녀왔다. 세종 21년(1439년)부터 조선 후기까지 면천의 군사 및 행정중심지였던 면천읍성을 견학하고, 2017년 면천 우체국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면천읍성안 그 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하였다. 이후 졸업생과의

담화(이윤혜 석사 졸업, 문보경 석사 졸업, 임현지 석사 졸업)를 통해 대학원 생활과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논문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고도연(박사수료)은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5(5-1)호에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지표가 평가의견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상호작용항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금년 10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전문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125개의 육상풍력발전사업에서 주요 환경지표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상호작용 항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환경지표는 평가의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일부 지표 간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육상 풍력발전과 관련된 환경 문제의 복잡성과 정성적 요소를 정량화하는 데 따른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직관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현 정량적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비록 정성적 및 복합적 요인, 데이터 제약으로 인한 제한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향후 연구를 위한 환경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학술적 및 실무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와 권고사항은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계획 및 제도적 발전을 지원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 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평가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최신의 적합한 환경지표를 활용하며, 환경적 영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포함한 다차원적 접근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관련 연구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육상 풍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향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이승언(석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환경교육 37(3)호에 '온광 효과가 친환경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경험의 조절효과: 20~24세 대학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온광 효과와 친환경 소비 행동의 관계를 한국의 맥락에서 검증하고, 이러한 관계가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경험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경험에 대해서는 유무와 만족도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맥락에서도 온광 효과와 친환경 소비 행동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면서 친환경 소비 행동의 주요 예측 변수로서 온광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경험에 대한 유무가 아닌 만족도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강화됨을 확인하면서, 학습 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를 고려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20~24세 대학생에게서도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경험이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환경교육의 장기적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이승언(석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환경교육 37(3)호에 '온광 효과가 친환경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경험의 조절효과: 20~24세 대학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온광 효과와 친환경 소비 행동의 관계를 한국의 맥락에서 검증하고, 이러한 관계가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경험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경험에 대해서는 유무와 만족도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맥락에서도 온광 효과와 친환경 소비 행동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면서 친환경 소비 행동의 주요 예측 변수로서 온광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경험에 대한 유무가 아닌 만족도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강화됨을 확인하면서, 학습 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를 고려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20~24세 대학생에게서도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경험이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환경교육의 장기적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교육 협동과정 한재윤(석사과정 졸업)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환경교육 37(1)호에 '야외 식물 관찰 체험을 유도하는 게임화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환경교육 적용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야외 자연 체험 교육 진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만연한 식물맹 상태를 환경교육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교숲에서 자율적으로 식물을 관찰하고 식물 관찰 방법을 익히도록 유도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분석하여 현장 기반 실증 연구로서의 함의를 도출했다. 또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서울 소재 중학교 학생 162명에게 적용해 식물 관찰 자기효능감 및 식물에 대한 흥미라는 식물 관찰 동기 증진의 환경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숲을 활용한 자연체험 환경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의 효과성을 증명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수행했다는 점과 식물맹 개선에 효과적인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야외 자연체험 교육 진행의 어려움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존에 지적되던 교육부의 스마트교육 정책 추진의 한계점을 극복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François Bega**는 Lin Boqiang 교수(Xiamen University)와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SCI)에 China's Belt & Road Initiative wind energy cooperation: Wind of change for the Chinese energy finance?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풍력 터빈 수출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점점 더 각광받고 있지만, 국제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투자의 재분배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RI) 개발도상국의 풍력 발전소에 대한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극히 제한적임을 지적한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이 연구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정책 은행에서 풍력 발전소 자금의 재분배를 조사하며, 특히 다른 BRI 전력 프로젝트와 비교한다. 양적 지리공간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이 연구는 a) 중국의 자금 조달이 풍력 에너지에는 부족했지만 석탄과 수력 발전에는 막대했으며, b) 화석 연료에 대한 중국의 FDI의 준전부는 BRI 국가로 흘러갔고, 대부분의 재생 에너지 FDI는 BRI가 아닌 국가로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황명주(박사수료)**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공간과사회> 34권 3호(통권89호)에 '한국 사회 도시 공동자원인 길에서의 아동 율타리치기와 아동 돌봄의 변화 : 1920~1990년대를 중심으로'의 제목으로 금년 9월 논문을 게재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아동 보행환경 및 돌봄노동 변화의 원인과 상호 영향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공동자원 관점에서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언론 기사 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대 교통수단 도입이 본격화된 후부터 1960년 이전까지, 공동자원이었던 길에서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어린이 배제를 위한 악한 율타리치기가 시도되면서 어린이 돌봄노동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산업화 시기인 1960~198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공동자원인 길의 자동차의 공간으로 근대적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돌봄노동은 사적노동 영역으로 한정되어 가기 시작하였고, 어린이들의 실외 독립 활동에 대한 제약이 심화되면서 양육자의 밀착 돌봄노동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국가는 길이라는 공동자원 파괴와 아동 안전에 대한 공적 투자 부족을 가족주의 동원으로 상쇄하고자 했고,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필요를 야기하였다. 1990년대 이후, 보행환경 악화로 안전 위험이 증가하자 차량 통행 없는 아파트 단지나 놀이 상품 등 개별화된 소비 방식의 아동 돌봄 전략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근대화 과정을 통해 공동자원인 길의 해체와 돌봄노동의 상품화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내면서, 도시의 관계성과 장소성을 위해서는 길이 가진 관계적·장소적 공동자원으로서의 속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국제 학술활동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하지훈(박사수료)**,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스페인 시체스에서 개최된 2024 Urban Transitions 학술대회에서 'What factors affect community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Targeting Shinan-gun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부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해상풍력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상풍력 에너지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기여도이며, 지자체 신뢰도, 환경 영향,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른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갈등 경험이 없는 주민들이 갈등 경험이 있는 주민들에 비해 새롭게 추진되는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육 협동과정 지혜성(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스페인 시체스에서 개최된 2024 Urban Transitions 학술대회에서 'The Impact of Pride and Guilt on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Climate Change: An Exploratory Study on Korean Young People'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 세션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반 실험을 통해 기후변화 인식이 동일한 한국의 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자긍심 또는 죄책감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 의도에 가져오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자긍심 처치와 죄책감 처치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 의도에 각각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자긍심과 죄책감이 환경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박아름(석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스페인 시체스에서 개최된 2024 Urban Transitions 학술대회에서 'Research on policy challenges for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agrivoltaics in the South Korean livestock industry'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 세션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축산업계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농민,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높은 집약적 축산 관행 비율과, 영농형을 비롯한 태양광에 대한 지원 정책의 부족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막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축종별 영농형 태양광 표준 모델에 대한 개발과 농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보조금이나 대출, 행정편의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적합하며, 동물복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농가 수익성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경교육 협동과정 이은재(석사과정)와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스페인 시체스에서 열린 2024 Urban Transitions 학술대회에서 'Non-Vegetarian Teachers' Meaningful Learning through Vegetarian School Lunches in South Korea: An Exploratory Study'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 세션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채식주의자가 아닌 초등학교 교사들이 채식급식을 경험하며 형성한 의미와 학습 과정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히 채식급식을 먹는 것 만으로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의미를 도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채식급식과 관련한 학교 공동체 내 소통이 부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채식급식 정책이 의도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교 공동체에서 경험 공유를 촉진하고, 채식급식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다각도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환경교육 협동과정 김은희(석사과정)와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아일랜드 골웨이에서 열린 2024 XXV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학술대회에서 'Electricity consumption practice of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in old age'라는 제목으로 구두 발표 세션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감축이 절실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노년기 여성1인가구의 전기에너지 소비실천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노년기 여성의 1인가구에서 물질, 의미, 절차, 관계, 경험 등을 주된 구성 요소로 하는 개인적, 물질적, 사회적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전기 소비 실천이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소비 실천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해가 노년기 환경에너지 교육 활동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노년기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임현지(박사수료)는 제주에서 개최된 The 13th Asia-Pacific Forum on Renewable Energy (AFORE 2024) 학술대회에서 'The Potential of Mandatory Rooftop Solar PV and Heat Pump Integration in Decarbonizing Residential Buildings by 2050: Focusing on Energy Self-Sufficiency and Carbon Reduction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신규 및 리모델링된 주택에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도입할 경우, 2050년까지의 태양광 보급 잠재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건물 탈탄소화를 위한 모델 분석을 통해 주택 히트펌프 보급과 태양광 발전의 결합 시 건물 에너지 자립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주택 지붕 태양광의 보급 잠재량은 9.3GW에서 12.6GW로 나타났다. 더불어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건물 에너지 자립률은 9.5%에서 최대 22.5%까지 개선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더욱 가파르게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붕 태양광 잠재량을 건물 재고, 에너지 효율 등 건물 에너지 시스템 모델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3) 국내 학술활동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이승언(석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한국환경교육학회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환경적 자기 정체성과 기부 연계 할인 전략이 20~30대 소비자의 친환경 의류 구매 선택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의류 폐기물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30대 소비자의 친환경 의류에 대한 구매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존 마케팅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부 연계 할인 전략의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가격 할인 전략, 기부 전략, 기부 연계 할인 전략의 마케팅 효과를 비교하였다. 더불어 소비자의 환경적 자기 정체성에 따라 마케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부 연계 할인은 가격 할인 전략의 효과를 뛰어넘지 못하였지만, 공익 연계 마케팅에서 단순 기부 전략보다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구매 촉진 전략으로써 기부 연계 할인 전략의 활용 가능성과 기부 전략과 기부 연계 할인 전략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환경적 자기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적 자기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정체성 교육으로서 환경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고도연(박사수료),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1월 8일 개최된 한국환경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시민 친환경 행동 활성화 문제에 관한 인과순환지도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의 친환경 행동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를 다룬다. 많은 연구가 이 문제를 탐구했으나, 선형적 관점에서 도출된 해결책은 종종 예기치 않은 적수에 직면하게 된다.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의 복합적인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주요 영향 요인을 식별하고, 인과순환지도 구축을 통해 그들의 인과적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연구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이 식별되었으며, 인과순환지도의 주요 지레 점과 중요한 피드백 루프를 포착하여 효과적인 전략 개발의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내포된 복잡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여한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이러한 결과가 향후 담론과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강조하였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고도연(박사수료),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년 11월 8일 개최된 한국 환경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시민 친환경 행동 활성화 문제에 관한 인과순환지도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의 친환경 행동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를 다룬다. 많은 연구가 이 문제를 탐구했으나, 선형적 관점에서 도출된 해결책은 종종 예기치 않은 적수에 직면하게 된다.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의 복합적인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주요 영향 요인을 식별하고, 인과순환지도 구축을 통해 그들의 인과적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연구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이 식별되었으며, 인과순환지도의 주요 지레 점과 중요한 피드백 루프를 포착하여 효과적인 전략 개발의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내포된 복잡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여한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이러한 결과가 향후 담론과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강조하였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 이지연(석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4 한국환경사회학회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한국 주요 언론사의 섯품을 활용한 기후위기 보도: 빈도와 내러티브 전략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10개 언론사의 섯품(유튜브 쇼츠) 영상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보도의 내러티브 전략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행동 촉구에 있어 섯품 콘텐츠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섯품 콘텐츠 전체 주제 중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보도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동 촉구형 전략보단 문제 인식에 집중된 보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섯품 콘텐츠의 활용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내러티브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기후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김은진(박사수료)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13일간 진행된 제6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의 북한 농업 분석: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농업과 축산 정책을 검토하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추진 배경 및 내용을 살펴본 연구로 2010년 이전은 섯행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면접을, 2010년부터는 [로동신문]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로동신문]에서 '고리형순환'을 다룬 기사를 수집한 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으며 북한의 정책 시행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에서는 1990년대에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비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김정은 정권에서 일반적인 관행을 정책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책 성과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기사로 주로 다뤄졌으나 코로나19 시기에는 인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환경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북한 당국의 정책 시행에 대한 한계 역시 드러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전공 김우리사랑(석사과정), 도시 및 지역계획학전공 백양현(석사과정), 전대호(석사과정), 보건대학원 인구학전공 최원재(박사과정), 김인환 교수(지속가능연구소 연구원)는 적정기술학회 ICEAS(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Aquatech and Sustainability) 2024에서 'Overcoming of the Extinction of Provinces for the Revitalization of Young People -Focusing on the Innovation Platform-'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정책적 특징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 정책의 성공 요인과 한계를 도출하고, 혁신플

랫폼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도의 청년 정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진로 설정과 자기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전공 왕모첸(석사과정),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전공 진사경(석사과정)은 2024년 한국환경경제학회에서 '중국 태양광보급 정책연구에 대한 체계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태양광 발전은 급격히 성장했으며, 연간 발전량은 수백 배 증가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정부의 태양광 정책 변화를 5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이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연구 결과, 보조금 정책이 산업 확장을 크게 촉진했지만, 이에 대한 의존성과 시장 주도 부족이라는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2018년 이후 정책은 보조금 조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고품질의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고, 전력망과 동등한 가격 실현을 추진하며 중국의 녹색 에너지 전환에 기여했다. 본 연구는 태양광 발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정책 결정자와 산업계에 유용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며,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정책 및 기술 혁신에 독창적인 통찰을 제시한다.

환경교육전공 김은희(석사과정)와 윤순진(환경계획학과)은 2024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진행된 2024 한국환경사회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노년기 여성 1인가구의 전기에너지 소비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의 사회적 배경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노년기 여성 1인 가구의 전기에너지 소비 실천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물질, 취향과 의미, 관계 등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경제자본·문화자본·사회자본의 상호작용으로 전기 소비 실천이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노년기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자본의 관점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할 때 에너지 소비 실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에너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임현지(박사수료)는 2024년 10월 30일 개최된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 및 탄소중립 관점의 평가지표 개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 보조금 예산 현황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사업별 폐지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벤토리 방식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집계하여 분석하였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은 향후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 수립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 협동과정 한재운(석사과정 졸업)은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석사 학위논문을 요약하고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후속 연구 결과를 추가하여 '야외 식물 관찰 체험 유도 게임화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적용의 식물 관찰 동기 증진 효과'라는 제목으로 제6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숲에서 자율적으로 식물을 관찰하고 식물 관찰 방법을 익히도록 유도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분석하여 현장 기반 실증 연구로서의 함의

를 도출했고,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서울 소재 중학교 학생 162명에게 적용해 식물 관찰 자기효능감 및 식물에 대한 흥미라는 식물 관찰 동기 증진의 환경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 때 남학생만 대상으로 했던 연구 한계점을 극복하는 후속연구를 실시하여 여학생들에게도 효과성이 있음을 추가 검증한 결과를 함께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야외 자연 체험 교육 진행의 어려움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만연한 식물맹 상태를 환경교육학적으로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 수상 내용

환경관리 전공 박현지(박사과정)은 2024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2024 International Ecology School(주최: 국회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에 참여하여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sub-alpine ecosystem in Korea: Focus on Korean Fir Tree Adapt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Certificate of Excellence'을 수상하였다.

환경교육 협동과정 한재운(석사과정 졸업)은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학위논문을 다듬어 2024년 11월 12일~13일에 개최된 제6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 구두발표하였고, 생물다양성 세션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최근 발표됐거나 미발표된 연구 성과에 대해 그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실천적 가치도 갖춘 환경분야 연구에 시상을 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고 독려하는 학술대회이다. 올해는 6개 세션(기후위기/탄소중립, 환경정책, 환경커뮤니케이션, 생물다양성, 환경운동, 환경보건)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세션별로 우수상 및 장려상 1편씩을 뽑아 시상하였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임현지(박사 수료)는 2024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The 13th Asia-Pacific Forum on Renewable Energy (AFORE 2024) 학술대회에서 'The Potential of Mandatory Rooftop Solar PV and Heat Pump Integration in Decarbonizing Residential Buildings by 2050: Focusing on Energy Self-Sufficiency and Carbon Reduction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하여, 우수발표상을 수상하였다.

환경교육 협동과정 박지연(박사과정), 환경관리전공 조유진(박사과정), 환경교육 협동과정 최민경(석사과정)은 윤순진교수의 1학기 수업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정책" 수업 기말 과제를 다듬어 2024년 11월 12일~13일에 개최된 제 6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 구두발표하였고, 환경커뮤니케이션 세션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환경관리 전공 류호재(박사수료)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기후·환경 영향요인 분석 연구'를 주제를 제안하여 2024년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사업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2년간 본 장학금 수혜를 받아 박사논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3) 도시사회혁신 전공

ISD(Inno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연구실 _김부열 교수

▶ 연구실 행사

- 김부열 교수와 김경민 교수는 2024년 10월 2일 성수 MYSC 사옥에서 도시사회혁신전공의 신입생 모집 전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김부열 교수와 김경민 교수는 2024년 11월 19일 환경 계획연구소 ESG사회혁신센터에서 개최한 <ESG, 블록체인을 만나다> 컨퍼런스에 참석해 강의와 토론을 담당하였다. 해당 컨퍼런스에는 세계 최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Steve Young Kim 이사,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나석권 원장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들이 자리하였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도시사회혁신 전공 이현승(박사과정),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소영(박사과정)은 2024년 8월 6일 대구에서 개최된 2024PRSCO에서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지리적 이동 패턴에 관련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현황을 진단하고 그 중 유니콘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지리적 이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유니콘 기업들의 개별적인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의 성장 과정에 따른 입지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서문규(석사과정), 정재엽(석사과정), 도시사회혁신 전공 이현승(박사과정), 이효중(환경계획학과)은 2024년 8월 23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 ICAPPS에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비롯한 공공 데이터를 정제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정비 사업 및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시대에 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2) 국내 학술활동

도시사회혁신 전공 정세빈(석사과정), 이현규(석사과정)는 2024년 10월 30일 한국환경정책학회 2024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대학(원)생 세션에서 '소액 인센티브가 일회용 컵 사용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융복합 연구실 _김태형 교수

▶ 연구실 행사

- 김태형 교수는 2024년 10월 29일에 온라인(Zoom)으로 융복합 연구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경대학교 Fumihiko Seta 교수를 초빙하여 'Shinkage Dose Not Follow Population Decline on a Regional Scale: Planning and Reality of Residential Area in Japan'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김태형 교수는 2024년 11월 19일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융복합 연구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축공간연구원 성은영 박사를 초빙하여 '위험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김태형 교수는 2024년 12월 16일에 온라인(Zoom)으로 융복합 연구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연구원 이원학 박사를 초빙하여 '강원도 인구감소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2024년도 융복합 연구 집담회 지원사업
지역사회 인구감소 및 쇠퇴 대응을 위한 회복탄력적 환경의 조성

Shrinkage Does Not Follow Population Decline on a Regional Scale: Planning and Reality of Residential Area in Japan

강연자
Fumihiko Seta 교수 (동경대)
동경대 도시계획과 부교수
동경대 공학 박사(도시공학)
연구 분야: 도시 및 지역계획, 인구감소시대의 계획 및 거버넌스

도론
Sae Kondo 교수(미에대), 영환진 교수(도쿄도시대)

2024년 10월 29일(화) 20:30-22:00
온라인(Zoom, ID 886 6981 5125)
(링크: <https://snu-ac-kr.zoom.us/j/88669815125>)

주최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 지방소멸시대 지역 르네상스와 회복탄력성을 위한 융복합연구

공동주최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2위원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 4단계,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문의
서울대 융복합계획연구소 (jg40327@snu.ac.kr)

주관
서울대 연구처, 서울대 융복합계획연구소

2024년도 융복합 연구 집담회 지원사업
지역사회 인구감소 및 쇠퇴 대응을 위한 회복탄력적 환경의 조성

위험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과제

강연자
성은영 박사 (건축공간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 부부장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
연구 분야: 도시계획/설계, 주거지 재생

도론
이재관 교수 (홍익대), 정아래 박사 (서울대)

사회
권태형 교수 (서울대)

2024년 11월 19일(화) 16:00-17:3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82동) 103호

주최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 지방소멸시대 지역 르네상스와 회복탄력성을 위한 융복합연구

공동주최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2위원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 4단계,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문의
서울대 융복합계획연구소 (jg40327@snu.ac.kr)

주관
서울대학교 연구처, 서울대학교 융복합계획연구소

2024년도 융복합 연구 집담회 지원사업
지역사회 인구감소 및 쇠퇴 대응을 위한 회복탄력적 환경의 조성

강원도 인구감소 현황과 과제

강연자
이원학 박사(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 탐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강원대학교 아태박사(도시계획, 기후변화)
연구 분야: 기후변화 및 재난지 정책, 울릉지역 활성화 정책, 인구통계 및 지역소멸 대응

도론
윤병준 박사(도자주책연구원), 강성아 박사(서울대학교)

사회
권태형 교수(서울대학교)

2024년 12월 16일(월) 14:00-15:30
온라인(Zoom, ID 863 6889 6525)
(링크: <https://snu-ac-kr.zoom.us/j/86368896525>)

주최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 지방소멸시대 지역 르네상스와 회복탄력성을 위한 융복합연구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 4단계,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문의
서울대 융복합계획연구소 (jg40327@snu.ac.kr)

주관
서울대 연구처, 서울대 융복합계획연구소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내 학술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윤영(박사과정),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국토시설계획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딥러닝 컴퓨터비전 모델 기반 도시 이미지 및 관광객 유형 예측'이라는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국가 중 25개 도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및 딥러닝 기반 AI 모델을 활용한 도시별 이미지 분석(주요 정서에 대한 평가)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 MIT Media Lab에서 개발한 플레이스 펄스(Place Pulse) 2.0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정준호(석사과정),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도시시설계획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The impact of physical and non-physical urban environments on endemic outbreaks in Indonesian coastal citie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풍토병의 발생에 미치는 도시의 물리적·비물리적 특성을 핫스팟 분석과 K-means clustering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물 공급원', '수질 오염 및 홍수 발생',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슬럼 여부'가 풍토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기후위기로 인한 풍토병 발생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으며, 기후위기 취약지역에서의 풍토병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2.2 환경설계학과

1) 환경조경학 전공

Evolving Landscape Lab _이유미 교수

▶ 연구실 행사

- 이유미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2월 19일 환경대학원에서 개최한 '조경세미나' 콜로키움에서 "Landscape Architecture&AI"라는 주제로 탐구와 실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설계와 기술이 융합되고 확장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지점들과 관련 사례들을 탐색하고, 조경가들이 실무에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분석하여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되어 적용되는지 탐구하였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협동과정 조경학 박재현(박사과정), 이유미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 IFLA World Congress 국제 학술대회에서 "Landscape design's sustainability evaluation digital twin and user decision-making support" 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경설계단계에서 조경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일반 사용자들의 설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해당 디지털 트윈을 통하여 사용자들은 조경공간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었고, 실시간으로 수행된 조경설계옵션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더욱 쉽고 빠르게 설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렌더링 이미지를 활용한 의사결정 방법보다 더욱 지속가능한 설계옵션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조경공간 설계 및 조성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 향상과 디자인 의사결정 과정 및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경관기획 연구실 _조경진 교수

▶ 연구실 행사

- 조경진 교수의 도시경관기획연구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 Center de Cultura Contem-

porània de Barcelona (CCCB)와 2024년 7월 9~13일 환경대학원에서 기억 정치 공공공간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공동주최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이승열(박사수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가 주최한 2024 Public Space Prize에 external guest로 초청되어 참여하였다. 토론세션에 참여하여 조경적.건축적 담론을 바탕으로, 조경.건축 언어를 통해 각국에서 구현된 공공 공간 프로젝트를 분석하며, 공공공간의 개념과 원리가 지역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도시경관기획연구실의 이승열과 정은하는 '도시 건축 기록의 매체로서의 영화'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을 기획하여 영화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세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영화가 도시와 건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매체로서 가지는 가능성을 탐구하며 제작 과정과 내러티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이승열(박사수료)는 UK, London, City University of London에서 진행한 Livable Cities Conference London 2024 - AMPS | Research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The Potential of Healthy Cities via Public Library Projects: Focusing on Urban-Rural Complex Cities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에서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가 건강 도시의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사례를 다루었다.



▶ 수상 내용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이승열(박사수료)는 2024년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정책 참여단에 참여하여, 경관 뽕박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경관과 트레일러닝의 결합을 제안하며 국토경관 개선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해당 제안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경관트레일로 반영되었다.



환경설계학과 환경조경학전공 김선빈(석사), 문찬정(석사), 장지연(석사)은 한국종합기술 조경레저부에서 주최하는 2024년 4회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소래염전: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주제로 대상지의 잠재가치인 생태, 사람, 경관 3가지 요소의 연결성에 주목해 지속가능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생태계획 연구실 _송영근 교수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협동과정 조경학 강유진(박사수료),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0월 04일~10월 06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개최된 'ICLEE 2024'학회에서 "Partitioning Seasonal Beta Diversity of Fish fauna Using Environmental DNA metabarcoding in urban streams"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안양천에서 여름과 가을에 진행된 환경 DNA 메타바코딩 결과를 기반으로 계절에 따른 환경 변화와 공간 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어류상을 베타다양성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안양천에서는 외래어종이 생물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가을철에 외래종 관리가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계절에 따라 베타다양성에 기여하는 환경 요인이 달라짐에 따라 계절에 따른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나아가 환경 DNA는 계절에 따른 생물의 분포 차이를 반영하되 유역 내 서식하는 생물을 안정적으로 검출하여 계절별 생물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환경 DNA 정보를 비롯해 생물 정보를 기반으로 계절에 따른 하천 수계에서의 생물 분포와 환경 요인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과정 조경학 김가우(박사수료),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8월 4일~ 8월 9일 롱비치에서 개최된 2024 ESA 학회(The 2024 Conference of the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에서 "Monitoring the wetland biodiversity of Protected Areas by eDNA metabarcoding" 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유전자(eDNA) 메타바코딩 기술을 이용하여 보호지역인 흑산도 내 두 습지를 대상으로 척추동물 다양성을 확인하고 기존의 자연자원조사와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4기 자연자원조

사 상반기 조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eDNA에서 검출된 종과 반기별 비교를 가능케하여 좀 더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분석 결과, 흑산도 내 장도습지와 배낭기미습지에서 발견된 척추동물은 조류, 양서류, 포유류를 포함하여 각각 25종, 27종으로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습지에서 발견된 종의 구성이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연자원조사와 eDNA에서 검출된 종 비교 시, 물을 대상으로 하는 eDNA의 특성상 어류의 검출률이 높고 조류의 검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이성을 보였다. 무인도서에 위치한 장도는 사막화가 되고 있어 자연자원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어류가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어류를 먹이원으로 하는 조류의 부리 및 발톱 등에 의해 발생되어 해당 섬 생태계의 생활사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어종 및 양서류가 자연자원조사 결과보다 eDNA에서 먼저 탐지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특정 분류군 및 타겟 종에 대하여 eDNA가 접근하기 어려운 섬 내 습지의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자연자원조사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과정 조경학 김가우(박사수료),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0월 4일~6일 기타큐슈에서 개최된 'ICLEE 2024'학회에서 "UnevenProtection: Evaluating the Protection and Governance of South Korea's Protected Areas with the IUCN Global Ecosystem Typology" 라는 제목으로 구두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토지피복도를 기반으로 만든 한국형 생태계 유형분류지도를 활용하여 현재 한국의 보호지역을 갭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생태계 유형분류는 총 25개의 생태계 기능적 그룹이 존재하며, 그 중 T.2.2 (낙엽성 온대림지역)이 27개의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부 8개의 생태계 기능적 그룹이 상대적으로 보호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지역들은 IUCN에서 발표한 생태계 기능적 그룹 내 인위적 생태계로 분류되는 도시 및 산업 생태계, 논, 등이었다. 보호지역의 생태적 대표성 평가는 현재의 보호지역의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질적 확대에 있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계학과 환경조경학전공 김재연(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0월 06일 일본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최된 'The 14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nsortium of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ICLEE 2024)' 학회에서 "Classification of Abandoned Rice Paddy Fields based on Remote sensing and Terrestrial Insect Biodiversity Analysis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경기도 전역에 위치한 논과 묵논을 대상으로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대상지들의 2차 천이 특성을 도출하고 육상곤충류 현장채집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묵논의 2차 천이 단계별로 육상곤충의 종다양성 값과 출현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를 식생구성 및 습윤도와 같은 2차 천이 특성에 기인하여 해석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각 천이 단계별 육상곤충의 다양성 지수 및 출현 양상을 대상지의 생태계 특성과 연관지어 분석함으로써 묵논의 2차 천이에 따른 생태계와 육상곤충상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계학과 김현수(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0월 4일~10월 6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개최된 'ICLEE 2024'학회에서 "Preliminary Study on Identifying the Presence of the Asian Black Bear (*Ursus thibetanus ussuricus*) Using Airborne Environmental DNA"라는 제목으로 구두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공기매개 eDNA를 활용하여 서울대공원 내 반달가슴곰을 식별하고, 식

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내사육장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반달가슴곰을 식별할 수 있었다. 또한, 거리에 따라서 식별률이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각 공기 매개 기질마다 다른 식별률을 보여, 여러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비교를 통해 선택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통해, Airborne eDNA를 통한 효과적인 육상생태계 생물다양성 식별 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계학과전공 문지원(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0월 3일 ~ 10월 5일 일본 규슈공업대학교에서 개최된 “The 14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nsortium of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ICLEE) 2024에서 “Changes in Land Use and Their Effects on Ecosystem Services: A Case Study of Seoul Metropolitan Area, South Korea (2007-2050)”을 주제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토지 유형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였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 변화에 미친 요인을 분석하여 미래의 환경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의 저감이 큰 지역에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도권 지역의 도시 및 환경계획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동과정 조경학 윤지원(박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0월 04일~10월 06일 일본 규슈 공업대학에서 개최된 ‘ICLEE 2024’ 학회에서 “Future LULCC Prediction of Jeju Island Based on Different Conservation Policies: An 80-Year Analysis”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토지 피복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량적인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포트 벡터 머신(SVM)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제주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토지 피복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된 기간은 1970~2050년으로 총 80년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두 가지 보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030년부터 10년 단위로 2050년까지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환경설계학과 조경학 이새미(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0월 5일~6일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개최된 ‘ICLEE 2024’ 학회에서 “Exploring OECM Candidate Sites in Urban Areas: Focusing on Suwon City”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자연공존지역(OECMs)을 식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경계 명확성, 지속 가능한 관리 등 7가지 평가 기준을 수원시에 적용하여 OECM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해 수변지, 산림, 공원, 수목원, 농경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각 후보지의 관리 주체 비율을 분석하여 주체별 역할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OECM이 도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30by30 목표 달성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협동과정 조경학 이승현 (박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0월 4일 ~ 10월 6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인 “ICLEE 2024’ 학회에서 “Canopy layers distribution by forest patch and species at the city-level forest using airborne LiDAR” 라는 제목으로 대면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경기도 과천시와 산림 및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라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식생의 층위를 네 종류 (관목, 아교목, 교목, 대교목)로 분류한 뒤, 이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발달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수종의 층위에서 수직적-수평적 발달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잎의 유무에 따라 층위별 발달 정도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교목층 및 대교목층은 잎이 없는 시기에 큰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발달정도를 대표하는 식생 피도가 더 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통해 국내 식생의 구조적 특징과 계절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생태계 구조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추후 구조에 따른 기능적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과정 조경학 이승현 (박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2월 9일 ~ 12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인 "AGU 2024" 학회에서 "Quantifying the number of forest stratification layers of city-scale forest and characterizing by forest types" 라는 제목으로 대면 포스터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고해상도 항공라이다 자료의 점군 높이값과 높이별 분포를 이용하여 특정 영역의 식생 층위 개수 및 각 층위의 높이 범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경기도 과천시를 대상으로 총 40만개 이상의 분석 표준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석 표준지 중 식생의 층위 개수가 1, 2, 3개를 차지하는 것은 각각 31.8%, 31.7%, 25.1%로 전체 대비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종에 따라 층위 분포 특징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침엽수인 Pinus 속은 평균 층위 개수가 1.58개, 혼효림은 2.16개, 그리고 Quercus 속은 평균 2.25개의 층위 개수를 나타내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산림 식생의 중요한 특징인 층위 구조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생물다양성, 산림 생산성, 탄소 흡수 및 저장량과 연계하여 산림의 기능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계학과 이지아(석사과정), 송영근(환경설계학과)은 2024년 10월 4일~ 10월 6일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개최된 'ICLEE 2024' 학회에서 "Preliminary Study On Assessing eDNA and Field Surveys for Monitoring the Distribution of the Onychodactylus sillanus"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형태적 구분이 어려운 도롱뇽을 대상으로 분자식별 마커를 개발하고 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번식기 외의 시기에도 도롱뇽을 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eDNA 기법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번식기 이전인 3~5월의 연구 결과 번식기인 6월에 가까워질수록 현장에서 발견되는 유생 수는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현장조사 발견률이 낮았던 반면 eDNA는 지속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또한 물 흐름 유형에 따라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 정체형의 경우 eDNA 검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번식기 외에도 도롱뇽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eDNA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다양한 서식지 특성을 고려한 샘플링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협동과정 조경학 한승우(박사수료),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8월 4일~ 8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개최된 2024 ESA 학회(The 2024 Conference of the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에서 "A landscape genetic study integrating connectivity and microsatellite analyses for wild boar populations in Northern region of South Korea" 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채집된 474마리의 멧돼지를 대상으로 13개의 마이크로새틀라이트 마커를 이용해 개체군의 유전적 구조와 연결성을 분석하고, 이를 OMNISCAPE 알고리즘 기반의 생태적 연결성 패턴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멧돼지 개체군의 높은 유전적 다양성이 확인되었으나, 지역에 따른 개체군 간 유전적 분화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 산맥이나 하천 등 물리적 장벽의 유전적 영향은 미미하였다. 생태적 연결성은 주로 산맥이 위치한 산림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전적 연결성이 높은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멧돼지 개체군의 경관, 유전자 데이터를 반영한 연결성 통로는 산림이 연결된 지역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ASF 방역 및 멧돼지 개체군 관리 전략 수립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학술활동

협동과정 조경학 김가우(박사수료),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2월 5일~6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에서 “환경유전자 메타바코딩을 통한 오대산국립공원 척추동물 다양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eDNA 메타바코딩을 활용하여 오대산국립공원 내 척추동물 다양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eDNA가 자연자원조사 보완도구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먼저 eDNA에서 검출된 종을 자연자원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종 탐지 특성을 확인하고,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이트 간의 척추동물 군집 구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eDNA는 기존 자연자원조사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지점 내 종들을 추가로 발견하고 특히 어종에서 높은 검출율을 보였다. 또한 타 분류군에서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종들을 검출하여 생물종 모니터링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미세지역 간 군집 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부 조류와 어류는 수유형별로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eDNA가 기존의 모니터링 결과 보완 외에도 미세 군집 변화를 감지하여 지점별 보전 우선 순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계학과 김현수(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2월 12일 제주도에에서 개최된 ‘한국환경유전자학회’에서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 모니터링을 위한 Airborne eDNA 활용 가능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포스터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공기매개 eDNA를 활용하여 서울대공원 내 반달가슴곰을 식별하고,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기 중의 eDNA로부터 반달가슴곰이 효과적으로 검출되었으며, 각 eDNA 기질마다 상이한 검출률을 보였다. 또한, 거리에 따른 검출률에도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Airborne eDNA를 통한 효과적인 육상생태계 생물다양성 식별 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계학과 노지선(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2월 5일 양양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에서 “묵논습지 식생 탄소저장량 추정을 위한 LiDAR 기반 분석 연구”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묵논습지로 알려진 운곡습지와 평두메습지를 대상으로 원격탐사 데이터(LiDAR)를 활용하여 지상부 식생의 탄소 저장량을 측정하고 이를 이차림과 비교함으로써 묵논습지의 식생 탄소 저장의 가치치와 역할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묵논습지가 일반 이차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리와 생태적 복원 상태에서도 탄소 저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 습지 내 식생 탄소저장량을 평가하는데 있어 탄소저장량 밀도를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계학과 양영은(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8월 27일 동국대학교 혜화관에서 개최된 한국습지학회에서 “UAV영상을 이용한 묵논습지식생 분류 및 분포특성 분석”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12월 5일 쓸비치양양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에서 “산지 내 묵논습지 식생 분류를 위한 UAV영상의 유효성 분석”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중시기 UAV 영상

을 활용하여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의 식생 분포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식생의 주요 분포 패턴과 수문환경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협동과정 조경학 윤지원(박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0월 17일 서울 양재 케이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원격탐사학회에서 "자연기반해법 적용에 따른 제주도 산림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변화 분석"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1970~2050년까지 제주도의 산림의 NbS(-Nature Based Solution) 사업 적용에 따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협동과정 조경학 윤지원(박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2월 05일 양양 쓸비치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에서 "제주도의 80년간 토지피복분류 및 예측과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공동 및 상쇄효과 분석"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토지피복의 변화에 따른 토양유실저감효과, 탄소흡수능, 서식처질을 0~1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하여 공동 및 상쇄효과를 분석하였다.

환경설계학과 이지아(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은 2024년 12월 5일~12월 6일 쓸비치 양양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에서 "Onychodactylus sillanus의 분포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DNA의 활용가능성"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eDNA 기법을 활용하여 양산꼬리치레도롱뇽 모니터링을 위한 신뢰성 높은 마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종 모니터링 가능성을 검증했다. 3~9월의 연구 결과 현장조사에서는 비번식기 평균 유생 수가 약 26마리, 번식기에는 약 56마리로 시기에 따른 변동이 나타났으나 eDNA 검출률은 비번식기 81% 번식기 100%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 eDNA가 번식기와 비번식기 모두에서 유용한 모니터링 도구임을 시사한다. 또한 지점별 eDNA 검출률과 유생 수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면서 eDNA 분석이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니터링 도구로서 양산꼬리치레도롱뇽 보존과 생태계 관리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환경설계학과 제갈갑성(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2월 5일 양양에서 개최된 '2024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에서 "2019~2024년의 순천만 습지의 식생 변화 연구 (갈대와 칠면초 군락의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순천만 습지의 갈대와 칠면초 군락의 장기간 면적 변화 추이를 식생 페놀로지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봄철 가뭄 및 강수량 부족 영향을 받은 해에 칠면초의 생육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순천만 습지 갈대 칠면초 군락의 장기간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류 방법론을 통해 한국 습지의 염생식물 분류 및 장기간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과정 조경학 한승우(박사수료),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2월 5일 양양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에서 "묵논습지의 생태적 기능평가를 위한 종합 고찰 - 운곡습지와 평두메습지를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묵논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탄소축적, 생물다양성, 수문 기능 3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 항목을 설정하였고, 드론 기반 원격탐사영상 및 환경DNA와 같은 고도화된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운곡습지와 평두메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묵논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기능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량적 조사방법 뿐 아니라 묵논습지의 유형 및 생태 천이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평가 방법론의 정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학회지 논문 출판

협동과정 조경학 강유진(박사수료), 한승우(박사수료),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Metabarcoding and Metagenomics' 학술지에 "Optimising eDNA analysis for urban otter monitoring: seasonal patterns, detection strategies and prey availability"을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환경 DNA 메타바코딩과 qPCR 분석 방법 비교를 통해 내 수달의 서식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적합한 환경 DNA 방법론 선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축산물로 인한 환경 시료 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도시 환경에서 낮은 서식 밀도의 생물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을 동시다발적으로 증폭하는 메타바코딩에 비해 단일 생물을 증폭하는 타겟 PCR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메타바코딩은 대상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을 상대적으로 증폭함에 따라 잠재적 먹이원의 분포를 평가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당 연구는 환경 DNA 기반의 멸종위기 종 관찰과 관련하여 분석 방법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환경 DNA 기반의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상 내용

협동과정 조경학 김가우(박사수료),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2월 5일~6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에서 "환경유전자 메타바코딩을 통한 오대산국립공원 척추동물 다양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여 최우수발표자상을 수상하였다.

환경설계학과 환경조경학전공 김재연(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0월 06일 일본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최된 'The 14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nsortium of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ICLEE 2024)' 학회에서 "Classification of Abandoned Rice Paddy Fields based on Remote sensing and Terrestrial Insect Biodiversity Analysis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를 주제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여 BEST PRESENTER AWARD를 수상하였다.

환경설계학과 김현수(석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12월 12일~13일 제주도에에서 개최된 한국환경유전자학회에서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 모니터링을 위한 Airborne eDNA 활용가능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포스터발표를 진행하여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조경계획 연구실 _손용훈 교수

▶ 연구실 행사

- 손용훈 교수는 2024년 8월 19~20일 농촌다움 프로젝트 대상지인 고창군에서 연구실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실 학생들과 고창군 구릉지 경관을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내용은 현재 연구실에서 수행중인 농촌공간 특성지도 개발에 활용되었다.



- 손용훈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경관정원연구센터는 2024년 9월 5~7일 환경대학원에서 OECM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주최하였다.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ure Positive City
and OECM Case Studies**

Date / Venue, September 5-7th, 2024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uwon Special City

Program

| Sep. 5th (Thu.) | 19:00-21:00 Pre-workshop and Reception [Venue: Lounge of Shilla Stay Yeoksam]

| Sep. 6th (Fri.) |
09:30-10:15 - Opening of Symposium [Venue: Faculty Club(65BLD.) 2F Convention Hall]
[Opening Speech] Soon-jin Yoon | President,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elcome Speech] Chang-hoon Lee | Director,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Research
[Congratulatory Speech] An Invited Speaker

10:30-13:30 - Part 1. Report on Major Research Issues of National Land and Natural Environment
[Venue: Faculty Club(65BLD.) 2F Convention Hall]

13:30-15:30 - Part 2.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Venue: Faculty Club(65BLD.) 2F Convention Hall]

#1. Prof. Tamahito Ichinose | Dean, Faculty of Environment and Information Studies, Kyushu University
[Title] Japanese OECMs System - Nationally Certified Sustainably Managed Natural Sites

#2. Prof. Dau-ye Lu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s, National Taiwan University
[Title]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to Promote OECMs in Taiwan

#3. Prof. Tanaka Toshinori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for Asian and Oceanian Studies, Kyushu University
[Title] UNESCO Biosphere Reserve: A Regional Approach for Nature Positive City

#4. Prof. Masayuki Ushio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Ocean Science,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itle] Biodiversity Monitoring Using Environmental DNA: Application, Limitations, and Future Perspective

#5. Discussion
[Moderator] Prof. Yong-hoon Son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Prof. Youngkeun Song/ Dr. Eun-young Kim/ Dr. Seung-woo Son/ Dr. Hag-young Heo

15:30 - Closing of Symposium

| Sep. 7th (Sat.) | 10:00-14:00 Excursion: Technical Tour on OECMs [Venue: Suwon Special City]

| Hosted / Organized by,
- SNU GSES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 Sponsored by,
-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Suwon Research Institute

| Collaborating Organizations,
- Kyushu University Institute for Asian and Oceanian Studies
- Korea National Park Service
- National Taiwan University
- Forestry and Nature Conservation Agency(Taiwan)

- 손용훈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경관정원연구센터는 202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한국섬진흥원과 공동 주관으로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기반 섬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시간	내용	주최/주최자
13:00-13:30	식전 등록	세미나특별위원회
13:30-14:30	개회식 - 손용훈 특별 강연: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 정책연구 세미나 개최 선언 - 장영환 원장 환영사 - 한국섬진흥원-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소개 - 2024년 11월 15일 (금) 13:00-18:00	한국섬진흥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14:30-15:00	개회식 - 2024년 11월 15일 (금) 13:00-18:00	한국섬진흥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15:00-16:00	개회식 - 2024년 11월 15일 (금) 13:00-18:00	한국섬진흥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16:00-16:30	개회식 - 2024년 11월 15일 (금) 13:00-18:00	한국섬진흥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16:30-17:00	개회식 - 2024년 11월 15일 (금) 13:00-18:00	한국섬진흥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17:00-18:00	개회식 - 2024년 11월 15일 (금) 13:00-18:00	한국섬진흥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내 학술활동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김도은(박사수료)와 손용훈 교수 외 2명의 저자는 국토연구 통권122권(9월)에 '섬 관광자원의 분류체계 정립 및 분포 현황 분석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 수준에서 섬 지역의 자원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섬 관광 자원 분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섬 지역의 관광 자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류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섬자원 관리에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용훈 교수외 7인의 저자는 2021년도 서울대학교 융·복합 연구과제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신도시농 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옥상 수경재배 실증실험 연구'를 농촌계획학회에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옥외용 수경재배기를 제작하고 캠퍼스내 옥상공간에서 채소류를 재배하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실증실험으로 연구한 것으로, 현장실험을 통해서 캠퍼스 내에서의 새로운 도시농업 활성화와 문화 확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제를 정리하고 해결방안과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다.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정다애(박사수료)와 손용훈 교수외 3명의 저자는 '페닐로지를 통한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의 문화경관 가치 읽기'라는 논문으로 농촌계획학회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환경대학원 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제주밭담을 대상으로 계절성과 이에 따른 환경과 사회활동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경관해석 방법을 개발한 연구이다.

2) 도시환경설계학 전공

도시설계 연구실 _김세훈, 이제승, 임저스틴 교수

▶ 연구실 행사

- 윤소영(박사과정)과 이서영 GSD 학생의 기획으로 온-오프라인 워크숍 Urban Re-Imagination이 8월 9일 82동 103호에서 있었다. 변예지, 김보름, 한지현, 조윤아, 홍현도(석사과정)이 함께 발표에 참여하였고, Korea Harvard GSD 학생은 5명이 발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더 나은 도시를 위해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 담론을 나누고, 세계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요소는 어떻게 재구성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다. Q&A 시간을 통해 한국, 해외에서의 석박사 생활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 석박사과정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활동

협동과정조경학 도시설계학 전공 김명조(박사과정), 김영은(박사졸업생), 문지훈(박사과정), 서여령(박사과정), 김세훈·이제승 교수(환경설계학과)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여 2024년 8월 22일~24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 Pacific Planning Societies(ICAPPS)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김명조(박사과정)은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Migration Patterns in South Korea: Over the Last Decade'라는 제목의 연구를 구두 발표하였다. 김영은(박사졸업생)은 'Economic Prosperity Characteristics in Depopulated Citie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Complementary Economic Growth, Growing, and Shrinking Cities'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구두 발표, 문지훈(박사과정)은 SessionC에서 'Transient dynamics in urban spaces: assessing the impact of relational populations on revitalization in South Korea cities facing demographic decline'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구두 발표하였다. 서여령(박사과정)은 "Exploring Urban Vitality through a Temporal Perspective"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도시설계학 전공 문지훈(박사과정)은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The 12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에 'Effects of Urban Sprawl on Regional Disparity and Quality of Life: Remote Sensing the Sprawl in South Korea'라는 주제로 패널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도시환경설계전공 조윤아(석사과정)는 ACSP에서 'How Can Smart Governance Enhance Sustainability in Smart City Projects?'라는 제목의 학술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는 토론토 Sidewalk Labs 사례의 거버넌스 이슈를 유형화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oT related decision making guidelines, Data sovereignty, Transparency, Pilot tests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도시설계학 전공 문지훈(박사과정)은 2024년 8월 Cities에 'Effects of Urban Sprawl on Regional Disparity and Quality of Life: A Case of South Korea' 연구를 게재하였다. 해당 연구는 remote sensing과 SEM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시교외화가 지역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밝혔다.

2) 국내 학술활동

협동과정조경학 도시설계학 전공 문지훈, 최경인(박사과정)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59권 5호(10월)에 '최대 커버링 입지 문제(MCLP) 모델을 이용한 김해시 역사문화도심의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최적화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2023년 COMPAS 국토도시데이터 분석과제 공모 과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결과와 2024년 5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해당 연구는 연구대상지 내 기존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AP의 이용효율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MCLP를 활용한 최적 재배치(안)을 도출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의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협동과정조경학 도시설계학 전공 김명조(박사과정), 이제승 교수(환경설계학과)는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2024년 12월 특집호에 '한국 내 외국인 이주민의 공간적 분포와 군집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을 K-means clustering 기법을 사용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5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외국인 인구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이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계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임재호(석사과정), 임저스틴희준 교수(환경설계학과)는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제25권 제5호(10월)에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공간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신도시 개발에 의한 공간구조의 변화를 GIS와 공간구문론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남시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원도심의 상대적 쇠퇴가 발생하였으며, 위계중심지의 이동을 통해 인위적인 개발이 구조적 단절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설계와 균형잡힌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계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Zaki Maharani(석사), 임저스틴희준 교수(환경설계학과)는 「한국조경학회지」 제52권 제5호(10월)에 '서울 영등포구의 저영향개발에 대한 홍수 완화 전략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SWMM을 활용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상업 혼합지역이라는 상이한 도시 맥락에서 LID의 적용가능성과 홍수 완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축물 및 옥외공간 기반 LID 기법의 결합이 가장 큰 유출량 및 침투유출량의 감소효과를 통해 홍수 완화에 가장 이상적인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및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저스틴희준 교수(환경설계학과)는 **이희라 교수(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대학원)**, **이해나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와 함께 「보건과 사회과학」 제66권(8월)에 '서울시 인구변화와 중고령기 수면건강 - 외국인 밀집정도과 지역사회 응집력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서울시 중고령자의 수면건강에 대한 지역사회 인구구성과 지역사회 응집력의 영향을 다루었다. 분석결과 외국인 밀집정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는 수면부족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상호신뢰, 유대감 등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상호작용적 정책과 사회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임저스틴희준 교수(환경설계학과)는 **이재민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허자연 연구위원(서울연구원)**과 함께 「Environment and Planning B: Urban Analytics and City Science」에 'Revisiting building height restriction policy in the historic center of Seoul: Exploring performance-based height management using view shadow simulation'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서울 도심부의 역사적 스카이라인을 보존하면서도 건물 높이 제한을 성능 기반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을 탐구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대상지 중 약 58%가 역사적 스카이라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건물의 용적율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스카이라인의 보존과 경제적 성장 간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서울 도심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환경설계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이채원 (석사과정), **서수정 선임연구원 (아우리 건축공간연구원)**, **김세훈 교수 (환경설계학과)**는 학술발표대회 세션 2 도시재생 및 정책 / 도시계획 및 제도에서 '인구소멸지역의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연구 -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조성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충청북도 괴산군의 폐교 방지를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이 초등학교 인구 유입에 성공적이지, 공공의 정책으로 확대되어 각 면 단위로 시행하게 된 '행복보금자리주택조성사업'이 인구유입과 정착에 미친 효과와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은 여전히 유출되었으며, 초등학교 자녀 가구 유입과 정착에 성공적이었다. 거주민들을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일자리 부족, 초등학교 졸업 이후 만료되는 거주 자격에 대해 주거 및 교육 불안, 새로운 입주자와의 융화 부족이 장기적인 정착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교육 환경 개선,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본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민간 참여와 공공의 지원이 인구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에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 수상 내용

협동과정조경학 도시설계 전공 김영은(박사졸업생), **문지훈(박사과정)**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한 2024년 8월 도시계획 국제컨퍼런스(ICAPPS)에서 Young Urban Planners Network(YUPN) Best Presentation Award를 받았다.

환경설계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김보름(석사과정), **문재식(석사과정)**, **홍현도(석사과정)**은 2024년 8월 6일 LH에서 개최된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률 추정'에서 최우수상 수여 이후, 9월 4일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 COMPAS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대전에서 동주제로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최근 세종시는

경기 침체, 급속한 성장 등으로 폐업하는 상가 공실률의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의 롤모델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발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공실률은 답보인 상태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존 공실률 산출 방식과는 달리 실질적인 운영 상가 면적을 산출하였고, 신도시 내 상가 건물의 공실률을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모형을 기준으로 추정함으로써 적정 상가 연면적 계획 등의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환경설계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스마트시티글로벌융합전공 서현겸(석사과정), 김세훈교수(환경설계학과)는 10월 12일,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주관하는 '2024추계학술대회 작품전시회'에 같은 연구실 소속인 김혜원, 안준혁 그리고, 건설환경공학부 소속 ENKHBAATAR와 팀을 이루어 작품명 'YULink' 라는 프로젝트를 제출하였고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수원시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의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주민회의 등을 통해 나온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특징을 분류,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율천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예산과 토지의 이용을 고려하여 단계별 실행전략을 수립하였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긴급한 도시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설계 리빙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가로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계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김동휘(석사과정), 김세훈 교수(환경설계학과)는 2024년 한국도시재생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빵지순례·빵 투어 문화를 통한 지방도시 활성화: 근거이론 기반의 탐색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는 빵지순례 문화가 지방도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과정과 의미를 실제 방문객의 경험에 기반해 분석하였으며, 해당 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환경설계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장지연(석사과정)은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공모전'에서 '자치구별 주거환경 만족도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공간 평가용 지표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도시환경설계전공 신승윤(석사과정)은 '인류세의 건축과 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37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과거 인류의 개입으로 황폐화된 아랄해를 대상지로 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개입하는 건축적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대지 주변 커뮤니티를 위한 사회적 회복을 제안하였으며, 생태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건축을 파괴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회복의 터전으로 삼았다. 이러한 접근은 주제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높은 디자인적 완성도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시환경설계전공 신승윤(석사과정), 도시환경설계전공 김예찬(석사과정), 임저스틴희준 교수(환경설계학과)는 'Dosi Carrier'라는 팀명으로 제26회 아이디어 유니버시아드 대회 실버 사업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리어카를 활용한 폐지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자원 재생 활동가로 재조명하였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원 재활용 솔루션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사회적 가치와 환경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도시환경설계전공 신승윤(석사과정), 도시환경설계전공 박건영(석사과정), 도시환경설계전공 성진욱(석사과정), 도시환경설계전공 정민하(석사과정)는 **임저스틴희준 교수(환경설계학과)**의 도시설계리빙랩 수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한 작업으로 도시설계학회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도시설계 작품전시회에 참가하여 대학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작업은 수원시 우만1동을 대상지로 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저예산의 즉각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택토닉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민회의를 통해 알게 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플랜터 배치, 페인트 칠 등 간단한 방식으로 상권 가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보여주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3.

석·박사과정생 활동



3.1

학생회 활동

2024학년도 2학기 환경대학원 학생회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대학원 학생회입니다. 학생회는 현재 환경계획학과 3명, 환경설계학과 5명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관심있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학업생활과 학생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학생회를 이끌어줬던 3명의 학우들이 나가고 2학기에 새로운 학우 2명이 학생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저희들이 주최하는 행사가 없어 한대 구성원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어 아쉽지만, 내년 1학기에는 많은 환대인들이 참석하여 대화의 장을 이루는 운동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행사를 온전히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회는 환경대학원 학우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중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저희를 찾아 주시면 최대한 협조를 드릴 것을 약속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생회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 환경대학원 학생회 활동

- 의류 공동구매 :
 기존에 구매하던 야구잠바, 바람막이, 후드티에서 야구잠바, 후드집업, 맨투맨으로 구성을 변경했고, 디자인도 크게 바뀌어 구매한 학우분들의 평가가 이전보다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환경대학원 학생회 활동

- 학생회장 백양현 :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 박선화 :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 조민경 :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 박태연 : 환경설계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 서현겸 : 환경설계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전공
- 안준혁 : 환경설계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 이새미 : 환경설계학과 환경조경학 전공,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전공
- 정윤서 : 환경설계학과 환경조경학 전공

3.2 환경대학원 동아리 소개

● 환경대학원 운동 동아리 '운동환대'



2024년 초,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동환대”라는 운동 동아리가 창설되었다. 환경대학원 전 학생회장이자 운동환대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섭 학우(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 계획학 석사과정)는 환경대학원 특성상 학우들이 함께 어울릴 기회가 적었는데, 운동 동아리를 통해 다른 학과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체력도 기를 수 있는 자리의 필요성을 느껴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운동환대”는 체력 소모가 큰 운동보다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운동 외에 스포츠와 관련한 활동(경기 관람 등)도 함께 하고 있다.

자주 모이시는 편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이려고 해요.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주 1회 모이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 달라요. 그 주에 할 운동 종목을 정하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아서 예약을 하고 모여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운동을 하세요?

동아리 가입할 때 신입 부원(?)에게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요. 그 답변을 토대로 매번 다른 운동을 돌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볼링, 러닝, 탁구, 풋살을 주로 했던 것 같고, 등산을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운동한대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앞선 답변과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체력'과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체력'은 운동 동아리니 당연한 거고, 실제로 저희 모두 운동을 통한 성취가 큰 것 같아요. '사람'을 얻어간다는 건 운동을 하면서 쌓는 연대감도 있고, 가끔 운동 끝나고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며 겪는 잡다한 고민을 나누면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 운동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환경대학원에서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함께 땀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는 만큼 끈끈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운동한대에 어떤 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12명 정도 있고, 환경계획학과/환경설계학과 학생들 반반씩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재학생들이고, 석사과정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에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교수님들까지 모두 환영입니다(웃음). 운동에 대한 지식이 없

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가르쳐주면서 하면 되니까요. 다만, 간혹 시설이나 장비 사용료 같은 운영비가 발생하는 데, 이에 기꺼이 내 지갑을 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운동한대만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동아리가 점점 확장해서 동아리원들이 많아진다면, 여러 종목의 운동을 접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한 종목을 깊이 있게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아리 안에 러닝 크루, 테니스 크루처럼 특정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유닛 그룹들이 따로 있는데, 이처럼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운동을 더 깊게 접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 환경대학원 트레일 러닝 동아리 '산땀'



트레일 러닝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다. 트레일 러닝은 비포장도로인 트레일을 따라 달리는 운동이다. 그러나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과의 교감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트레일 러닝이라는 운동이 대중에게 친숙해진 건 최근 5년 사이이며, 러닝이나 등산 인구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트레일 러닝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환경대학원에서 이 트레일 러닝을 함께 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산땀"이라는 동아리이다. 환경설계학과 환경조경학 박사과정 이승열 학우가 처음 이 모임을 주관했다. 그는 2020년에 영국에서 스파르타 레이스에 참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스파르타 레이스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트레일 러닝에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트레일 러닝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해서 환경대학원 안에서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학기에 새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동아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을 뛰는 운동을 하는 동아리예요. 일반적인 트레일보다 강도가 높은 운동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도시경관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 경관을 다르게 읽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주 모이는 편인가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뛰고 있어요. 매번 다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인원끼리 모여서 교내 5km 코스를 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 바퀴 돌면 5km정도 되더라고요. 환경대학원에서 출발해서 학교 한 바퀴 돌고, 중간에 관악산 살짝 걸쳐서 다시 환경대

학원으로 복귀하는 코스입니다. 그렇다고 선수처럼 뛰자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건강을 잘 유지해 보자는 거죠. 매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이왕 공부하는 거 건강도 챙기면서 해보면 좋으니까요.

주로 어디로 가세요?

관악산만 가봤어요. 목표는 관악산 지키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내 코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곳에 대한 애착도 생기게 돼요.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구역은 관악산이잖아요. 그리고 환경대학원 학생이 환경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면 솔직히 연구 안에서만인 것 같아요. 환경을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좋네요. 그럼 이렇게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총인원은 14명이고,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조교님들도 계시고, 초반에 교내에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 환경계획학과에서도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가족 구성원들을 데려와서 같이 하는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다채롭네요. 그럼 어떤 분들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잘 못 뛰는 분들도 괜찮아요. 초보자분들 오시면, 각자의 속도를 좀 보고 실력에 맞게 그룹을 나누고 코스 난이도를 정합니다. 스트레칭 운동도 기본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처음에 안내를 해줍니다.

규정은 하나 있습니다. 절대 음주는 안 합니다(단호). 스포츠 커뮤니티 만드는 건 좋죠. 근데 건강 챙기자고 어려운 발걸음 한 건데... 동아리 안에서 연애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건강만큼은 확실히 챙길 수 있겠네요. 그럼 "산뽕"에서 이것만큼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건강! 심폐지구력!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사함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올가을에 학교에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다라고요. 단풍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연에 도취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야 자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연경관을 느끼면서 뛰니까 자연의 아름다움도 많이 느끼게 되고,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말고도 산을 뛰면서 느꼈던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 동아리 OT를 했을 때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환경

대학원 학생들이니까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악산에 가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뛰는 활동을 통해 그 장소를 사유화하는 건데, 사유화하는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트레일 러닝이 내가 가진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트레일 러닝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장비가 멋있어요. 요즘 고프코어룩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러닝은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트레일 러닝 하시면 돼요. 또 트레일러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트레일 러닝화는 세일도 많이 해요(웃음).

프랑스어로 Paysage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단순히 "풍경"이나 "경관"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경험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풍경을 보이는 대로 자연이나 장면이 아닌, 그것들 받아들이는 개인의 감정, 기억, 그리고 특정 장소와의 관계가 결합된 주관적 경험으로 재해석한다. 이처럼 "산뽕" 사람들은 관악산을 오르며 자연경관을 새롭게 받아들여, 그 속에서 느낀 감정과 추억들을 그들의 고유한 경험으로 재구성한다. "산뽕"의 뽕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인으로서의 자아를 고취하는 것이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심연과도 같은 이 운동의 매력을 알아보고 싶다면, 트레일 러닝 동아리 "산뽕"에서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 환경대학원 사진 동아리



환경대학원 유리방에서, 사진전 준비



현재 활동하는 동아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동아리는 어디일까? 환경대학원 안팎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한 컷의 사진으로 담아내는 사진동아리이다.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 몇 장을 요청해 받아보고는 높은 퀄리티의 사진에 담당 기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환경대학원 내 여러 전공에 걸친 20명의 구성원이 함께 사진도 찍고 친목을 다지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높은 퀄리티의 사진은 덤.

사진 동아리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경대학원 사진동아리는 사진을 좋아하는 학우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기적으로 같이 출사를 나가면서 여러 전공의 학우들과 친목도 다지고, 서로의 모델이 되어주면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진지하게 사진술을 접하는 학우들을 위해 카메라 활용 및 촬영기법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동아리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균 월 1회의 빈도로 출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매 학기 부원들이 팀을 꾸려 장소나 동선을 기획합니다. 4월엔 벚꽃을 찍으러 가는 등, 시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컨셉의 출사를 나가봤던 것 같아요. 물론 출사 후에는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기도 하며, 정기 출사 외에 비정기적으로 번개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주로 사진을 찍으러 가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각 출사마다 다양한 컨셉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고궁과 자연의 조화를 보기도 했구요.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이나 용산가족공원과 같이 숲이 울창한 공원에서 자연의 모습을 담을 때도 있었습니다. 문래동이나 이태원, 후암동과 같은 도시의 힙한 골목길을 담기도 했고, 그 밖에 벚꽃길이나 호수공원 등, 도시와 자연의 다양한 매력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인상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올해 여름, 부원들끼리 소소하게 당일치기 강릉 여행을 했습니다. 평소 정기 출사에서와는 먼길을 이동하기 힘들어

주로 서울 내에서만 진행되었지만, 방학을 맞아 색다른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멀리 강릉까지 다녀왔었는데요. 안반데기마을의 고랭지 배추밭, 경포호수와 경포해변의 시원한 풍경, 명주동 골목 사이사이 아기자기한 카페 등 다양한 풍경도 즐기고 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릉 경포호수공원에서

사진동아리가 대학원 생활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나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연구실 외 다른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고, 자칫 연구실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행이나 나들이를 좋아하고, 사진에 진심인 학우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좋았고, 연구실 밖으로 나와 이쁜 사진을 찍으며 힘든 대학원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가입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재학생과 졸업생을 막론하고 사진을 좋아하는 환경대학원 학우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

사진 동아리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관심사가 겹치는 “학우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사진은 좋아하지만 카메라 조작법이나 본격적인 촬영기법에는 서툰 학우들이라면 진지하게 사진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캠퍼스를 벗어나 학교 밖 다양한 곳을 찾아다니고 그곳의 숨은 매력을 찾으며 리프레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촌 신흥시장에서



망원한강공원에 들러앉아 저녁식사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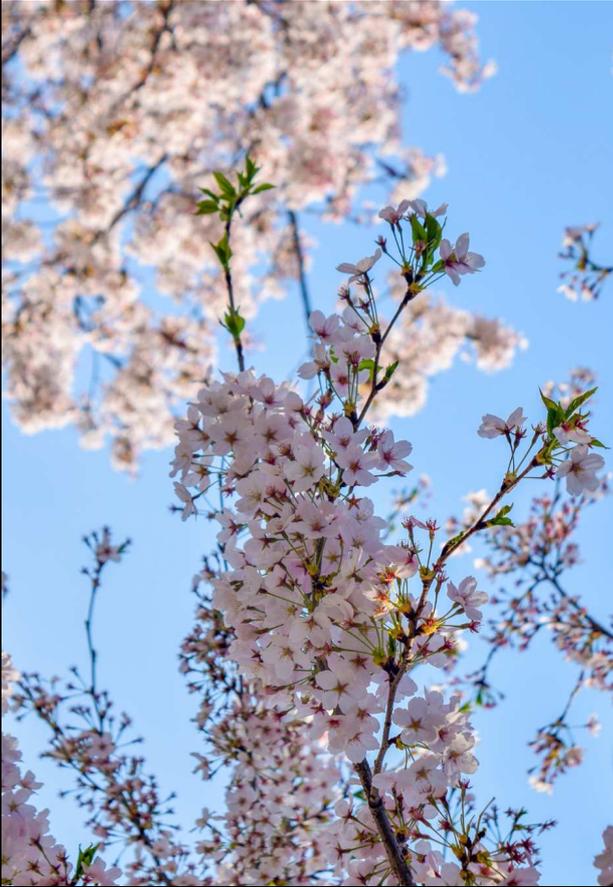
대부분 시간을 맞추다 보니,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서 출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아리원들과 함께 제주도나 해외 여행 겸 출사를 진행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사진 동아리는 매학기 시작 전에 출사한 결과물을 모아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층 유리방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행하오니 전시가 시작되면 교내에 포스터를 통해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진동아리 작품 갤러리



2023. 04. 02. 상수동 벚꽃 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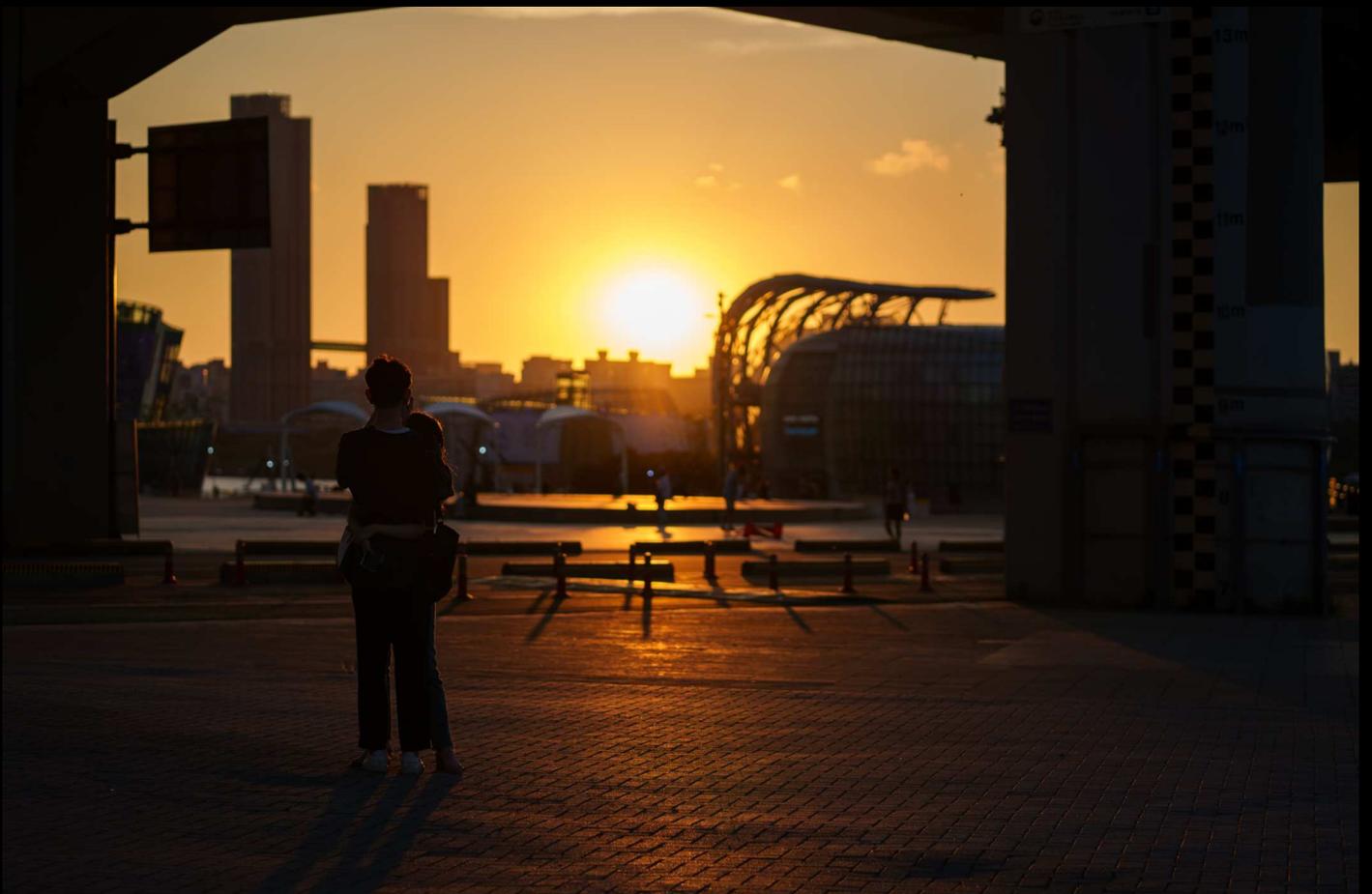
2023. 06. 30. 문래동 출사, 골목길(위) 문래근린공원(아래)



2024. 08. 03. 강릉 여행, 안반데기마을



2024. 02. 09. 제주도 모슬포 앞바다 가마우지들



2024. 06. 26. 반포한강공원 출사, 저녁 노을

● 환경대학원 밴드 '엔트로포세'

환경대학원의 새내기 동아리, 밴드 '엔트로포세(Enthropocene)'를 만나보자. 지난 여름 방학, 교무 조교 박준서(베이스)와 이지연(드럼)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밴드는 현재 5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타(박진우), 드럼(이지연), 베이스(박준서), 건반(배누리), 보컬(김정섭)이 모여 음악으로 협업의 가치를 실현하며 즐거운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 밴드라는 공동체 안에서 '음악적 로망'을 실현하고 있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엔트로포세

Enthropocene

- 안녕하세요, 동아리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지연(드럼) 안녕하세요, 엔트로포세(Enthropocene)입니다. 동아리 이름의 뜻은 Anthropocene(인류세)의 앞 글자 a를 e로 바꾼 environment + anthropocene 합성어로, 환경대학원의 정체성을 담으려고 했어요. 구성원은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보컬로 이루어진 5인 체제인데, 포지션별로 한 명씩 있어요. 동아리의 목적은 음악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협업의 가치를 배우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목표예요. 평소 음악을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서(베이스) 재미있는 점은 멤버 대부분이 조교, RA, TA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권력형 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웃음) 전공도 다양해요. 도시계획, 환경관리, 교통학 등 학과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학문적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지연(드럼) 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합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내 '버들골 풍산마당'에 있는 밴드 연습실에서 모이고 있어요. 시설을 사용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박진우(기타) 합주를 마치고 멤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져요. 관심 있는 연구 주제나, 최근 환경 관련된 이슈처럼 학술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환경대학원이 추구하는 화합, 융복합 같은 가치도 이 동아리 안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동아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지연(드럼) 처음 밴드 포스터를 만들고 부원을 모집했을 때, 지원자가 몰릴 줄 알고 오디션까지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죠. 지금

도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박준서(베이스) 저도 원래는 매니저를 할 생각이었는데, 부원이 부족해 베이스를 맡게 됐어요. 특별히 악기를 다루본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악보를 볼 줄 몰라도 문제 없어요. 다만, 연습에 성실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자세가 중요해요.

- 밴드는 악기 간의 합이 중요할 텐데, 합주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

김정섭(보컬) 저희가 성장형 밴드잖아요, 한 곡을 여러 번 할 때마다 성장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합이 맞았을 때 오는 전율, 그런 게 있어요.

배누리(피아노) 대학원 공부, 논문, 보고서 이런 게 다 텍스트 기반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음악은 자체가 비언어적이고, 합주할 때 서로의 눈빛, 호흡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감동을 느껴요.

이지연(드럼) 저는 개인주의, '나만 잘하면 되지'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밴드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 동아리 활동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배누리(피아노) 피아노는 원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악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밴드라는 건 다 함께 한 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실수해도 괜찮아, 다른 멤버들이 도와줄 거야”하고 더 편하게 연주하는 자세가 생겼고요, 이런 자세가 또 연구하는 관점이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지연(드럼) 드럼을 칠 때는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쾌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증간소음처럼 소리에도 예민하고요. 드럼을 칠 때만큼은 어떤 속박들, 학업이나 고민에 대한 속박을 벗어나서 해방감을 느껴요.

김정섭(보컬) 저는 한두 시간 정도 연습을 하면 정말 모든 걸 쏟아내서 더 이상 목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 곡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밴드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이 있나요?

박진우(기타) 각자 하고 싶은 곡을 보내고 난이도와 악보 여부를 생각해서 곡을 선정합니다.

김정섭(보컬) 인디밴드부터, 해외록, 아이돌 밴드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지연(드럼) 굳이 말하자면 ‘모던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비메탈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편입니다.

- 향후 동아리 활동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이지연(드럼) 내년 2월에 작은 공연을 계획하고 있어요. 공연 준비를 통해 모두가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어요. 새로운 부원들이 계속 들어와 활동이 지속되면 좋겠고, 환경대학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4.1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2024학년도 2학기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9월, 환경논총 74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Urban Data Analysis'을 주제로 구성되었고, 목차는 다음과 같다.
 - Chapter 1. Urban Data Analysis
 - 01. 생활인구의 개념과 활용 트렌드 : 환경대학원 이제승 교수, 윤소영·문재식 학생
 - 02. 모바일 통신 데이터 기반 도시 이동성 분석 : 한국교통연구원 조범철 선임연구위원
 - 03. Supervised machine learning in urban data analytics
: 환경대학원 Steven Jige Quan 교수
 - Chapter 2.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토론노트
 - Chapter 3. 환경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 01. 박사학위 논문 요지
 - 02. 석사학위 논문 목록

-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지난 8월 28일, '스마트 모빌리티와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도시혁신·모빌리티 센터에서 심포지움을 주최하였다.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모빌리티 혁신 그리고 추진전략';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선영 본부장,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사례; 현대자동차 김수영 상무', '미래모빌리티의 사회·공간적 영향 고찰: 자동화 & 공유화 불확실성; Xi'an Jiaotong-Liverpool University 교수'의 다양한 주제발표와 심도깊은 토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 환경계획연구소 주최, 한국환경연구원·수원시정연구원의 주관으로 지난 9월 5일~7일, 'Nature Positive City and OECM Case Studies'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자연친화도시와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실현을 위한 생물다양성 연구와 OECM(지역 내 생물다양성의 효과적인 보전을 제공하는 관리지역) 추진활동에 대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추진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9월 6일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는 일본과 타이완의 OECM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치노세 토모히로 일본 게이오대학교 환경정보대학 학장, 류 다우지에 대만 국립타이완대학교 산림자연자원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타나카 토시노리 일본 규슈대학 교수, 우시오 마사유키 홍콩과학기술대학 해양과학학과 교수가 각각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접근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송영근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손승우 박사,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허학영 박사,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 박사가 참석해 국내에서의 자연친화도시 및 OECM도입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상반기에 2건의 콜로퀴움을 BK-21과 연계해 지원하였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주 제: Exploring Socio-Economic Outcomes of Urban Renewal through Quasi-Experiments

강연자: Dr. Longfeng Wu / Peking University

- 주 제: Urban Intelligence Towards Techno-Humanistic City Planning

강연자: Prof. Yuan Lai/TsinghuaUniversity

4.2

환경계획연구소 과제 현황 (2024.7.- 12.)

N	과제명	연구책임자	발주(지원)기관
1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도시 시스템 회복을 위한 지능형 거버넌스 연구: 한-일 양국의 국제비교 및 상호학습 접근	김태형	서울대학교
2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자본과 주택시장과의 관계 연구	홍현도	교육부
3	고속도로 리모델링 추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장수은	한국도로공사
4	지하물류시스템의 개념적 정의 및 운영 시나리오 도출 연구	허성호	민간기관
5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개선 연구 (II)	우정현	환경부
6	국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사례 분석	김도희	민간기관
7	국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사례 분석	박은희	민간기관
8	도시공원 계획설계 및 운영관리 혁신모델 개발연구 (3차년도)	조경진	민간기관
9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A.I. 기반 예측모델 및 완화적 계획 연구	김다현	교육부
10	노후 산업단지의 열적 쾌적성 개선을 위한 공간 모델 개발	장국화	교육부
11	인공지능 기반 구름-강우 모델링을 활용한 글로벌 극한 강수 예측	최경옥	교육부
12	인구 변화와 합계출산율의 지역 불균형에 관한 연구: 출산 경험과 의미에 대한 심층 이해	이휘정	교육부
13	전체론적 접근을 통한 도시성장 모델 연구: 지리적 분열을 넘어서 확장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윤소영	교육부
14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기후·환경 영향요인 분석 연구	류호재	교육부

N	과제명	연구책임자	발주(지원)기관
15	해운과 항만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 효과성 분석	김순영	교육부
16	리포트 발행을 위한 셔클 서비스 지역별 case study 분석 용역	김태형	민간기관
17	글로벌화 된 경쟁국가의 이주 관리 레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사례로	장근용	교육부
18	기후변화가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 아동 전동휠체어 GPS 데이터를 활용한 이동성 분석	이성규	교육부
19	콩고민주공화국의 도로 확장 프로젝트의 정치경제지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접근과 정책적 시사점	배누리	교육부
20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다차원적 도시 밀도 관리 모델 연구	문지훈	교육부
21	조선시대 관영 원림 연구: 전국 지리지의 종합 분석과 유형별 사례 검토	임한솔	교육부
22	개발도상국 사회자본 형성 과정 탐색: '르완다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김고운	교육부
23	[교육] 2024 KDB-SNU 녹색금융과정 개발 및 교육운영	김부열	민간기관
24	한국형 물 문화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송재민	케이워터 운영관리(주)
25	우리나라 탄소중립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식생 영향의 통합평가	우정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6	선진 숲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공간 설계에 관한 연구	손용훈	민간기관
27	지역별 교통안전도 진단지표 조사 측정 용역 계약 요청	한상진	경찰청
28	공영주차장 활용 김천혁신도시 카고바이크 택배배송사업 ESG 효과분석 연구용역	허성호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29	호남권 일반국도 안전성 평가 및 타당성 검토용역	한상진	익산지방 국도관리청
30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간 협업 및 특성화 방안	김태형	서울대학교
31	ESG를 통한 민·관협력방안 연구용역 (백곡천 자연환경복원사업)	송영근	지방자치단체
32	도시 기후불평등 대응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송재민	국민통합위원회
33	위성을 활용한 온실가스 모니터링 및 환경 기술 관련 자문	정수종	민간기관

5.

교수동정

The 28th Pacific Conference of the RSAI (PRSCO 2024)

4-7 August, 2024 Daegu, South Korea



Co-Host 대구경제연구원 (DUEI) 한국환경연구원 Organizer EXCO KRWIS RE3 KICT LH Supported by HRP EXCO HD capcity

The 28th
Pacific Conference
of the RSAI

August 4(Sun) - 7(Wed), 2024
EXCO (Daegu,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Daegu, South Korea



Ja-Amin Park (Ja-Amin Park) Young-Boon Reigh (Young-Boon Reigh) Gil-Heon Park (Gil-Heon Park) Yang Iwa (Yang Iwa)

5.1

환경계획학과 교수동정

● 박인권 교수

● 1. 산-학-관-연 네트워크 활동

박인권 교수는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청 '더불어 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관악구 구정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관악구청장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시민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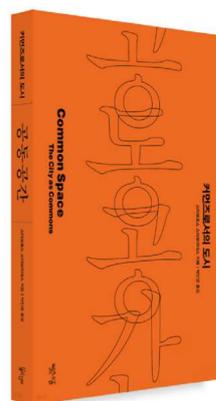
박인권 교수는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가친화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여가친화도시 선정, 인증기관 선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인권교수는 2024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대학혁신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및 국공립대 협력 과제 발굴, 혁신과제 발굴, 정책개발 기초자료 제동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과제는 구체적으로 학생중단조사사업,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이 계획·진행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인재가 되도록 지원체계를 만드는 과제이다.



● 2. 저술 활동 (출간, 번역)

박인권 교수는 스타브로스 스타브리데스(Stavros Stavrides)의 2016년작 『Common Space: The City as Commons』을 번역하여 국내에 『공동공간: 커먼즈로서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2024년 8월 출간하였다. 『공동공간』은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에 대한 종합 이론서이자, 풍부한 실천 사례를 함께 소개하는 입문서이다. 사회주택의 건설, 도시의 거리와 광장의 전유, 해방된 공간, 그래피티와 예술적 공유 등 실험들을 도시 커먼즈 이론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도시 커먼즈 운동의 의의와 가능성을 살핀다.



● 3. 연구 활동

박인권 교수는 2024년 8월부터 국제지역과학협회 태평양지구(Pacific Regional Science Conference Organization: PRSCO)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한국 대구광역시에서 'The 28th Pacific Conference of the RSAI (PRSCO 2024)'를 개최하였다.



박인권 교수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IJUS)'의 부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민주(제주연구원) 박사 및 강민규(서울시립대) 교수와 함께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4권 제3호에 'The Less You Earn, the More You Spend on Commuting? Sifting out Inequity in Mobility from Regional Factors'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서울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지역 수준 변수를 고려하여 통근시간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직주불일치 가설은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 제한을 설명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시화와 재개발로 인해 일자리 중심지와 저소득층 거주지가 혼재된 지역이 있다. 분석 결과, 통근시간은 개인 특성과 통근 목적지 지역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었고 특히 통근 목적지의 지역 특성이 통근시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는 교통 및 공간 구조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오다원(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박사과정),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21년 7월 'Unveiling the Factors Shaping Urban Parks' as COVID-19 Shelters: Exploring Mobile Phone Data Using Machine Learning' 연구를 수행하였다.

10월부터는 서울대, LH토지주택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경상대, 서울시립대 등의 연구진과 함께 『지방소멸과 복잡계로서의 국토』라는 주제로 융복합 집담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 4. 해외학자 콜로키움

박인권 교수는 Open University의 Peter Nijkamp 교수를 초청하여 2024년 7월 31일 환경대학원에서 "Resilience and regions: different regions, different dynamics and different policies"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Peter Nijkamp 교수는 Open University의 senior research fellow이자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의 지역 및 도시 경제 및 경제 지리학 명예 교수로, RePEc 기준 전 세계 경제학자 상위 20위 안에 선정되었다. 도시가 재난과 재해 등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에 지역의 경제적 자본과 생태적 자원, 기술적 제도, 지리적 기반시설, 사회적 구조가 영향을 받는 것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해외학자 콜로키움



박인권 교수는 Open University의 Karima Kourtit 교수를 초청하여 2024년 7월 31일 환경대학원에서 “Wellbeing and city love at neighbourhood level”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Karima Kourtit 교수는 Open University 경영과학부 교수이자 CAROU(Center for Actionable Research)의 스마트 시티 및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연구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강의는 도시의 매력과 사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감정적 유대감과 자부심, 지역사회 참여와 소속감, 사회적 연결을 제시하였다.

오도영 교수

- 오도영 교수는 2024년 7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RC21 학회에 참석하여 두 개의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같은 달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된 ICAS 13 학회에서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 함께 세션을 조직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2024년 11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7회 Asian Planning School Association Congress의 특별세션의 토론자로 초대되어 학회에 참석하였으며, 공간환경학회 2024년 추계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김신혁(박사과정), 송윤지(석사과정)와 논문 2편을 발표하였다.

우정헌 교수

- 우정헌 교수는 올 하반기 UN ESCAP 동북아시아 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의 한국대표위원이자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동북아시아 대기환경 정책분석보고서(Policy Analysis Report)’를 심의·채택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총괄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연구(글로벌 기후변화-대기오염 원인물질 통합관리 모델링 시스템)의 결과를 공유하는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



UN ESCAP 청정대기파트너십

에는 약 1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와 국가-지자체 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성공적으로 공유했으며, 연구 협력 기관인 오스트리아 소재 국제기구 IIASA와 서울대학교 간의 MoU 체결로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12월에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7 IPCC Methodology Report on Inventories for Short-lived Climate Forcers 보고서 주저자로 선정되어, 향후 2년반 동안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연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 국제 워크숍

● **윤순진 교수 / 환경대학원장**

- 윤순진 교수는 국제전문학술지(SSCI)인 Environmental Sociology, Energy Policy에 논문 2편(교신저자 2)을 발표하였고 국내전문학술지(KCI)인 공간과 사회, 언어학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환경정책, 통일과 평화, 풍력에너지저널, NGO연구, 에너지기후변화교육에 논문 8편(제1저자 4, 교신저자 8)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도학생들과 함께 한국환경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교신 6), 아일랜드 골웨이에서 열린 XXV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교신), 뉴욕에서 열린 2024 NECoPA Fall Research Conference(교신), 워싱턴에서 개최된 53rd ANNUAL ARNOVA CONFERENCE(참여 1), 타이페이에서 열린 8th Annual ARNOVA-Asia Conference(교신), 시애틀에서 열린 Public Management Research Conference 2024(교신), 시체스에서 개최된 Urban Transitions 2024(교신 5, 제1저자 1) 등의 학술대회에서 여러 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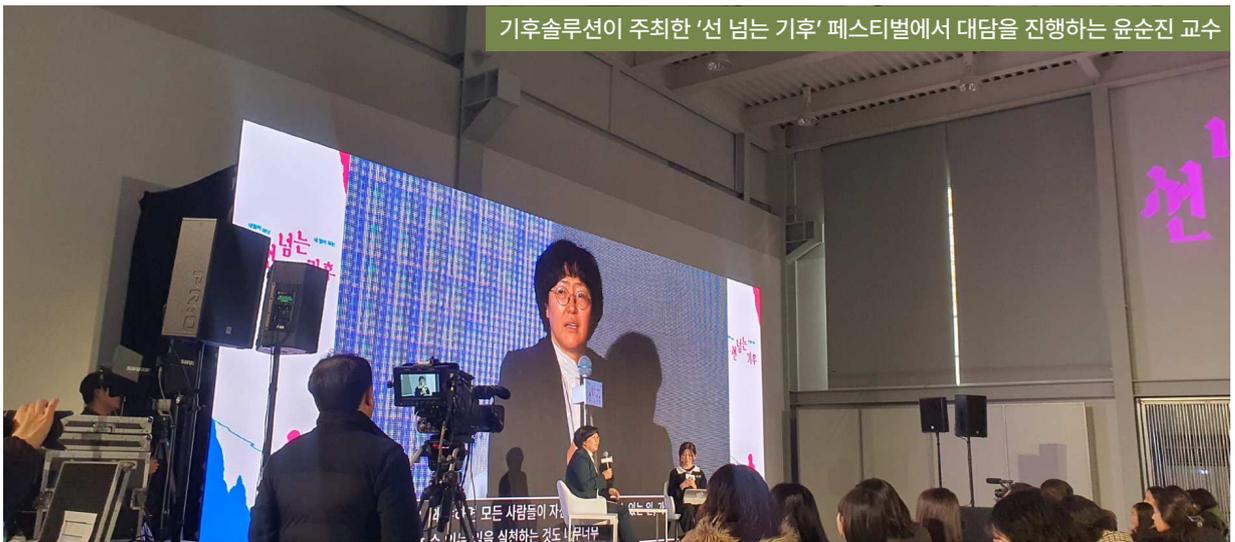


스페인 세미나



COP29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의 윤순진 교수

- 외부기관 초청을 통한 대외활동으로는 좌장, 강의, 대담, 발제, 발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주최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나? 국회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고 김원아·김정호·이원택·허종식·김소희·서왕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해상풍력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국회 기후위기탈탄소 경제포럼 주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수소환원제철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사랑의 열매가 주최한 '기업사회공헌 컨퍼런스-함께 만드는 변화'에서 '환경'을 주제로, 서울시의회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공동주최한 '2024 서울 ESG 동행 플러스 페어'에서 '2050 탄소중립과 ESG'를, 경기도 광명시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기후 대응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경기도 시흥시가 '시흥시 스마트허브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한 'ESG를 말하다'와 해수부-해양환경공단 공동주최 행사인 '2024년 "해양환경 지식나눔"'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ESG'와 '탄소중립(해상풍력)'을 주제로 각각 강의하였다. 기후솔루션이 주최한 '선 넘는 기후' 페스티벌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환경대학원 원장으로 초대되어,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기후솔루션이 주최한 '선 넘는 기후' 페스티벌에서 대담을 진행하는 윤순진 교수

이효중 교수

- 이효중 교수는 2024년 11월 8일 University of Washington at Seattle의 Center for Studies in Demography and Ecology에서 "Some Overlooked Stories: Gentrification in Small Metros and Suburbs"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2024년 11월 9일에는 ACSP 학회에서 "The Impact of Upzoning Initiatives on Nearby Housing Sales Prices in New York City"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2024년 11월 29일에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참석해 라운드테이블 "부동산학 역사 30년, 미래 30년"에서 부동산학이 추구할 향후 과제를 논의 하였다. 2024년 12월 6일에는 한국주택학회에 참석해 신진학자 세션 "주택연구의 국내외 동향과 주택학자의 역할"에서 최신 연구 성과를 동료 연구자와 공유하였다. 2024년 12월 13일에는 한국이민학회에서 "한국 내 외국인의 지리적 분포: 외국인의 주거 분리와 지리 수준별 분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 정현주 교수 / 환경계획학과장

● 정현주 교수는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장으로서 서울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 및 인천 국제미디어컨퍼런스에 좌장 및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2024 한국이민학회를 환경대학원에서 개최하면서 '이민연구의 공간적 전환'이라는 기조세션 발표를 했다. KBS 시사기획 창 의 이민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두 편의 방송(476회, 486회) 제작을 자문하고 직접 출연하여 도시연구자로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부터 역임하고 있는 서울대 여성연구소 소장으로서 한국여성학회를 국제학술대회로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여 '포스트휴먼 시대, 페미니즘의 물질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와 과학기술 변화, 혐오와 불평등 확대에 따른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공론장을 마련했다.



KBS 시사기획 창 476 "니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출연 (8.20 방영)



KBS 시사기획 창 486 "완벽한 이민은 없다" 출연 (11.26 방영)

● 한상진 교수 / 환경계획연구소 부소장

● 한상진 교수는 6월 22일~29일 기간에 미국 Orland에서 개최되었던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nd International Roadside Safety Conference에 참가하여 'Before and After studies on Crash Reduction Effect of Color Guidance Markings'의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Portland시를 방문하여 도심 보행환경과 자전거 이용환경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 한상진 교수의 교통안전공학연구실에서는 9월 26일 ~ 27일에 있었던 대한교통학회 제91회 학술발표회에 참석하였다. 한상진 교수는 '교통안전연구 우수논문 발표 및 소개' 기관세션에서 좌장으로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고위험군 운전자 운전면허관리 개선방안' 기관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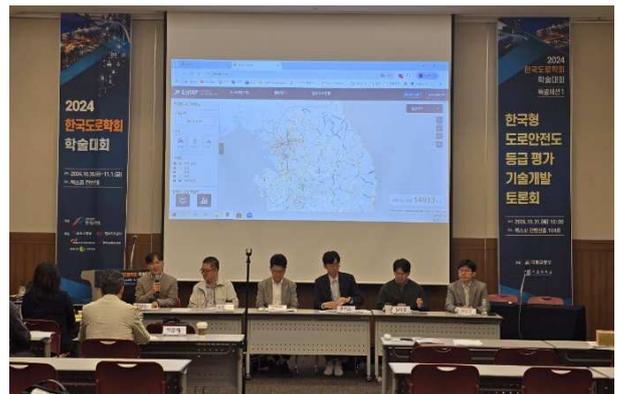
김혜원 박사과정 - '지자체 도로교통 안전관리체계 효율성 변화 분석: 2015-2019년'(우수논문상 수상)

임진섭 박사과정 - '지방부 고속도로와 도심 고속도로에 설치된 노면색깔유도선의 사고 발생 및 사고 심각도 감소 효과 비교분석'

양태양 박사과정 - 'CART를 이용한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보행 사망사고 영향 요인 분석'



- 한상진 교수는 10월31일 제24회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의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 평가 기술개발' 기관세션의 좌장 및 연구 책임자로 참석하였다. 한국형 도로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의 소개와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으며, 정·관·학계의 전문가와 기술개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한상진 교수는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에 맞춰 '달리고, 조심해!'라는 동화책을 출간하였다. 어른들은 단순히 횡단 보도에서 뛰지 말라 이르지만 정작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에서 뛰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지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 한상진 교수는 대한교통학회지 42권 4호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감소 효과'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경찰청과 함께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논문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통안전연구 43권 1호에는 '평면교차로 내 노면색갈유도선의 사고감소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노면색갈유도선은 2011년 고속도로 구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분기점 및 평면교차로에서 운전자에게 명확한 주행 경로를 제공하고, 차량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여 안전 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이다. 논문에서는 일반도로 평면교차로에 설치된 색갈노면유도선의 사고감소 효과를 사전·사후 비교법 및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함유근 교수

- 함유근 교수는 10월 14-15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 변화 연구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해당 심포지엄은 함유근 교수를 포함한 국내외 7명의 전문가가 초빙되었으며 약 180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성료되었다. 또한, 함유근 교수는 10월 24-25일 열린 2024 경기 글로벌 대전환 포럼에 초청되어 AI 기반 기후 연구를 주제로 기조 발표하였다. 11월 7-9일 열린 한-중-일 기후시스템학회에 초청되어 인공지능 기반 전지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하였다. 함유근 교수는 2024년 7월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리더연구(과제명: 딥러닝기반 통합모델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 총 9년간 616억 지원)에 선정되었다.



경기 글로벌 대전환 포럼에서 발표하는 함유근 교수

● 허성호 교수

- 허성호 교수는 7월9일 개최된 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에서 “물류 서비스 디지털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9월 5일 개최된 “2024 스마트 그린물류 혁신포럼”에 패널토론으로 참여하였으며, 11월 22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 기념 물류정책 콘퍼런스”에 토론으로 참여하였다. 경상북도 테크노파크와 함께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카고바이크 택배배송사업 ESG효과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서울시 물류네트워크 재구성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 1편을 Research in Transportation Business & Management (SCIE)에, 도심내 주문배송시설 입지연구 1편과 드론&로봇 배송 관련 연구 1편을 각각 물류과학기술연구(KCI) 및 로지스틱스연구(KCI)에 게재하였다.

● 홍종호 교수

- 홍종호 교수는 2024년 7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 CBS “홍종호의 기후로운 경제생활”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 문제를 접목한 전문 프로그램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심도 있는 분석과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5.2

환경설계학과 교수동정

● 김세훈 교수 / 학생부원장

- 김세훈 교수는 경주시 양남면 일대 195만평에 이르는 코오롱 마우나오션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9월에는 구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MP로서 18명의 학생들과 갤러리 구루지에서 <미래도시 구로>를 주제로 전시와 연구자 토크를 4일에 걸쳐 진행했다. 다문화, N차산업, 일자리, 철도지하화, 도시정비, 라이프스타일 등을 주제로 연구를 했고 우수 작품에 대한 구로구청장의 수상도 있었다. 김 교수는 서울도시건축학교 초청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에서 “SI와 미래도시”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했고, 올 하반기에는 김다현, 이승현, 문지훈 박사생 등과 세 편의 SCI급 저널 논문을 출판했다.



● 조경진 교수

- 조경진 교수는 9월 16일 콜롬비아 메디슨 ITM대학교에서 '서울의 공공공간'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9월 17일 메디슨 교육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스마트 정원 도시' 주제로 세션 발표를 하였다. 이 박람회는 '교육은 (불)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기후변화, 스마트 도시, 문화와 교육을 주제로 3일간 진행되었다. 조교수는 10월 14일 '인천 공원페스타 컨퍼런스: 공원도시 인천의 미래를 그리다'에서 '도시공원계획의 변천과 인천시의 과제'라는 기초연설을 하였고, 11월 13일 문화도시 영등포, 수변문화포럼 '미래 수변 10년 상상'에서 '시민문화형성으로서 도시수변과 정원문화'라는 주제로 기초발표를 하였다. 11월 23일에는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41기 해외답사



41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에서는 “도시와 자연의 빛과 그림자 -몽골 울란바토르, 테를지국립공원”를 주제로 7월 19일(금)~22일(월), 3박4일 일정으로 해외답사를 다녀왔다. 윤순진 환경대학원장, 우정현 주임교수, 정현주 부주임교수, 홍종호 교수, 박인권 교수, 손용훈 교수와 41기 펠로우 등 15명, 39기 펠로우 2명 등 25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인천(08:10) ▶ 울란바토르(10:50)

첫째날 19(금)

- 간단사원 (라마불교 대표사원)
- 수흐바타르 광장 - 징기스칸 박물관

● 한-몽 우호의 숲 (울란바토르 도시숲)

둘째날 20(토)

- 자이승 전망대
-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 몽골 마지막 왕 복드의 겨울궁전
- 몽골 전통 민속공연 관람

● 칭기스칸 마상 동상

셋째날 21(일)

- 테를지 국립공원
- 한-몽 참여숲 사업지 방문, 몽골올레길(3코스), 어워(성황당), 거북바위

넷째날 22(월)

- 테를지 열트산 트레킹, 공항으로 출발(09:00)
- 울란바토르(13:00) ▶ 인천(17:10) 도착



● 41기 수료식

제41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의 수료식이 11월 28일 (목)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 목련룸에서 개최되었다. 윤순진 환경대학원장, 문길주 고위과정(SGS) 동창회 수석부회장, 우정현 주임교수, 정현주 부주임교수 등 원내 교수님 10여명이 참석하여 41기의 수료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다.

박은기, 하태현, 장준태 펠로우는 모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41기 수료생들은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해외 학술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발전기금 500만원을 윤순진 원장께 전달하였다.

41기 과정은 3월 14일(목) 출범하여, 전·후반기 총 20주 동안 도시, 건축, 조경,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 등 관련된 32세션의 강의, 펠로우 플랫폼(팀별 과제 수행 및 발표) 4세션, 국내답사, 해외답사가 진행되었다. 41기에 진행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차 (3/21)	1.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 현황, 전망, 과제 (윤순진 원장 / 환경대학원) 2. 도전과 실패, 성공과 좌절 아름다움 (김명중 사진작가)
국내답사 (3/29-30)	지역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문화의 힘 (부여 자운길 : 전통공예문화마을)
2주차 (4/4)	3. 일본 부동산개발 사업의 민관협력 사례 (김정빈 교수 / 서울시립대) 4. 과학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중립 (송철한 교수/광주과기원)
3주차 (4/11)	5. 이제석의 만들지 않고 만들기 -창의적인 녹색 캠페인 케이스 스터디 (이제석 대표 / 이제석광고연구소)
4주차 (4/18)	펠로우 플랫폼 1,2 (조편성, 주제선정 발표)
5주차 (4/25)	6. 공정한 보상 (신재용 교수 / 서울대 경영대학) 7. 로컬 브랜딩과 콘텐츠 타운 (모종린 교수 / 연세대학교)
6주차 (5/2)	8. 지역문제와 소셜벤처 (도현명 대표 / 임팩트스퀘어) 9. 뉴노멀시대, 도시와 삶의 변화 (김세훈 교수 / 환경대학원)

7주차 (5/9)	10. 공원의 미래 (조경진 교수 / 환경대학원) 11.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전미영 연구위원 / 트렌드코리아)
8주차 (5/16)	12.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 (승효상 건축가)
9주차 (5/23)	13. 공간으로 읽는 한국, 한국인 (서현 교수 / 서울대 건축학과) 14. 사는 곳이 능력을 결정하는 시대 (마강래 교수 / 중앙대학교).
10주차 (5/30)	펠로우 플랫폼 3,4 (조별 결과 발표)
해외답사 (7/19-22)	“도시와 자연의 빛과 그림자 : 몽골”
11주차 (9/5)	15. ESG 경영의 과거 현재 미래 2.0 (나석권 원장 / 사회적가치연구원) 1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황과 전망 (이문영 교수 / 통일·평화연구원)
12주차 (9/12)	17.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박록진 교수 / 지구환경과학부) 18. Toward Inclusive AI (오혜연 교수 / KAIST)
13주차 (9/19)	19. 도시에서의 정의와 포용의 문제 (박인권 교수 / 환경대학원) 20. 한국의 다문화전환과 이주민의 공간 (정현주 교수 / 환경대학원)
14주차 (9/26)	21.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성공전략 (홍종호 교수 / 환경대학원)
15주차 (10/10)	22. 자동차와 공존하는 보행도시 만들기 (한상진 교수 / 환경대학원) 23. 미래 도시 모빌리티의 이해 (허성호 교수 / 환경대학원)
16주차 (10/17)	24.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활용을 통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제안 (이제승 교수 / 환경대학원) 25. SDG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김부열 교수 / 환경대학원)
17주차 (10/24)	26. 딥러닝을 활용한 기후환경 변화 예측 (함유근 교수 / 환경대학원) 27. 부동산트렌드 2025 (김경민 교수 / 환경대학원)
18주차 (10/31)	28.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대기 : 정지궤도 환경위성 (김준 교수 / 연세대)
19주차 (11/7)	29. 폐기물의 순환경제, 미래 도시의 새로운 문명 (김정빈 대표 / 수퍼빈) 30.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과 농촌 발전전략 (임경수 이사장 / 협동조합 이장)
20주차 (11/14)	31. 우리나라 정부의 기후환경정책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 / 환경부) 32. 기후변화와 대기환경의 통합관리 (우정현 교수 / 환경대학원)

41기 수료생 34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은별(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김기호(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보라(☎제이비조경 이사),
 김안나(☎한얼환경산업 이사), 김영희(수원특례시 기후에너지과장), 나은경(정림건축 BU대표),
 민동희(☎KH-TECH 이사), 박은기(zeroflow Growth Analyst), 박정임(라프미디어 대표),
 박희연(아티스트 빠키), 배정현(☎장인건설중기 대표이사), 서지연(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
 선주현(크립톤X 파트너), 손원석(비오프갤러리 팀장), 손한결(다다오프로젝트 대표이사),
 송두희(서울한영대학교 교수), 송희열(☎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양현일(우리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여장권(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오대민(☎이엔아이씨티 기술연구소장), 우연수(☎미래하이텍 대표이사),
 유수복(그룹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유영권(환경공단 단장), 이근우(경북대학 건설교육원 부원장),
 이수현(이마히나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은호(현대리바트 아트랩실장), 이지희(플랜디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철훈(케이프투자증권 부사장), 장준태(법무법인 울호 변호사), 조윤아(SKOn PM), 하태현(한국전력 부장),
 허혜정(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홍기환(☎트리플조경 대표이사), 홍승희(운현하늘빌딩 총무이사)



7.

ESG 전문가과정



▶ ESG 전문가과정

● 제4기 출범식

지난 9월 20일(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층 목련룸에서 제4기 ESG 전문가과정의 출범식이 있었다. 출범식에는 윤순진 환경대학원장, 정순표 한스경제 대표, 전의찬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을 비롯한 원내 교수 및 선배 펠로우들이 함께 참석해 4기의 출범을 축하했다. 4기 과정에는 ESG 경영 분야의 전문가 41명이 참여하며, 12월 27일(금)까지 15주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일정

1주차 (9/20)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
2주차 (9/27)	1.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과 ESG (윤순진 원장 / 환경대학원) 펠로우 플랫폼 출범 및 조별 활동
3주차 (10/4~5)	2. 국내답사: 연천군 (ESG 정책 사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접경지역 답사 등)
4주차 (10/11)	3. 기후위기 시대의 ESG 혁신과 한국경제 (홍종호 교수 / 환경대학원)
5주차 (10/18)	4. 기후위기와 바다에서 찾는 공존의 지혜 (남성현 교수/지구환경과학부) 5. Global Climate Trend: 지금 세계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정수중 교수/환경대학원)
6주차 (10/25)	6. 회계와 지속가능경영 (황인이 교수 / 서울대 경영대학) 7. ESG가 투자자 및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이우종 교수 / 서울대 경영대학)
7주차 (11/1)	8. 생물다양성과 ESG, TNFD를 중심으로 (윤종수 고문 / 김앤장) 9.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 (김부열 교수 / 환경대학원)
8주차 (11/8)	10. 탄소중립(Net-zero) 및 EU taxonomy (윤영창 파트너(삼일회계법인)) 11. ESG 공시기준 및 실무사례 (권미엽 파트너(삼일회계법인))
9주차 (11/15)	12. 부동산트렌드 2025 (김경민 교수 / 환경대학원) 1기, 2기, 3기와 함께 하는 네트워크 모임 (옥상정원)
10주차 (11/22)	13. 수원시 ESG 경영 사례 (이재준 시장 / 수원특례시) 14. SK하이닉스 ESG 경영사례 (조성봉 SK하이닉스 ESG 담당(부사장))
11주차 (11/29)	15. GH경기주택도시공사 ESG 경영사례 (김세용 사장 / GH경기주택도시공사) 16. LG이노텍 ESG 경영사례 (김동훈 책임(LG이노텍))
12주차 (12/6)	17. 국민연금의 ESG 인식과 사례 (원종현 상근전문위원 / 국민연금) 18. 신한금융그룹 ESG 전략 및 실행 (양민경 부부장 / 신한금융그룹)

13주차 (12/13)	19. ESG와 이사회 경영 (김화진 교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 한국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전망 (김우진 교수 / 서울대 경영대학)
14주차 (12/20)	21. 펠로우 플랫폼: ESG 경영사례 조별발표
15주차 (12/27)	수료식

4기 ESG 전문가과정 펠로우(41인) 명단

강신웅(디에이건축 대리), 권선형(한스경제 정치경제부 팀장), 김나영(환경부 교통환경과 전문위원), 김동수(SK하이닉스 TL), 김동욱(한국투자부동산신탁 변호사), 김민경(선영크리에이티브 본부장), 김민균(삼덕회계법인 회계사), 김성수(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연희(코칭경영원 협력코치), 김용욱(알피텍 부사장), 김정선(경부자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섭(코레이트자산운용 부장), 김지영(머크주식회사 사원), 류송영(유진투자증권 부장), 민형기(SK하이닉스 팀장), 박경량(GS리테일 ESG파트장), 박수찬(한화시스템 차장), 박옥근(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본부장), 박제형(아시아나항공 대리), 배정환(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파트장), 배준일(부산주공(주) 차장), 서지영(굿코칭 대표), 송준석(이노시아 부사장), 신광철(국민은행 역촌동지점 지점장), 심소연(인투그래픽 기획이사), 위광하(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관형(주식회사 오피스톡 대표이사), 이수연(주식회사 정록 대표이사), 이시영(포스코 차장), 이원희(삼일회계법인 Director), 정미혜(주식회사 씨도르그룹 대표이사), 정진섭(롯데칠성음료(주) 수석), 조동욱(한국이에스지데이터(주) 대표이사), 조숙경(지속가능한 그린치유연구소 부이사장), 조은비(주식회사 로드맵 대표이사), 주선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장), 최규용(현대엔지니어링 환경경영팀 팀장), 최자용(주식회사 해국판교 총괄인), 최준덕(지음컨설팅 대표), 허은서(주식회사 그루 대표이사), 황갑성(이지바이오팜 대표이사)





● 4기 ESG 전문가과정 국내답사

4기 ESG 전문가과정에서는 10월 4일(금) ~ 5일(토) 1박2일 일정으로 국내답사를 다녀왔다. 연천군청을 방문하여 ESG 관련 정책과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을 탐방하였다. 답사에는 윤순진 대학원장, 조경진 주임교수, 김부열 부주임교수와 4기 펠로우 32명이 참석하였다.



10월 4일(금)	
13:00	서울대 환경대학원 단체버스 출발
15:30	연천도서관 도착
15:30 ~ 16:00	[프로그램 1_연천군 ESG 정책 및 사례 소개] • 탄소중립지원센터 담당자
16:00 ~ 18:00	[프로그램 2_DMZ 탄소중립 마을(중면) 등 답사] • 태풍전망대 (휴전선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 DMZ 탄소중립마을 조망) • 임진강 댐사리 정원 (약 3만㎡ 규모에 2만2천여 그루의 댐사리와 백일홍, 천일홍, 메리골드, 코스모스 등을 심어 조성한 대규모 정원)
18:30 ~ 21:00	[숙소 체크인 / 식사(바비큐) / 친교시간] • 백학자유로리조트 • 김덕현 군수 환영인사
10월 5일(토)	
9:00	출발
9:30 ~ 11:30	[프로그램 3_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생태계 탐방] • 한탄강 주상절리길(백의리층→재인폭포)
11:40 ~	점심식사 (한탄강댐가든)
13:00 ~ 14:00	[프로그램 4_전곡선사박물관]
14:00 ~	서울로 출발



● 오픈특강 및 1,2,3,4기 교류행사

4기 ESG 전문가과정에서는 11월 15일 1,2,3기 선배펠로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특강을 개최하였다. 환경대학원 3층 글로벌홀에서 '부동산 트렌드 2025'을 주제로 김경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뒤이어 1층 커뮤니티홀에서 1,2,3,4기 교류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조경진 주임교수, 김부열 부주임교수, 김경민 교수와 1기 5명, 2기 10명, 3기 6명, 4기 33명의 펠로우가 함께했다.



8.

시민정원사



시민정원사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정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서울대에서는 '기본과정' 중 이론인 정원학 개론, 동양정원사, 서양정원사, 정원 설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본과정을 이수하면 심화과정을 위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서울대는 성종상 교수와 조경진 교수가 담당하는 이론 교육에서 정원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며, 현대 도시 환경에서 정원의 위상과 중요성을 인식, 재고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 교육은 정영선 소장, 조혜령 소장, 최재혁 소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 사례를 통한 학습, 현장학습, 디자인 실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은 일반 시민이 시민정원사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정원학 개론, 식물의 번식, 정원 식물 식재, 정원 설계 등 정원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올해는 서울시 구로구 푸른수목원에서 현장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매년 다양한 이론과 실습, 현장 학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동문소식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34

1.

동문동정



1.1 석·박사과정

● 변채호 교수 동문동정

국립안동대학교 생명과학과 변채호 교수(환경관리학과 05)가 2024년 4월 1일부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K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크랩(KLAB, 구독자 61만 명)에서 변채호 교수를 인터뷰했으며, 인터뷰는 그가 연구했던 핑크물리 온실실험에 관한 내용이었다. 17여 종의 자생식물과의 1:1 경쟁 실험 결과, 핑크물리가 자생식물들의 정착과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핑크물리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위한 생태계 교란종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생태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 SCIE 학술지 Ecosphere에 게재되어 신뢰성을 더했으며,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우려 대신 핑크물리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인다.

Byun, C. 2023. Competition between pink muhly grass and native plant species: Is it really a harmful invasive species? Ecosphere, 14 (7), Article e4561

<https://youtu.be/aqHZQTpRQKA> (유튜브에서 '핑크물리 크랩'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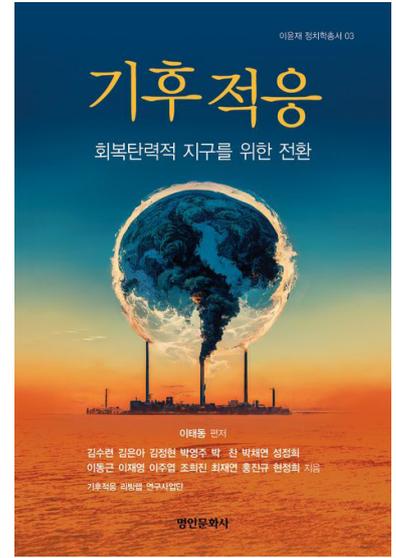
본 연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변채호 교수가 운영하는 식물생태학 연구실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 인터뷰에 대한 일문일답이 소개되어 있다.

<https://sites.google.com/site/anuplantecology>

● 이태동 동문동정

이태동 동문(환경계획학과 01)은 '기후적응: 회복탄력적 지구를 위한 전환' 편저서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학제간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중앙정부, 언론, 기업, 개인의 기후 적응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태동 교수가 연구책임으로 진행하는 환경부 신기후체제R&D 기후적응리빙랩 (66억, 2023-28)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이태동 동문(환경계획, 01)은 'Project Y: 전환적기후연구교육사업단' (4억, 2023-2025)의 연구책임을 맡아, 연세대학교 12개 학과 20명의 전임교원들과 함께 기후변화저감, 적응, 국제협력 Nexus 연구와 교육을 진행한다.



● 황영도 동문동정

환경설계학과 황영도 동문(환경조경학과 93)이 (사) 한국조경협회 대구경북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조·대·합·니·다

(사)한국조경협회 대구경북시도회
정기총회 및 제 6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리이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 ▶ 일시 : 2024. 12. 04 (수) 17:30 ~
- ▶ 장소 : MH컨벤션 6층 그랜드홀 (동대구로 418)
- ▶ 주요 행사 계획
 - 제 1부 : 이 사 회 (17:30 ~ 18:00)
 - 제 2부 : 정기총회 (18:00 ~ 18:30)
 - 제 3부 : 회장 이·취임식 (18:30 ~ 19:00)
 - 제 4부 : 만찬 (19: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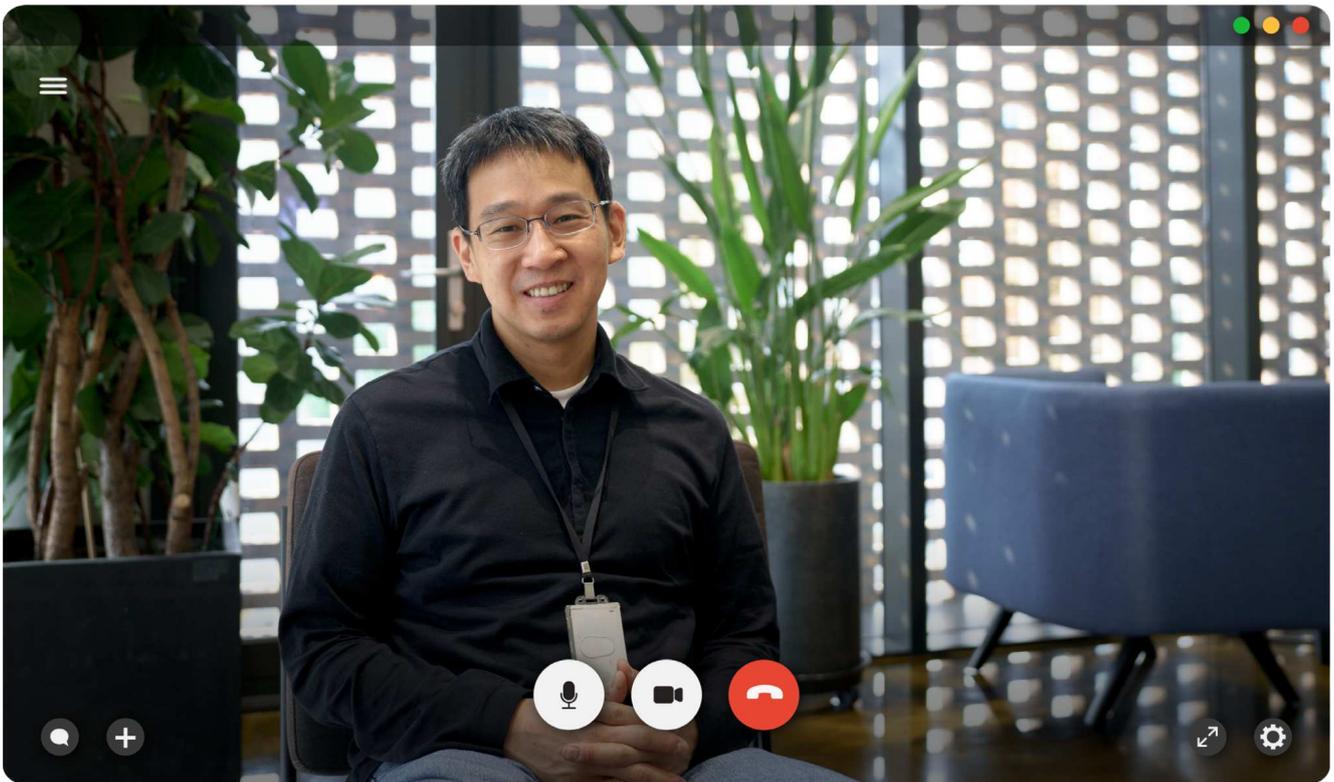
◎ 찾아오시는 길 ◎

2024년 11월
(사)한국조경협회 대구경북시도회 5대회장 노계신 배상
6대회장 황영도 배상

▶ 이어서 환경계획학과 김주진 동문의 동문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동문인터뷰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

환경대학원에서 저는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그때 만난 선후배들이 인생의 큰 자산이에요.

제 인생에서 아주 잘했던 선택 중에 하나가 환경대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

국내 환경운동을 이끄는 젊은 리더 중 한 명인 김주진 대표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외교학과 98), 환경대학원(환경계획학과 02)을 졸업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8년간 환경-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환경 비영리단체인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EDF)에서 인턴으로 활동했고, 조지타운대에서 환경법 석사를 졸업했다. 그는 2016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하여,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기후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대학원 입학은 언제 하셨어요?

2002년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 계획 전공으로 입학했어요. 그때 저는 인문계열 출신들은 다 도시계획 전공으로 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환경관리학 전공과 비슷하다는 걸 깨닫고서 전공을 바꿨어요. 그때가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여서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네 번을 휴학해서 4년 만에 졸업했어요. 모범적이진 않았죠. 그리고 제 마지막 학기에 윤순진 교수님께서 환경대학원에 부임하셔서 아마 제가 첫 논문지도 학생이었을 거예요.

환경대학원에 왜 진학하신 거예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학부 때 SAFE(Student's Action For the Earth)라는 서울대학교 환경 동아리를 만들었었죠. 환경 문제가 재미있어서 진로를 그쪽으로 잡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내 진로를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근데 환경 활동을 하는데 법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사법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림동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갔던 게 환경대학원이었어요.

20년 전엔 지금처럼 환경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환경 관련해서 어떤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생태계 보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새만금, 영월 동강, 생태계 자연의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같은 환경단체들이 막 꽃피우던 시절이었어요. 저도 그런 자연 보전 운동이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외교학과를 나왔으니까, 전공이랑 환경이 맞닿아 있는 게, 그 당시 국제적인 협상에서 많이 화두되었던 게 기후변화였죠. 교토의정서가 막 나왔을 때니까. 그런 이유에서 학부 전공이랑 연결해서 기후변화를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이게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문제더라고요.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게 아주 모든 곳에 걸쳐 있는 문제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졸업 후에 변호사로 김앤장에서 근무하시다가 2016년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하셨잖아요. 그때 기후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싶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대학교 다닐 때 환경 모임(SAFE)을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것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일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은 실력을 닦기 위해서 신림동에 가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고, 고시 공부를 꽤 오랫동안 해서 결국엔 운 좋게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죠. 변호사 됐을 때도 환경단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지만 (법률 관련) 기술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에 가서 일을 하면서 기업 대리를 해주었던 게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 와중에 COP(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도 한두 번 가면서 미국 환경단체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막연히 미국 환경단체가 어떤 곳인지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연차가 꽤 쌓이다 보니 회사에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때 미국 환경단체(환경보호기금, EDF)에서 인턴을 하면서 '아, 여긴 이런 곳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게 이 단체를 세우는 데 중요한 계기였죠.

김앤장에서 환경 관련한 사건들도 다루셨었나요?

제일 많이 했던 업무는 에너지 사업 관련이었는데, 처음에는 환경과 관련 없는 일들도 많이 했죠. 근데 알고 보니 환경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 산업 재해 건으로 한두 번 갔는데, 그때 사고 현장을 가서 보면서 '석유가스 산업이 이렇게 크구나. 10층 높이의 배를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석유가스 산업에는 있구나'하고 그 자본의 규모를 느낀 것 같아요. 또 금융기관을 사고파는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금융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획재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수출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서 어렵듯이 경험을 쌓았던 게 지금 와서는 기후금융 업무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봐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솔루션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셨어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업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미국 환경단체에서 배웠던 것 중 하나는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출신 대학이 전부 아니지만, 어떻게 환경단체에서 아이비리그 출신들, 변호사들을 모아놓았는지 놀라웠죠. 이런 사람들이 백악관으로 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 와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기후솔루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발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우리나라 가스 공급망의 온실가스, 산업 부문(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의 온실가스, 그리고 식량 농업이나 토지 이용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가 들어가는 산업에 들어가는 돈을 막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이걸 함에 있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하고, 국제 협력도 하고, 소송도 많이 하고요. 국회와의 공조도 많이 합니다. 요약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다배출원과 관련된 과학과 정책을 연구해서 이를 사회 곳곳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행동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가 아닌 기후솔루션 같은 환경단체에서 실무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돈 벌려고 있는 단체가 아니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우리가 만드는 유무형의 자산이거든요. 회사는 그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잘 파는 게 회사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잖아요. 우리는 핵심성과지표(KPI) 자체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회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고민이 많을 시기잖아요. 기후솔루션을 비롯해 환경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측면에서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나요?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진로 결정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죠.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사회 초년생 단계에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 게 대학원을 갓 졸업한 분들이 가진 특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이 크건 작건 간에 좋은 리더, 좋은 사람이 있는 조직에서 배울 게 많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조사를 하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떤 걸 조사해야 할까요?

온라인에 있는 우리 콘텐츠도 보고, 우리가 공개 행사도 꽤 많이 하니까 그런 데도 와서 보고, 환경대학원 출신 팀원들도 꽤 있으니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하면 좋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환경대학원에서 저는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일단은 사회 과학을 하는 학부를 다니다가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자양분이었고, 우리 학과(외교학) 출신 중에 환경대학원 온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그때 만난 선배들이 인생의 큰 자산이에요. 제 인생에서 아주 잘했던 선택 중에 하나가 환경대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99

1.2 도시환경최고위과정(SGS)

▶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SGS) 동창회 소식

● SGS 동창회 골프대회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동창회는 10월 21일(월) 이천실크밸리골프클럽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방기석 SGS동창회장, 문길주 수석부회장, 김헌수 사무총장과 동창회원 50여명이 참여하여 운동과 친교시간을 즐겼으며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승(신페이로)	27기 김정두(72점) / 前 합참 차장
메달리스트	27기 천기화(71타) / 한동알앤씨 회장
롱기스트	27기 양창모(276m)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상무
니어리스트	24기 전영성(2.6m) / 골든시티도성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 SGS 과정 / ESG 전문가과정 좌담회

10월 26일(토), 환경대학원 '모교 방문의 날'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동창회와 ESG 전문가과정 동창회는 좌담회를 갖고 동창회의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기별 자치회 및 Fellow 소식

● 20기 자치회

- 20기 자치회(회장 최상철/산업안전지도사, 사무총장 김대문 도시부문사장/하우드엔지니어링건축)는 12월 12일(목), 팔진향(방이점)에서 송년모임 및 총회를 가졌다. 이영인 前주임교수를 비롯한 펠로우 10여명이 참석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가졌다. 총회에서는 윤병천 회장과 나정옥 사무총장이 선출되어 모임을 이끌게 되었다.



● 26기 자치회

- 26기 자치회(회장 강경해/대성그린테크 부사장, 사무총장 최정주/스튜디오 대표)는 12월 10일(화) 삼성동 '백세주 마을'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 34기 자치회

- 34기 자치회(회장 양용택/前서울주택 도시공사 도시정비본부 본부장, 사무총장 한상원/ANU건축 이사)는 12월 2일 (월) 수서역 인근 '애란궁'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 39기 자치회

- 39기 자치회(회장 오세철/법무법인 가원, 사무총장 변종환/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10월 12일(토) ~ 13일(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부산 문화기행을 다녀왔다. 오세철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펠로우가 참여했으며, 국립 부산국악원 예술감독 복미경 펠로우(39기)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문화도시 영도 브랜딩 프로그램 등을 탐방하였다.



1.3 ESG 전문가과정

▶ ESG 전문가과정 기별 자치회 및 Fellow 소식

● 4기 자치회

- 4기 자치회(회장 정미혜/세이브더얼스 이사장, 사무총장 주선영/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차장)에서는 11월 21일(목) 서울 노을공원에서 노을공원시민모임의 '씨앗부터 기워서 천이숲 만들기'에 참여해 공원 내에 숲이 조성되기 어려운 지역에 참나무 종자와 나무를 심는 행사를 가졌다.





● ESG 전문가과정 온라인 소식 페이지 안내

- ESG 전문가과정의 홍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ESG 행복경제연구소에서는 ESG 전문가과정의 교육 소식, 펠로우 릴레이 인터뷰, 행사소식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ESG 행복경제연구소 링크: (http://www.happyesg.com/board/list?bd_id=ex_board07)

참고: 2024년 4기 과정에 진행된 펠로우 릴레이 인터뷰



ESG 전문가과정

11월 20일	정미혜 원우회장(세이브더얼스 이사장) “이론은 물론 실천력 겸비한 ESG 리더그룹으로 성장할 것”
12월 16일	주선영 펠로우(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차장) “입체적인 ESG 이해 계기... 지역 기업 변화 이끌고 싶어”
12월 17일	박수찬 펠로우(한화시스템 차장) “ESG, 사명이자 미래 투자”

2.

발전기금



탄소중립 도시·환경 기금 캠페인 ‘100년의 희망’

“내일의 환경이 오늘보다 빛나길...”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교육·연구를 선도해 온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년을 향해, 새로운 50년의 첫발을 내딛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당신의 기부로 응원해 주세요.



● 당신의 기부는 이렇게 쓰입니다.

탄소중립 교육·연구 환경 조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탄소중립 캠퍼스**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학생, 교수를 위한 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탄소중립 건물로 거듭날 환경대학원의 공간 마련을 위해 기금이 사용됩니다.

발전기금 장학금 지원

발전기금 장학금으로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더 몰두할 수 있습니다.

환경대학원의 국제화

발전기금 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 기부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특전이 부여됩니다.

- 기부액에 따른 명예

기부액에 따라 환경대학원 강의실
책상과 의자에 성함과 당부의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 환경대학원 주요 행사 초대

고액 기부자는 ‘환경인의 밤’에
초대하여 만남의 장을 마련해 드립니다.



- 원장 및 주요 보직자와의 만찬

환경대학원의 미래에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들을 만찬에 초대합니다.



기부는 상단 QR코드로도 가능하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 대외협력조교 02-880-5669 / gsesnews@snu.ac.kr

탄소중립 '100년의 희망' 캠페인 발전기금 현황 (24.12.30)

● 누계 : 83,444,070원

교직원 기부자

기부자	직급	기부금액(원)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김부열	부교수	10,000,000	지속가능발전의 시대, 우리에게 더좋은 세상이 필요합니다.
김경민	교수	10,000,000	당신의 작은 행동이 사회를 바꿉니다.
윤순진	환경대학원장	20,000,000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오늘 우리가 결정합니다. 지금 여기 나부터, 탄소중립!
소계		40,000,000	

동문 기부자

기부자	전공	기부금액(원)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박년배	환경관리학 석사 00, 박사 08	1,000,000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배움과 행동
문길주	SGS 36기	1,000,000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장 원	환경관리학 석사 84	10,000,000	환경대학원이 탄소중립의 선두에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방기석	SGS 14기	10,000,000	환경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이상훈	환경관리학 석사 93	2,000,000	지속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학문공동체로 빛나길 응원합니다.
하지훈	환경관리학 석사 20, 박사 22	1,000,000	탄소중립 시대를 열기 위한 배움과 실천, 그리고 나눔
양희경	ESG 3기	1,000,000	내 하루의 중심은 지구
류호재	환경관리학 석사 19, 박사 21	1,444,070	내리사랑
김 배	환경설계학 석사 03, 박사 06	1,000,000	함께 만들어가요, 환경대학원의 미래
이태성	환경관리학 박사 24	1,000,000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여기봉	환경관리학 석사 16	1,000,000	미래를 열어갈 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 탄소중립
전의찬	환경관리학 석사 85, 박사 88	10,000,000	
소계		40,444,070	

외부 기부자

기부자	소속	기부금액(원)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정순표	한스경제, ESG 행복경제연구소	3,000,000	기후경영이 곧 기업의 경쟁력
소계		3,000,000	

환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누적 기부자, 2010년 1월 1일 ~ 현재)

1. 후배사랑 건물증축 기금

구분	기부자
5천만 원 이상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윤세한(SGS8기, 21기)), 홍종호 (現 환경대학원 교수), (주)맥한상사
1천만 원 이상	故 최막중 (前 환경대학원 교수), 김광중 (前 환경대학원 교수), 김성수 (前 환경대학원 교수), 이희연 (前 환경대학원 교수), 이석정 (前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 (現 환경대학원 교수), 성종상 (現 환경대학원 교수), 조경진 (現 환경대학원 교수), 장수은 (現 환경대학원 교수), 이영인 (前 환경대학원 교수), 전상인 (現 환경대학원 교수), 이유미 (現 환경대학원 교수), 김세훈 (現 환경대학원 교수), 이동수 (現 환경대학원 교수), 손용훈 (現 환경대학원 교수), 이영성 (現 환경대학원 교수), 김경민 (現 환경대학원 교수), 오능환 (現 환경대학원 교수), 이제승 (現 환경대학원 교수), 김연명 (석사85), 아세아종합건설 (사장 박준석(SGS36기)), (주)지역활성화센터(대표이사 오형은(석사94)), 이승재 (석사88)· 이신해 (석사94·박사97)
500만 원 이상	김태형 (現 환경대학원 교수), 김부열 (現 환경대학원 교수), 이문구 (SGS20기), 한맥테크산업(주) (대표이사 임기주(SGS17기)), (주)지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박찬정(SGS16기)), (주)지비엠아이엔씨(대표이사 방기석(SGS14기))
100만 원 이상	정현주 (現 환경대학원 교수), 박인권 (現 환경대학원 교수), 정수중 (現 환경대학원 교수), 송영근 (現 환경대학원 교수), Quan Jige (現 환경대학원 교수), 송재민 (現 환경대학원 교수), 황기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대신이엔디 (대표이사 문길주(SGS36기)), 아트디자인센터 (상무 김상래(SGS36기)), 김광호 (SGS18기), 정혜진 (석사01·박사04), 강완모 (석사06·박사08), 이상석 (석사85), 이봉수 (석사78), (주)대한소재(대표 주용돈(SGS35기)), 최준희 (석사01), 김배 (석사03·박사06), 이정환 (박사10), 이상대 (석사87·박사92)
10만 원 이상	이민호 (석사17), 채미옥 (석사79), 백승한 (석사05·박사09),

2. 환경대학원 장학기

구분	기부자
1억 원 이상	노재정·노재신(고주 노용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장학기금), 임강원(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주)라움팰리스(대표이사 이진수(SGS 30기)), 행복나래(주), 홍종호(現 환경대학원 교수)
5천만 원 이상	(재)행복나눔재단(최기원), (주)오이코스(대표이사 배장영(석사 87)), 기아 주식회사
1천만 원 이상	(재)동화산업장학재단, (재)경암교육문화재단, 양병이(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임강원(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인간환경디자인연구실교우회, 최혜미(석사 09), 박진형(석사 06)·최사라(석사 08) 부부, 이학섭(석사 04), 이월명(석사 11), 이상수(석사 05), 유재심(석 07·박 11), 박재민(석사 05·박사 07), 김태완(석사 04), 김세원(석사 09), 이원식·이선이(덕산 이한빈 자녀), (주)엠와이소셜컴퍼니(MYSC)
500만 원 이상	조경설계서안(주)(대표이사 정영선(석사 73)),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이강제(SGS 26기)), (주)동해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정점래(석사 88, SGS 12기))
100만 원 이상	전병성(석사 83, SGS 19기), 쓸쓸한동화준비위원일동, 구분경(석사 86), 홍성민(석사 09), 김태형(現 환경대학원 교수), 전의찬(석사 85), 이도원(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윤순진(現 환경대학원 교수), 장수은(現 환경대학원 교수), 원재무(석사 74), 이봉수(석사 78), 이민호(석사 87), 방정일(기계항공공학부 96), 2017홀커밍데이주관기수, 임강원(환경대학원 명예교수)·김우진(석사 83, SGS 16기), 변창흠(석사 88·박사 92), 우정현(석사 89·박사 93), 장영기(석사 83·박사 86), 이민영(석사 99), 최준희(석사 01), 박지혜(석사 01), 2017 홀커밍데이 준비위원회, 김연명(석사 85), 대신이엔디(대표이사 문길주(SGS 36기)), (주)지비엠아이엔씨(대표이사 방기석(SGS 14기)), 육근형(석사 99·박사 07), 김현국(석사 01), 김영삼(석사 96), 강신규(석사 93·박사 97), 박년배(석사 00·박사 08), 전제열(석사 03), 원세형(석사 03, 박사 13)
50만 원 이상	채일권(박사 12), 윤제용(석사 86), (주)지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박찬정(SGS 16기)), 민범기(석사 88), 임영태(석사 89), 김윤관(석사 94·박사 99), 이상대(석사 87·박사 92)
10만 원 이상	박미옥(석사 00), 공영철(석사 03), 최진희(석사 91), 이동선(석사 00), 이은주(석사 00), 송인주(석사 90), 이은미(석사 93), 진상현(석사 98), 최이규(석사 01), 음성원(석사 01), 김정미(석사 01), 김동희(SGS 16기), 문병섭(석사 91·박사 96), 전제열(석사 03)

3. 환경대학원 글로벌 교육연구 및 최고위과정 운영지원

구분	기부자
5천만 원 이상	(주)한국뉴미디어·한스경제 대표이사 정순표, 환경대학원 최고위과정
1천만 원 이상	씨케이에코(주)(대표이사 최송휴(SGS22기)),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제33기 동문, 김진학(SGS29기), 홍미영(SGS33기), 주식회사 피엠케이, 조범주(SGS33기), 이영권(SGS33기), 이상대(석사87·박사92), 원조양평신내서울해장국, 송영주(SGS33기), 법무법인 동우, 방림이엘씨, 박혜란(SGS33기), 김훈희(SGS33기), 김지현(SGS33기), 종하이앤씨, 왕산플래너스, (주)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500만 원 이상	문기주(SGS39기),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제34기 동문, 현대토건(주), (주)동양건설산업(대표이사 우승헌(SGS32)), 주식회사동산, 세교개발, 유성식(SGS34기), 오상협(SGS34기), 서미경(SGS34기), 김철희(SGS34기), 김남규(SGS34기)
100만 원 이상	정용철(SGS39기), 안길전(SGS39기), 류제진(SGS39기), 손창선(SGS39기), 김진배(SGS39기), 송희문(SGS39기), 이윤규(SGS39기), 남호진(SGS39기), 이상석(SGS34기), 김윤희, (주)지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박찬정(SGS16기)), 주식회사 대한소재(대표 주용돈(SGS35기)), 박정수(SGS38기), 송백규(SGS38기), 유태경(SGS38기), 류지원(SGS38기), 김수영(SGS38기), 권오진(SGS38기), 김혜숙(SGS38기), 위수연(SGS38기), 전찬기(SGS38기), 조현찬(SGS38기), 최학찬(SGS38기), 최정권(SGS38기), 박준태(SGS38기),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제38기 동문,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제41기 동문
50만 원 이상	권수연(SGS39기)
10만 원 이상	김부성(SGS38기), 김영옥(SGS38기), 김주원(SGS38기), 송준원(SGS38기), 심영옥(SGS38기), 오정민(SGS38기), 이서정(SGS38기), 차민태(SGS38기)

4. 환경대학원 위임

구분	기부자
1억 원 이상	대아종합조경(주)(대표이사 강완수(SGS30기))
5천만 원 이상	(주)미래E&D(대표이사 백운수(석사78·박사89))
1천만 원 이상	박종화(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태형(現 환경대학원 교수), 안계동(석사79, SGS8기), 이도원(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진학(SGS29기), 송두영(SGS22기), 이완영(석사80), 조백일(SGS6기), 張德春(장덕춘)(석사19 張立生の 부친),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28기(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1기),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윤세한(SGS8기, 21기)), (주)포스웨이브
500만 원 이상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제37기
100만 원 이상	심재석(SGS26기), 박우평(SGS31기), 신천희(SGS31기), (주)청록환경엔지니어링(대표이사 허성호(SGS26)), 이상진(SGS31기), 최용준(SGS31기), 황영도(석사93), 조경사무소 사람과나무 주식회사(대표이사 오화식(SGS31기)), 주식회사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대표이사 문국현(SGS7기)), 현대건설(주)(대표이사 정수현), 주식회사 유엘피(대표이사 백준석), 주식회사 스페이스톡(대표이사 허수경(SGS31기)), 2016홈커밍데이 주관기수, (주)보미종합건설(前 대표이사 김덕영), 김안재(환경대학원 명예교수)·한경원(석사00·박사02),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김자호, 김태집),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前 대표이사 김관중), (주)엠아이티존(대표이사 권혁설(SGS31기)),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임진우(SGS32기)), 남경희(SGS31기), 류은자(SGS31기), 법무법인 태산(신용원), 송향숙(SGS31기), 아이스빌 주식회사, 안영애(석사80), 오세경(SGS31기), 정진용(석사87), 조진형(SGS31기), 주식회사 에코밸리(대표 이재홍), 코오롱위터앤에너지(주)(대표 이수영), 주정훈(석사03), 변영진(석사79·박사85), 강경해(SGS26기), SM우방건설산업, (주)백향목교육(대표이사 선만규(석사83)), 김선태(석사86), 김혜천(석사78·박사85), 한태환(석사90), 윤순진(現 환경대학원 교수), 씨케이에코(주)(대표이사 최송휴(SGS22기)), 현대산업개발(주), 장영기(석사83·박사86), 전의찬(석사85·박사88), 슬로몬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유종국(SGS24)), 이경현(석사05), 윤윤정(석사05·박사08), 김희석(박사09), (주)서울나무병원, 황자운, 이형엽, 유기영, 남선희,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사장 양승호(석사86·박사96)), 강완모(석사06·박사08), 법무법인 화인, 씨엔에프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에프에스, (주)이즈피엠피, 주식회사 제일건설창호, (주)신세계프라퍼티, 정광욱(석사00), 한정현(석사93), 이상훈(석사93), 주식회사 엠에스알, (주)카카오, (주)한국엡손
50만 원 이상	이계원(석사94·박사96), (주)에코시안(대표이사 은종환(SGS26기)), 강신혁(SGS31기), 권수아(SGS31기), 김용준(석사93), 문제열(SGS31기), 법무법인 동우, 윤홍노(석사85), 이상인(SGS31기), 이용호(SGS31기), 이창수(석사85), 조상현(SGS31기), 최정주(SGS26기), 황재식(SGS31기), 하성규(석사77)
10만 원 이상	손용훈(現 환경대학원 교수), 유형식(석사94), 변영섭(SGS32기), 김찬국(석사97), 안성은(SGS28기), 박두준(석사85)

5. 탄소중립 환경사랑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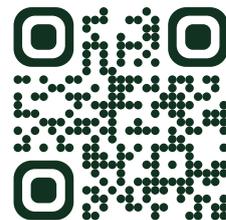
구분	기부자
5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윤순진 (現환경대학원 교수), 김부열 (現환경대학원 교수), 김경민 (現환경대학원 교수), 장원 (석사 84), 방기석 (SGS 14기), 전의찬 (제24대 동창회장)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박년배 (석사00, 박사08), 문길주 (SGS 36기), 이상훈 (석사93), 하지훈 (박사수료), (주)한국뉴미디어·한스경제 대표이사 정순표, 양희경 (ESG 3기), 김배 (최고위과정 사무국장), 류호재 (박사수료), 이태성 (박사재학), 여기봉 (석사16)
5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박현지 (박사재학), 박지연 (석사재학), 최순길 (박사재학), 이영지 (박사10), 류호재 (박사수료), 최지영 (박사06), 강소연 (박사수료), 이소영 (박사수료), 고도연 (박사수료), 강영숙 (석사재학), 원하린 (환경교육 협동과정 석사재학), 윤운선 (환경교육 협동과정 석사재학), 이은재 (환경교육 협동과정 석사재학), 이찬희 (박사19)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지금 바로,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 단체 기부 모두 가능
부담없이, 1만원부터
원하는 방법으로, 일시납, 분할납, 약정후 월납



문의 | 대외협력조교 02-880-5669 / gsesnews@snu.ac.kr

●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환경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연간 재학생 22명, 약 2천만 원)

여러분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국제학술활동 경비 지원

(연간 재학생 12명 내외, 약 1천만 원)

환경대학원 시설 개선 사업

(학생 연구 및 복지 공간 개선)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제공)

1백만 원 이상

발전기금 회원카드 발급

중앙도서관 이용
(1년)

호암 교수회관 할인

기부자 명패 제작
(환경대학원)

1천만 원 이상

기부자 디지털 게시
(서울대 본부 명예의 전당)

근조기 발송 서비스
(총장명의 근조기)

중앙도서관 평생 이용
미술관, 박물관 무료

1억 원 이상

기부자 명패 제작
(서울대 본부/연구공원
명예의전당 등재)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1억 원당 1년 1회)

▶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42기 모집 안내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환경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활동으로 발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42기 과정에 참여할 분들을
새해 계획을 구상하는 지금부터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좋은 분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2기 모집은 2024년 2월 2일(금)까지 선착순으로 심사하여 마감할 예정입니다.

상시접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전화: 02-880-8525, E-mail: snusgs@snu.ac.kr)

●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링크

<https://gses.snu.ac.kr/advanced-program/urban-environmental-studies/overview>

● 42기 전형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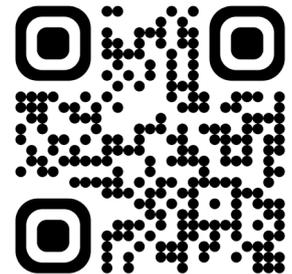
원서접수 : 2024년 2월 14일(금) 18:00까지 / 선착순으로 심사하여 마감

*입학지원서는 환경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격자발표 : 2월 24일(월)

등록기간 : 2월 24일(월) ~ 2월 28일(금)

등록금 : 800만원 (국내답사 비용은 등록금에 포함, 해외답사 비용은 참가자 별도부담)



● 교육기간

2024. 3. 20일(목) ~ 11월 27일(목) (출범/수료식 포함, 총 22주)

매주 목요일 19:00 ~ 22:00 *저녁식사 18:00 ~ 19:00

● 교육일정

출범식 2024.3.20.(목)

전반기 교육 3.27.(목) ~ 6.5.(목) *국내답사 4.4.(금) ~ 5.(토)

방학 6.6.(금) ~ 9.3.(수) *해외답사(방학중)

후반기 교육 9.4. ~ 11.29.

수료식 11.27.

(42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모집안내 참고자료)

▶ ESG 전문가과정 제5기 모집 안내

‘ESG 전문가과정(ESG Executive Education Program)’은 ESG의 본질을 이해하고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최신 지식과 인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글로벌 ESG경영을 주도하고, 혁신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핵심역량과 경쟁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SG 전문가과정은 년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상시접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학기에 진행될 5기의 모집은 2025년 2월 14일(금)까지
선착순으로 심사하여 마감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전화: 02-880-8525, E-mail: snusgs@snu.ac.kr)

● 환경대학원 ESG 전문가과정 링크

<https://gses.snu.ac.kr/advanced-program/ESG-executive-education/overview>

● 5기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4년 2월 14일(금) 18:00까지 / 선착순으로 심사하여 마감

*입학지원서는 환경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격자발표 : 2월 24일(월)

등록기간 : 2월 24일(월) ~ 2월 28일(금)

등록금 : 600만원

● 교육기간

2024. 3. 14일(금) ~ 6월 20일(금) (출범/수료식 포함, 총 14주)

매주 금요일 19:00 ~ 22:00 *저녁식사 18:00 ~ 19:00

